

국립국어원 2013-03-01

대학 강사의 국어 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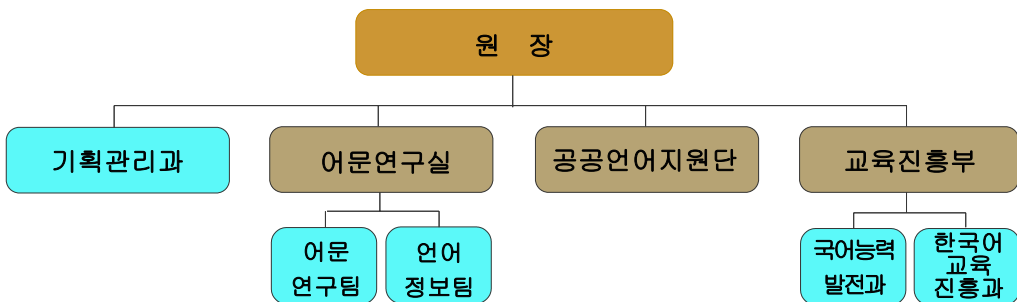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교재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 | | |
|--------|-----------------------|--|
| 원 장 | 기 획 관 리 과 | 사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
| | 어 문 연구실 | <p>◆ 어문연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p>◆ 언어정보화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 | 공공언어 지 원 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 | 교 육 진흥부 | <p>◆ 국어능력발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p>◆ 한국어교육진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 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 전화: 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 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월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과 더불어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이 신청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2년에는 약 1,500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6,300명에 이르러 10년간 약 2만5천여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 |
|-----------|---|
| 1992. |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
| 1999. 8.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
| 1999. 10.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
| 2000.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
| 2005. 10. |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
| 2005. 12. |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
| 2006. 2. |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
| 2007. 5. |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
| 2009. 5. |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
| 2009. 10. |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
| 2009. 11. |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
| 2009. 12. |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
| 2010. 6. | 정규 과정 외 국가보훈처, 국회사무처 등 원외 기획 과정(15회) 운영 |
| 2011. |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
| 2012. |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 연 도 | 과 정 | 국어전문교육과정 |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
|-------|-----|----------|--------|-------------|---------|
| | | 개설 횟수 | 수강 인원 | 강의 횟수 | 수강 인원 |
| 2002년 | | 19 | 1,452 | 185 | 16,970 |
| 2003년 | | 16 | 1,486 | 157 | 17,890 |
| 2004년 | | 17 | 1,458 | 176 | 16,332 |
| 2005년 | | 17 | 1,765 | 195 | 15,655 |
| 2006년 | | 18 | 1,921 | 190 | 12,926 |
| 2007년 | | 22 | 2,354 | 253 | 19,305 |
| 2008년 | | 22 | 2,443 | 148 | 10,275 |
| 2009년 | | 27 | 2,733 | 297 | 19,062 |
| 2010년 | | 25 | 2,316 | 316 | 27,804 |
| 2011년 | | 23 | 2,420 | 323 | 24,966 |
| 2012년 | | 26 | 2,671 | 482 | 33,295 |
| 합 계 | | 232 | 23,019 | 2,722 | 214,480 |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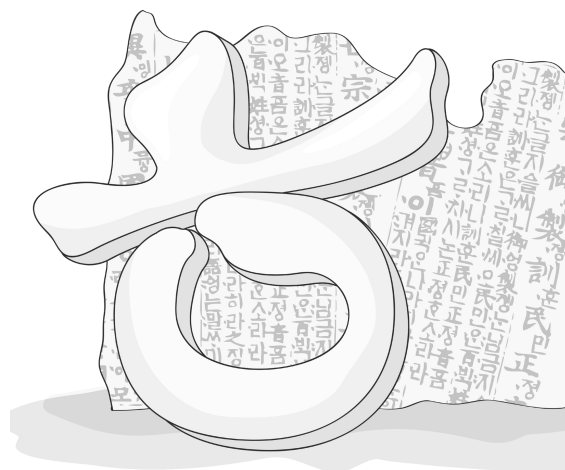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외국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생활 속 어문 규범’, ‘띄어쓰기’ 등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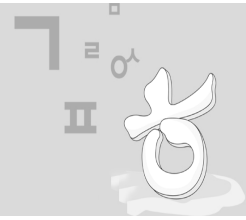


국어 어문 교육의 과제

민 현 식 (국립국어원장)



국어 어문 교육의 과제



1. 國力과 國語能力

한 나라의 國力은 국가자원과 국민정신(국민의지)의 총화로 표현한다(국력 = 국가자원 × 국민정신). 이는 ‘自然資源’과 ‘人的資源’의 總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연자원이 풍부해도 인적자원 곧 국민정신이 나약해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나라들이 있고 자원은 빈약해도 세계를 호령하는 국민정신으로 強大國이나 強小國이 되기도 한다.

국어능력은 개인이 자기의 모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즉 자기 모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며 文解力(文識力, literacy)이라고도 한다. 또한 국어능력은 한 개인의 ‘전문지식’[내용]과 ‘국어지식(문법지식)’[형식]의 총화라 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 지식과 이를 글로 표현하는 문법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지식 경험이 뛰어나도 국어 문법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달 효과가 떨어진다.

국어능력 = 전문지식[내용] × 국어지식(문법지식)[형식]

전문지식[내용] = 선함(양심, 상식) + 경험 + 지식(독서) => 세계관, 교양

국어지식[형식] = 어휘(발음, 단어, 표기) 능력 + 어법 능력 + 담화 능력

1.1. 單純 文盲率은 낮다

한국의 문맹률은 일제하에서 90% 수준이고, 해방 후의 문맹률은 미군 군정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8%로 나타난다(정진석 1999, 이웅호 1974). 그래서 1920년대 말에는 東亞日報, 朝鮮日報가 농촌계몽운동을 통해 文盲退治事業을 벌였다. 해방 후에는 한글 학회가 전국적인 한글 맞춤법 강습을 벌여 문맹퇴치에 앞장서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李承晩 대통령의 義務教育 정책 실현으로 문맹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문맹률은 낮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한글의 기적’ 덕분에 ‘漢江의 奇蹟’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보면 맞춤법 틀리는 학생이 흔하다. 通信言語 사용 탓도 있지만 국어교육에서조차 맞춤법 교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한 체계적 맞춤법 교육이 없어도 우리가 한글을 익혀 낮은 문맹률의 언어생활을 영위함은 그나마 다행이니 배우고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다. 그러나 맞춤법 교육은 물론 어휘, 어법 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형성

되는 능력이다.

(1) 맞춤법 원리: 한글 맞춤법(1988)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가 | 나-1 | 나-2 | 다 | 라 | 마 | 바 |
|------|-----|-----|------|-----|-----|------|-------|
| 표음주의 | 책 | 업다* | 듣다 | 잡기 | 무덤 | 빠꾸기 | 국따랑다* |
| | 채기* | 엄니* | 들어 | 자빔* | 너무 | 개구리 | 넌따랑다 |
| | 채글* | 엄서* | 들어서 | 자비* | 마중 | 얼루기 | 넌찍하다 |
| 표의주의 | 책 | 없다 | 듣다 | 잡기 | 문엄* | 빠꼭이* | 굶다랑다 |
| | 책이 | 없니 | 들어* | 잡음 | 넘우* | 개굴이* | 넌다랑다* |
| | 책을 | 없어 | 들어서* | 잡이 | 맞웅* | 얼룩이* | 넌찍하다* |

[사례] 얹히고설키다/얼키고설키다; 빠꾸기/빠꼭이; 얼루기/얼룩이; 덩다리/덩달이;
흐트러지다/흩트러지다*; 흐트리다(북한어)*/흩트리다

(2) 국어 표기의 문법적 원리

① 음운론적 원칙: 표기는 발음을 충실히 반영한다. 표음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 ‘돌, 달, 나무, 먹다, 가다, 하다’ 등 대부분의 단어는 발음대로 적는다.

② 형태론적 원칙: 표기는 단순히 발음만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 형태를 고려한다. 형태 고정, 표의주의(형태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 ‘없다-업다; 먹다-먹어-먹는; 얹히고설키다’처럼 기본형을 밝혀 적기도 한다.

③ 통사론적 원칙: 표기는 문법 구조를 반영한다. 조사와 어미변화, 띄어쓰기 문제에 통사적 고려를 한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요, 그것은 꽃이요.[발음은 같으나 문법 기능으로 ‘-오 ~ -요’를 구분한다]

④ 어휘의미론적 원칙: 동음이의어 변별 표기나 복수 표준어 표기의 노력

예: 한자어 동음이의어들을 한자 병행 표기하려는 주장은 이런 차원의 표기 노력이다. [이상]이란 소리만으로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없어 ‘以上-理想-異常’이란 한자로 구별하여 시각적 가치로 소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문자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표준어 규정 9항 [붙임2]에서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처럼 표기에 어휘의미론적 고려가 개입되기도 한다.

⑤ 담화론적 원칙: 문자는 담화 차원에서 소통을 위한 표기 전략이 고려된다.

예: 문단 의식에 의한 들여쓰기, 대문자, 문장부호 등이 관여하고 강조 표시로 고딕체

를 하거나 밑줄을 치거나 하는 등 텍스트 글꼴 편집을 논하는 문자형태학(topography)은 담화 자원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

⑥ 역사언어학적 원칙: 표기를 결정할 때는 역사적 어원을 참고한다.

예: ‘우레’는 ‘雨雷’가 아니라 ‘울+에’에서 유래한다. ‘희망, 사례’의 ‘희, 레’는 아직도 전통 한자음에 근거한다. ‘있다, 굿다’의 ‘ㅅ’도 현재는 ‘ㅅ’음과 관계가 없지만 중세 이래의 전통적 표기를 존중함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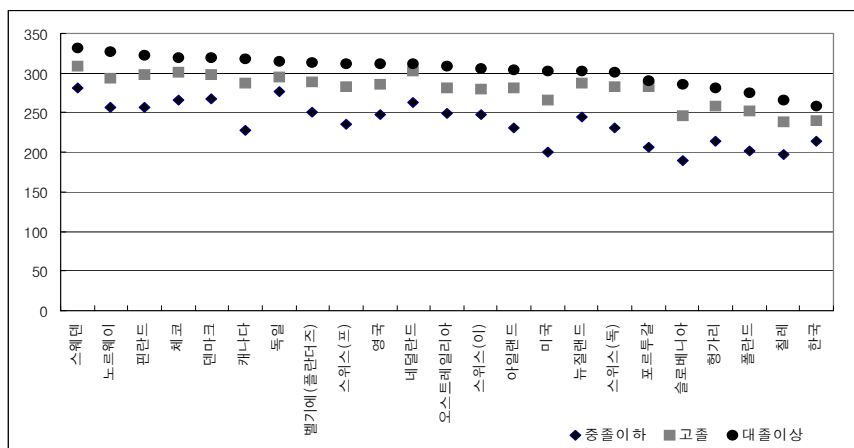
1.2. 實質 文盲率은 높다(OECD국가 중에서 문해력은 최하위)

이희수 외(2001)에 따르면 OECD의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에서 한국 성인 16-65세 남녀 1,200명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해력(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 평가에서 한국은 산문 문해 13위, 문서 문해 19위, 수량 문해 12위로 나타났다.

- ① 산문 문해력(prose literacy): 신문 사설, 뉴스, 시, 소설 따위의 이해력
- ② 문서 문해력(document literacy): 이력서, 봉급 명세서, 교통시간표, 지도, 도표 이해력
- ③ 수리 문해력(quantitative literacy): 수리 계산, 주문서 작성, 이자 계산 등 수리 능력

한국인의 산문, 수리 문해력은 대체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이지만 제품 설명서, 구직 원서, 봉급 명세서 등 일상적 문서 문해력은 OECD 조사국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문서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다. 이는 세종 덕분에 한글은 쉽게 배웠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는 매우 방심한 결과이다.

[학력에 따른 국가간 문해력 점수 비교(문서 문해력)]



자료: 이희수 외(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 및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사례 1] 국립국어원(2008)의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7%인 260만 명이 '문맹'이거나 문맹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ㄱ, ㄴ'과 같은 낱글자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수는 약 62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1.7%이고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는 있으나 문장 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반문해자는 약 198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5.3%였다. 성인 문해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 교육이 필요한 인구를 전체 인구의 약 15.7%에 해당하는 57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례 2] 2003년~2005년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 우수 학력자 비율이 가장 낮고, 영어 우수 학력자 비율이 월등히 높음
- 3년간 우수 학력자 비율이 국어는 감소, 영어는 매년 증가
- 기초 미달 학생의 경우는 국어(3.7%~4%)가 영어(2.5%~2.3%)보다 높음
- 국어 기초 학습 능력 부진 학생은 63%에 이룸
 - 서울시내 3~6학년 기초 학습 능력 부진 초등학교생 3,709명 중 국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63%인 2,335명이나 됨.
 - 서울시내 3~6학년 초등생 49만 명에서 100명 중 3~4명은 한글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함.

1.3. 漢字 文盲率은 동아시아 最高이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한자 자율학습이나 교장 재량의 한자 학습을 하지만 실제 50% 정도만 하여 초등학교의 반수는 한자교육을 자율이나 재량학습으로조차 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성명을 한자로 쓰는 학생은 60% 수준이며, 부모 성명 한자 쓰기는 10% 수준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명 한자 쓰기는 1% 수준이다.

한자문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식이 존재한다. 한자문화 긍정론자들은 아시아에서 문명을 갖춘 대표 국가가 한·중·일 3국으로 한자 문명권이라는 점이 공통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상들이 선택한 한자문명의 존속은 한국사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자문화 부정론자들은 한자문화가 민중 지배의 도구라고 보고 한자문화를 비판하는 편이라 극단적 한글전용론으로 나타난다.

한글전용론은 원래 한문교육까지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대표적 한글전용론자(최현배, 허웅)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할 뿐 중학교 때부터는 한문교육을 외국어 교과 차원에서 철저히 하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한글전용의 논리를 요약한 허웅 선생의 논설(경향신문 1998. 10. 9 시론)이다.

- (ㄱ) 한글만으로 글자살이를 꾸려나가는 한다.
- (ㄴ) 한자에 눌러 기를 펴지 못한 순수한 우리말의 힘을 되찾아야 한다.
- (ㄷ) 말의 표현은 바르고 쉽게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 (ㄹ) 글자의 기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정보화 조류에 앞장서야 한다.
- (ㅁ) 한문은 외국어 교과목의 하나로 조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특히 (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의 한문교육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는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한자파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글파도 대체로 한자교육을 포함한 한문교육을 인정한다. 단지 차이는 시행 시기만이 다르다. 한자파는 대체로 초등 한자교육을 주장하고 한글파는 대체로 중학교 때부터로 주장함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자는 언론에 대립 갈등 집단으로 비칠 필요가 없으며 시기만 타협하면 된다. 오늘날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한자교육이 퇴출된 결과 한자가 사라진 자리는 영어로 채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자교육은 중국 문자의 교육이 아니다. 溫故而知新을 위해 조상들과 대화하고자 조상들의 문자를 익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한자를 傳統 國字로 볼 수 있다. 국민 의견은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초등학교 한자교육 주장으로 나타나는데도 학자들의 합의 능력 부재로 한자교육 없는 국어교육이 벌어지고 한자 문맹자들만 양산하고 있다. 한자교육은 중등 국어교육에서 거의 퇴출되었는데 이는 한자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이요 파괴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어 교사들의 한자 지도, 고전 지도 능력도 약해졌다. 한자 문맹은 역사에 무지한 역사 문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어문정책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 (1) 국어생활의 이상적 문제론: 한글전용인가? 국한혼용인가?
- (2) 한자 교육의 이상적 시기론: 초등학교부터인가? 중학교부터인가?

정부는 (1)은 국어기본법에서 ‘공문서는 한글로 적는다(다른 민간 논저에 강제하지는 않는다)’라는 한글전용 정책을, (2)는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중학교에서부터의 한문 교육 정책을 표방한다.

- (1) 한글전용인가? 국한혼용인가?

현재 국어기본법 14조의 한글 전용 규정은 공용문서에 대한 규정으로 언론, 학술논저 등에서 한자 혼용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혼용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컴퓨터, 인터넷의 영향으로 한글전용이 대세이므로

한글전용이 가속화할수록 한자 교육도 철저히 하여 국민의 한자 문맹은 막아야 한다.

국어생활을 日常 언어생활과 專門 언어생활로 나눌 때 일상 언어생활은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 중심이라 한글전용체로도 족하다. 장기적으로 한글전용체가 이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자어가 대부분인 전문 언어생활(초중고교 대학의 교육 공간, 전문 직업 세계 등)에서는 한글전용체가 암호문과 같아 독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자를 아는 한글전용론자들은 한자를 배웠기에 한글전용을 해도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1990년대 한문과목이 선택화되면서 한자 소양이 없이 국어교육을 받았거나 현재도 받고 있는 청소년 세대들은 한글전용체에 나오는 전문 한자어 이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최소한 한자 병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한자를 이해하려면 한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공용문서인 교과서는 한자를 괄호 병기하여 전문어 이해에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고 괄호 한자의 이해를 위해 한자 교육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중고교 국어 교과서만 일부 한자어만 괄호 병기하는데, 전문어가 더 많은 國史, 道德, 倫理, 社會, 科學 교과서는 한자어 병기를 전혀 하지 않고 암호문처럼 되어 학습 부진아를 양산하므로 이들 교과에도 한자 병기를 확대하여야 한다.

(2) 한자교육 이상적 시기론: 초등학교부터인가? 중학교부터인가?

초등학교에서 국어과가 수행해 오던 한자 교육은 1973년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폐지되고 대신 교장 재량 선택으로 비정규과정 시간(재량활동, 아침자습시간)에 한자 교육이 선택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현행 2009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창의체험활동이라는 교장 재량활동시간에 39개 각종 특별교육(보건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통일교육 등)의 요구를 응하다 보니 교장 재량 한자 교육 시간은 1학기에 10여 시간도 못하고 국어과와 연계도 없어 효과가 없다. 교장 재량이다 보니 안 하는 학교도 절반이라 학교마다 학력 차이도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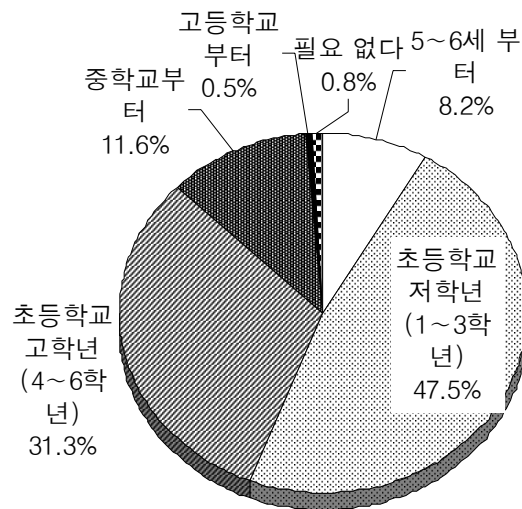
한글전용파인 최현배, 허웅 선생은 한문교육을 중학교에서 더욱 철저히 하라고 하였고, 국한혼용파인 이희승, 남광우 선생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였으므로 적어도 두 학파는 중학교에서의 “한문교육 정상화”를 인정하므로 대립하지 말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해 한자/한문 교육의 정상화에 공동 협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두 학파가 수십 년 소모적으로 대립해 왔는데 국민 여론에 따라 해결함이 이상적이다. 대규모로 조사한 국립국어원(2005, 2010)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한자 교육 조사를 보면 국민 여론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자교육을 하라는 요구가 압도적 대세이다. 이 세 연구물은 모두 국민이 漢字 教育 필요성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①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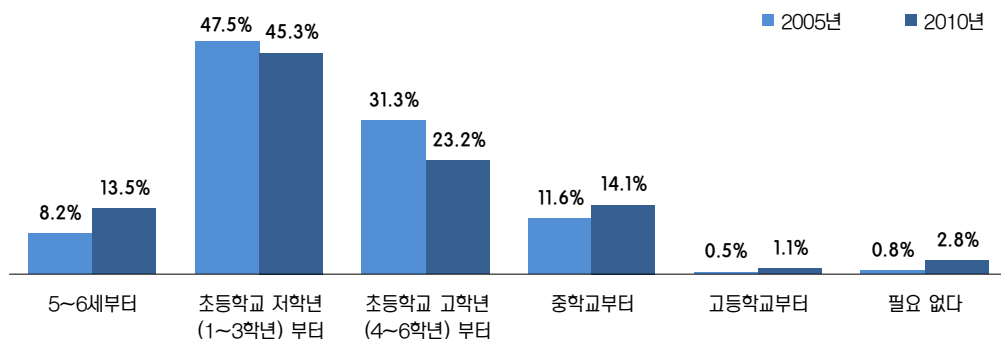
국립국어원(2005)의 성인 대상 ‘국민 언어의식 조사’에서는 漢字 敎育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부터 하라는 요구가 47.5%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은 31.3% 이이고 여기에 5~6세 漢字 敎育 주장 8.2%를 더하면 早期 漢字 敎育論은 87%라 국민의 漢字 敎育 요구는 조기 교육론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파의 논쟁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 여론에 따라 이를 정책화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2005): 바람직한 漢字敎育 실시 시기】



② 국립국어원(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이는 2005년에 이은 조사로 한자 교육의 시기와 관련한 결과는 2005년과 2010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2005년〉 | 〈2010년〉 |
|------------|---------|---------|
| 초등학교 입학 전 | 8.2 % | 13.5 % |
| 초등학교 1-3학년 | 47.5 % | 45.3 % |
| 초등학교 4-6학년 | 31.3 % | 23.2 % |
| 초등학교 이하 합 | 87.0 % | 82.0 % |

위의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 이하 시기가 87%에서 82%로 줄었지만 초등 입학 전은 8.2%에서 13.5%로 오히려 더 늘었고 초등 1-3학년 시기는 47.5%에서 45.3% 정도로 큰 차이 없이 유지하고 있어서 국민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한자교육 요구는 확고한 요구사항이라 하겠다.

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初等學校의 바람직한 漢字教育 方案 研究’

정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초등학교 漢字教育의 구체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漢字 教育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77.3%, 학부모 89.1%, 전체적으로 5,222명 중 83%인 4,334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國語教育의 問題點과 國語能力 不實의 原因과 실태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어능력 부실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진단해 볼 수 있다.

(1) 入試用的 비정상적 국어교육

- 문제 풀이식 국어 수업
- 동아시아 최고의 한자 문맹화 정책: cf. 일본 노벨상 16명(과학상 13명)
- 입시용 발췌 독서
- 입시용 논술 중심의 작문교육
- 수능 제도의 한계

(2) 문법교육의 부실

- 4차 교육과정기부터 ‘중학 문법’의 폐지
- 국정 통일 ‘고교 문법’ 체제가 다양한 문법 교과서 출현 막아
- 대입 수능의 문법 및 규범 평가 소홀
- 규범교육의 체계적 실천 부재
-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문법 및 규범교육 부실

- 국어를 경시하고 ‘한글은 쉽다’고 믿는 맹신

학생들은 조기 영어교육으로 영어 8품사는 알아도 국어 품사 교육은 중학 3학년 때나 배워 영어 교사들이 국어 교사들에게 국어 품사 교육 좀 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다.

(1) <영어 배우느라 한글 잊었나...초중고생 국어교육 소홀>(동아일보 2006. 7. 8)

(ㄱ) 2005년 12월 서울, 인천, 충남 천안시의 6개 중학교 작문 오용 실례

‘나는 약간 삼만합니다(산만합니다). 나서는 걸 좋아하지만 아페못나감니다(앞에 못 나 갑니다).’ ‘내꿈은 기술자였는데(테) 지금은 꿈이 박였습시다(바뀌었습니다).’

2학년 학생 200여 명이 장래 희망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결과 맞춤법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학생은 2명뿐이었다.

(ㄴ) 인천의 모 중학교 이모(38) 교사는 지난해 12월 영어 시험문제를 채점하면서 당황했다. caterpillar(애벌레)의 철자와 한글 뜻을 쓰라고 했더니 350명 중 70% 정도가 영어 철자를 맞게 썼지만 한글은 ‘에벌레’ 또는 ‘애벌래’로 썼다.

(ㄷ) 13일 인천 A고교 문학시간. 교사가 “지문 속 등장인물이 회의적(懷疑的)”이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ㄹ) 대학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B대학 이모(45) 교수는 “강의 도중 군도(群島)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뜻을 몰랐다”며 “학생의 어휘력이 부족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푸념했다.

(ㄴ)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30%가량이 1, 2학년생에게 특기적성시간을 통해 영어를 가르친다. 재량수업시간 과목을 한자에서 영어로 바꾸는 학교가 늘었다.

(2) <말이 안 되는 우리 국어실력>(조선일보 2008. 7. 3)

(ㄱ) 철학과 교수의 ‘타자(他者)’ 개념 설명을 학생들이 ‘타짜(노름꾼)로 착각

(ㄴ) 중3 남학생들이 춘향전 장면 연습시 “자, 내 숙청을 들라”라고 ‘숙청(肅淸)’과 ‘수청(守廳)’을 혼동

(ㄷ) 고1 논술 문장에서 ‘수포로 돌아갔다’를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다.

(ㄹ) 중3 학생, ‘문외한(門外漢)’을 ‘무뇌한’(무뇌아처럼 뇌 없는 사람)으로 착각.

이상과 같이 국민 국어 능력을 비판하는 언론은 얼마나 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언론도 외래어 남용을 비롯하여 국어 오용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ㄱ) 커피 의존도가 훨씬 더 큼니다. → 커피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의존도’는 ‘정도’이므로 ‘크고 작기’보다는 ‘높거나 낮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ㄴ) 환자 쏘림 현상→ 환자 몰림 현상. (‘쏘림’을 새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쏘림’은 사물에 쓰는 경향이 있어, 사람이라면 몰리는 것으로 보아 ‘몰림’이 적절하다)

(ㄷ) 환자를 짚궂이하는 → 환자를 독점하는. (‘짚궂이’는 비속어이며 ‘독식’도 부적절하므로 ‘독점’이 무난하다)

(ㄹ)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 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사랑 가정.

(ㄴ) 언론에서 ‘세계문화유산’과 해례본이 등록된 ‘세계기록유산’은 구별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식의 오보가 언론에 많고, 한글 외에 문자 창시자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가령 에스페란토 어) ‘한글은 창시자가 있는 유일한 문자’라는 식의 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ㄷ) 김연아, ‘찰떡궁합’ 오서 코치와 결별: 南女 관계를 ‘찰떡궁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夫婦(부부) 사이뿐이다

(ㄸ) 이번 개각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대 10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알려져...: ‘최대, 최다, 최고’를 혼동

(ㄹ) 김정일 매제, 장성택 2위 登極: 정상에 오른 자에게만 등극을 써야 한다

(ㄷ) 한나라 親李 핵심들 ‘반란’: ‘반대’로도 충분한데 전투적, 자극적 표현이 많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개념이 불분명한 명칭 사례들이라는 지적이 많다.

(ㄱ) 전쟁기념관’은 ‘호국기념관’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ㄴ)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개명하여 혼란스럽다. 영어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는 콩글리시 수준이다.

(ㄷ) 북한 이탈자, 탈북자, 귀순자, 새터민 등의 지칭어 문제가 있다.

(ㄹ) 청와대 비서관의 통일 방안 설명에서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한다.”: ‘2 체제’라고 해야. 헌법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국가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는 표현임

(ㄴ) 김정일 하얼빈 거쳐 귀국길: ‘귀환’이 적합

(ㄷ) 김정일, 성지순례: ‘유적지 순례’가 적합. 성지란 용어를 타락시키고 있음

(ㄸ) 건국 60주년: 건국, 광복절 기준 문제. 제1회 광복절 기념식은 1949년 8월 15일에 거행되었어야 하는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1949년 9월에 제정되어서 거행하지 못했다. 1950년 8월 15일 대구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이 제2회 광복절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광복절 기념사에 명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 제목은 ‘기념사(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되어 있고, 기념사의 첫머리는 “금년 8·15경 축일은 만국 독립 제2회 기념일로서”라고 시작하고 있다.

언론, 인터넷 포털 뉴스는 ‘초비상, 대란, 00폭탄, 폭거’ 등의 선정적, 선동적 언어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어 인터넷 포털 편집자들의 언어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십대 학생의 대화가 받은 辱說이라고 할 정도이고 인터넷의 악성 댓글도 욕설로 뒤덮여 無禮 言語의 범람도 심각하다. 인터넷이나 미디어 영상언어의 煽情性, 暴力性은 더욱 저질화, 지능화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병들게 하고 있다.

3. 國語教育의 目標와 內容 領域

국어교육이 설정하는 세부 영역과 각 영역에서 추구하는 인간형과 함양하려는 목표 국어능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 하위 영역 이름 | 교과 가치 | 대상 언어 | 목표 특성 | 목표 능력 | 목표 인간형 |
|------------------|---|------------------------|-------------------------|---------------------|--|--|
| 기초 영역 (뿌리) | 문법 영역 (말소리, 단어, 문장, 담화) | 국어과 내부의 도구 및 지식 교과적 가치 | 일상 언어 전문 언어 예술 언어 | 정확성 적절성 | [1차 능력] 문법 능력: ①발음 능력: 발음력 ②단어 능력: 어휘력 + 표기력 ③문장 능력: 문장력 ④담화 능력: 담화력 | 문법적 인간 (문법 생활인) |
| 중핵 영역 (줄기) | 기능 영역 ① 이해 영역 (듣기, 읽기, 보기) ② 표현 영역 (말하기, 쓰기, 보이기) | 범 도구 교과가치 | 일상 언어 전문 언어 | 유창성 효과성 (효율성) | [2차 능력] ①표현력: 말하기, 쓰기, 보여주기 능력 ②이해력: 듣기, 읽기, 보기 능력 | 기능적 인간 (독서 생활인 작문 생활인 화법 생활인) |
| 종합 영역 (꽃, 열매) | 문학 영역 | 종합언어 예술교과적 가치 | 예술 언어 | 창의성 예술성 | [3차 능력] ①문예(문학) 능력: 문예 감상 능력 + 문예 창작 능력 ②문화 능력: 문화 이해력 + 비판력 + 창의력 | 문학적 인간 (문학 생활인) |

[국어 지식과 문학 작품의 감상]

| 춘망(春望) | 봄 |
|--|--|
| <p>두보</p> <p>나라히 破亡하니 뉘와 ㄹ름쑤 잇고 잣 앓 보미 플와 나모쑤 기뻐도다 時節을 感嘆호니 고지 ㄹ름쑤 썻리게코 여희여슈를 슬후니 새 ㄹ스뎡 놀래노다 烽火ㅣ 석 드를 니세시니 지뵈 音書는 萬金이 스도다 썻 머리를 글구니 쑤 더르니 다 빈혀를 이기디 ㄹ홀 듯호도다</p> <p>- 두시언해 초간본, 성종 12년(1481)</p> <p>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賤漏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p> | <p>김소월</p> <p>이 나라 나라는 부서졌는데 이 山川 옛태 山川은 남아잇드냐 봄은 왔다 하건만 풀과 나무에썻이어</p> <p>오! 설업다 이를 두고 봄이나 치어라 쑤넵페도 눈물쑤 핫트며 새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쉬어라 이두군거리는가슴아</p> <p>못보느냐 뵈헛케 쑤구는 봉쑤불이 쑤쑤내 그 무엇을 태우랴 함이료 그림어라 내 집은 하늘박게 잇나니</p> <p>애달프다 굵어 쥐어쓰드서 다시금 썻어졌다고 다만 이 희긋희긋한 머리칼쑤 인저는 빗질할 것도 업구나</p> <p>- 조선문단 14호(1926. 3)</p> |

4. 각국의 국어교육

4.1. 美國

미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사업을 하여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낙오 학생 금지법(No Children Left Behind)’(2001)은 미국의 학력 저하가 가져올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리터러시 코칭(literacy coaching)은 국어과 수석교사 제도로써 ‘리터러시 코치’ 교사의 역할은 리터러시 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재설계하기, 평가체계 만들기, 교육과정 개혁하기, 학습자료 선택하기이다.¹⁾

조기 문해 교육(Early Literacy)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문해력은 취학전 가정환경에서 결정한다고 보아 가정언어 전문성이 학생 문해력을 좌우한다고 본다. 읽기 우선 정책(Reading First)을 채택하여 IRA(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는 읽기 표준을 제시하고 ‘읽기 우선’ 전담 교사를 채용한다.

철자법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phonics 교육은 발음과 표기의 상관교육으로 독서 교육의 기초로 기능한다. 철자법 교육을 중시함은 영어 알파벳이 표음문자이지만 표의문자 또는 상형문자 수준으로 고착화하여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는 한글 표기법이 어렵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지만 알파벳보다 표음성이 높은 한글의 표기법이 발음과 표기의 괴리가 심한 영어 표기법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덜 까다롭다는 사실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즉, 영어에서 /i/를 위해 ‘ink, become, savage, busy, women’처럼 여러 모음자가 동원되고 ‘fee, sea, field, conceive, key, quay, people, subpoena, Caesar’처럼 겹글자조차 쓰이는 복잡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역시 a가 [a](car), [æ](man), [ɔ](was), [ɛ](many), [ə](about), [i](village), [e](made), [u](coat)처럼 1:8로 무려 8 가지로나 발음되는 것과 한글 ‘ㅏ’의 1:1의 표음성은 비할 바가 없다.

또한 /k/를 위해 ‘kiss, cap, queen, exception’처럼 여러 철자가 동원되고 ‘khaki, chaos, rock, accord, acquaintance’처럼 겹글자까지 쓰이는 것도 영어 철자법의 까다로움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하면 한글의 표기법은 매우 간편한 것이다. 이를 까다롭게 보는 것은 단지 국

1) 코칭: 행위 주체가 학생, 자기주도적, 양방향적, 馬車처럼 개인맞춤 서비스형, 미래지향적, 학생 목표 설정과 성장에 목표, 코치와 학생은 수평적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촉진자, ‘누구’에 관심.

cf. 티칭: 행위 주체가 교사, 부모, 교사는 지식 전달자 학생은 수용자.

트레이닝: 汽車처럼 동일 훈련 목적지 도달.

카운슬링: 과거지향적, 치료 기능 중점,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상하관계.

컨설팅: 진단하고 해결책 제시하지 않음. 문제해결이 목적, ‘무엇’에 관심.

멘토링: 멘토라는 권위자 전문가에 의존. 멘토와 학생은 수직 상하관계.

어 정서법의 학습을 게을리 하는 개인과 학교 교육의 태만일 뿐이다. 오히려 한글 사용자들의 태만과 무관심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서법 학습은 우리가 교양인의 문화생활에 지불하여야 할 최소한의 문화적 의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2. 英國

교과서가 없이 각 학교별로 교과 교사 책임 하에 개별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영국은 독서 문화가 도서관 문화와 결합되어 이상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영국 학생들은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에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선물로 제공받으며 독서 습관을 평생 발전시킨다. 방과 후에는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서 학습 과제를 수행한다. 도서관에는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과제와 독서를 돕는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문해력 전략’(National Literacy Strategy)을 국가 실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정책은 1996년부터 준비하여 1997년 7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국가 문식성 전략 실행 보고서’(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Literacy Strategy)가 1997년 9월에 발행되면서 구체화하였다. 이 정책은 어떻게 하면 5-10세 아동들이 읽기를 잘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정책으로 ‘읽기 혁명’(literacy revolut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리하여 학교는 날마다 ‘문해력 시간’(literacy hour)을 배정하여 읽기 훈련을 하게 하였다. 1998, 1999년에는 ‘읽기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로 정하여 부모들에게는 집에서 하루에 20분씩 읽어주기 운동을 매스컴 홍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권장하였다. 문해 국가 건설(Building a literate nation)이란 구호 아래 ‘국가 문해 연맹’(National Literacy Trust)이란 단체도 만들어 ‘오늘의 문해력’(Literacy Today)이란 잡지도 발간하고 있다.

4.3. 日本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민의 國語力を 증진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일본어교육에서 제시하는 ‘국어력’의 개념과 구조는 ‘생각하는 힘, 느끼는 힘, 상상하는 힘, 표현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정보를 처리, 조작하는 영역’과 이런 정보 처리와 조작 영역의 기반이 되는 ‘국어의 지식’ 영역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형성되는 ‘교양, 가치관, 감성의 영역’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여기서 문법 영역을 ‘국어지식’이라 하고 이를 모든 국어 능력의 기초능력으로 봄은 주목된다.²⁾

2) 일본의 국어정책 관련 정보는 문화청의 누리집에서 ‘國語に関して’ 부분이 좋은 안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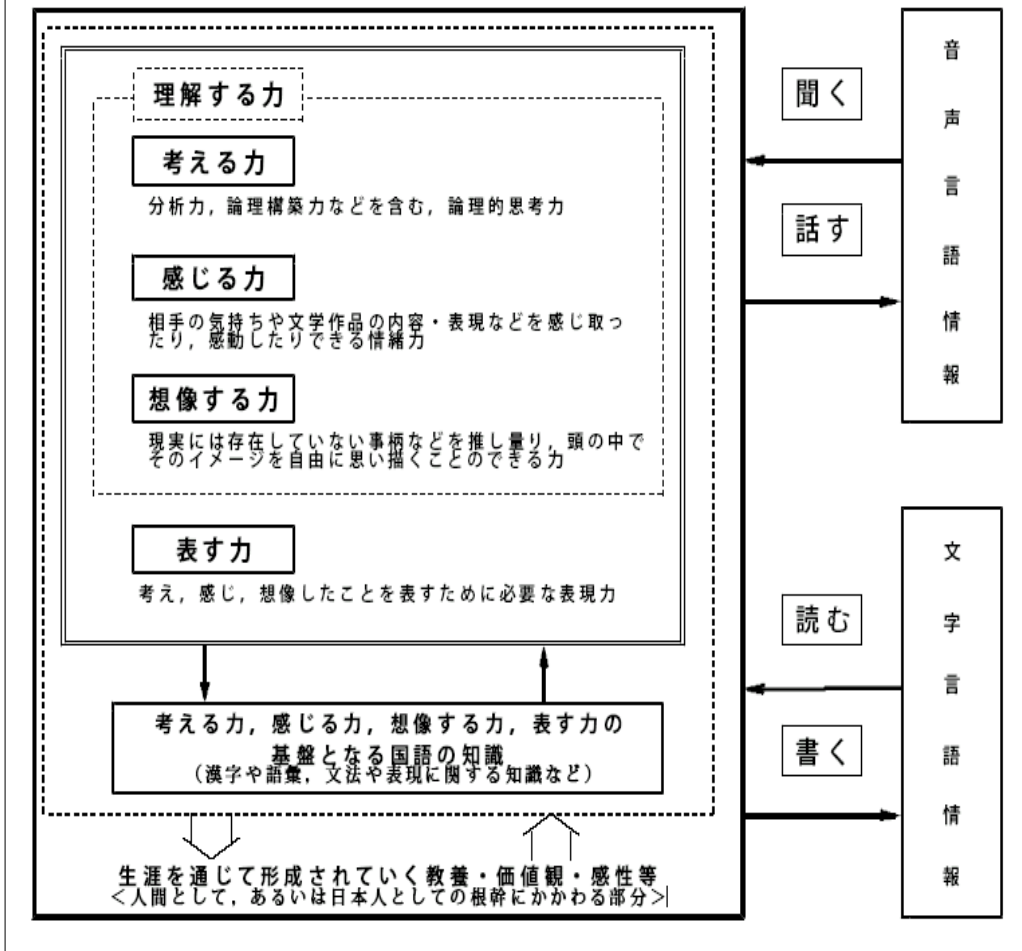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okugo_sisaku.html 또한 다음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新「ことば」シリーズ 1, 解説編「国際化と日本語」(平成6年度)

新「ことば」シリーズ 9, 解説編「情報化時代の言語能力」(平成10年度)

これからの時代に求められる國語力について(平成 16년 2004년 2월 3일), 文化廳 文化審議會答申 자료(http://www.mext.go.jp/b_menu/shingi/bunka/toushin/04020301/015.pdf) 참고.

＜参考＞ これからの時代に求められる「国語力」の構造（モデル図）



일본에서는 문법을 국어지식이라 하며 국어능력의 기초로 보는 점, 國語力은 個人차가 크다는 점, 평생 발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어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I. 기본 인식

- ① 국어교육과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 ② 언어 신뢰를 육성해야 한다.
- ③ 정서력, 논리적 사고력, 어휘력 육성을 해야 한다.
- ④ 스스로 국어능력을 키우는 아동을 육성해야 한다.
- ⑤ 발달 단계에 따른 국어교육을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ㄱ) 3세까지 유아기: 커뮤니케이션 重視期 - 말하기, 듣기 중심, 가정언어
 - (ㄴ) 3-11,12세(소학교 고학년 정도): 基礎期 - 읽기, 쓰기 중심, 어휘력

(ㄷ) 13세(중학생) 이상: 發展期 - 정서력, 상상력, 논리적 사고력, 어휘력 종합 학교, 가정, 사회의 구체적, 중점 처방은 다음과 같다.

Ⅱ. 학교 국어교육

(1) 기본 인식

- ① 국어교육을 학교교육의 중핵으로 둔다.
- ②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조합하여 지도한다.

(2) 국어과교육의 처방

- ① 정서력, 논리적 사고력, 어휘력을 육성한다.
- ② 교과내용을 명확히 한다.
- ③ 지도 중점은 독서, 작문에 둔다.
- ④ 연극 수업을 도입 강화한다.
- ⑤ 音讀(낭독), 暗唱(암송)과 고전을 중시한다.
- ⑥ 한자 지도를 강화한다.

(3) 국어과와 타 교과와의 관계

- ① 국어과 이외에서도 국어력을 육성한다
- ② 타 교과와의 연대(관련 학습 강화), 교원의 국어력 향상을 도모한다.

Ⅲ. 가정, 사회의 국어교육

(1) 기본 인식

- ① 국어력 향상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중시한다.
- ② 가정과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

(2) 가정과 사회의 연합

- ① 가정 내 언어능력을 기른다.
- ② 지역사회 국어교육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老少 낭독회 등)
- ③ 매스컴의 영향을 활용한다.

(ㄱ) 가정이나 지역에서 “読み聞かせ(읽어주기) 등을 지원한다.

가정뿐만 아니라 각종 동아리, 공공 도서관 등에서 “읽어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ㄴ) 학교 주 5일제의 토요일 등을 독서활동 추진에 활용한다.

독서를 국어과라는 한 교과 속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다루도록 명확히 위계화 해야 한다. “아침 10분간 독서”를 교사 지도하에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국어력을 개인차가 크다는 점, 평생 발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어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데 주로 가정과 학교가 독서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하야시 히로시(林公)라는 교사는 10분간의 ‘아침독서’(朝の読書) 운동을 하여 학생

들과 학교를 변화시킨 것으로 유명한데 그 책도 발행하여³⁾ 전국적으로 퍼졌다.

4.4. 中國

중국에서는 ‘국어’를 ‘어문(語文)’이라고 한다. 1920년대에 ‘國語’ 또는 ‘國文’이라고 하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 입말과 글말을 가르치는 도구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어문’으로 규정하였다. ‘語’는 입말이고 ‘文’은 글말이다.

제1 학단(1-2학년)

1. 읽기를 좋아하게 하고 읽기의 재미를 알게 한다.
2. 표준어로 본문을 정확하고 유창하며 감정을 실어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배운다.
7. 유아 시, 동요와 간단한 옛 시(古詩)를 읽고 연상의 나래를 펴고 초보적인 정감 체험을 하며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9. 자신이 좋아하는 성구, 격언, 관용구 등을 누적한다. 우수한 시문 50편을 암송한다.
과외 독서 분량이 5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10. 도서를 사랑하고 애호해야 한다.

제2 학단(3-4학년)

9. 우수한 시문을 읽는 과정에 정감을 체득하는데 유의한다. 우수한 시문 50편을 암송한다.
10. 독서를 하고 신문을 보는 습관을 기르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동학들과 도서 자료를 공유한다. 과외 독서량이 40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제3 학단(5,6학년)

10. 우수한 시문을 읽고 시문의 성조, 리듬 등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정감을 체득한다.
우수한 시문 60편을 암송한다.
11. 도서관, 인터넷 등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탐구성 읽기를 시도한다. 자기의 독서범위를 넓히고 과외 독서는 100만자 이상으로 한다.

3)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가 전국 48500여 초·중·고교 중에서 1만8천여 학교에 이른다. 이 운동이 한국에도 상륙하여 실천하는 학교가 많은데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 운동이 말하는 아침독서의 4원칙은 “모두가 한다, 매일 한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에만 집중해 한다”는 것으로 이 운동의 결과 첫째, 아침독서로 인하여 오랫동안 학교에서 사라졌던 정숙과 집중이 살아났다. 둘째, 정숙과 집중이 아이들의 다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침독서가 시작되고 나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는 아이들도 있다. 셋째, 책을 읽을 수 없던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책을 읽게 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였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제4 학단(7-9학년)

12. 알기 쉬운 문언문을 읽고 주해와 사전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시문 80편을 암송한다.
15. 독서 계획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글을 광범위하게 읽고 과외 독서량이 260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매 학년마다 2~3편의 명작을 읽는다.

4.5. 유럽 聯合(EU)

27개 會員國, 23개 公用語가 쓰이는 EU는 通譯費, 翻譯費 과다로 언어문제가 복잡하지만 英語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母語 + 2 외국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는 26개 연방으로 되어 독일, 불어, 이탈리아, 스위스로망어가 공용어로 쓰이므로 고교 졸업 후에는 3,4개 언어가 가능하다.

5. 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국어교육

5.1. 國語를 잘하려면 국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어려서부터 국어에 대한 민감성 곧 국어 의식(consciousness), 국어 정신을 높이는 태도 교육이 필요하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개인의 생명이며 영혼의 결정체로 개인, 가정,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자각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할 말은 하면서도 말을 신중히 하는 국어사용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의 왜곡, 선동, 과장을 분별해 내는 사실적,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도 국어 의식의 결과로 형성되어야 한다. 언어예절, 국어순화의 태도 등도 이런 국어 의식의 함양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국어의 역사에서는 국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음의 교육 내용이 유용하다.

- (1) 훈민정음 御製序文: 한민족 최고 명문으로 자주, 애민, 실용의 3대 정신을 보여 준다
- (2) 周時經 선생(1876-1914)의 국어사랑 나라사랑: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에 바친 일생은 좋은 귀감이 된다.
- (3) 조선어학회 정신: 우리말과 글을 빼앗겨 수난받을 때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어문 규범을 연구 제정하고 국어를 지키다 모진 고문으로 고초를 겪은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국어 수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5.2. 國語를 잘해야 外國語를 잘한다

한국인이 세계화하고 동아시아를 제어하려면 ‘한국어(한글+한자 두 날개) + 영어 + 중국어/일본어’ 소통 능력 갖추어야 한다. 한중일 경제 공동체를 예상한다면 스위스 고교생이 3,4개 언어 구사함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외국어 사용이 증대할수록 母語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先進國型 移民과 後進國型 難民의 경우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언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다언어사회로 이행되는 현상을 낳게 되며 개인으로서의 모어 외에 제2, 제3의 언어를 학습하며 생존하게 되어 다중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어 공동체가 다문화공동체로 이행 중에 있고 개인은 다중언어능력을 갖추어야 생존이 가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전자를 多言語主義(多文化主義, multiculturalism)라고 한다면 후자는 多重言語主義(multilingualism)가 된다.

한국 사회도 남한 5천만(남북 7300만) 單一民族社會였는데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 생겨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120만 외국인이 와서 사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변화와 함께 급속한 言語疏通 방식의 혁명도 일어나고 있다. 映像媒體의 발달, 전자 疏通器機의 혁명적 변화로 農耕社會, 遊牧社會에서처럼 家庭言語를 기반으로 한 제1언어만으로 소통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해 1-3개 外國語를 능통하게 구사할 것을 필요로 하게 되어 외국어교육이 더욱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의 중요성이 커 갈수록 자신의 모어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고 갖추어져야 한다. 언어학자들은 모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어를 잘할수록 외국어도 잘하며 외국어를 잘할수록 인지능력, 사고력, 학습 능력이 발달한다고 한다. 고급 외국어를 구사하려면 모어를 고급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은 한국인이 너무 많다.

5.3. 國語를 잘하려면 語彙力을 길러야 한다

국어 잘하려고 어휘력을 풍부히 한다는 것은 고유어뿐 아니라 漢字語로 된 學問語(academic vocabulary, 개념어, 전문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학문어 잘 알려면 한자를 아는 것이 유리하다. 궁극적으로 한글문화 꽃 피워 한글전용 잘하려면 한자교육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학문어의 99%가 한자어인데 한자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휘 학습 특히 한자어 학습은 암호 학습이 되어 버렸다. ‘경연(經筵/競演), 진통(陣痛/鎭痛)’와 같은 동음이의어를 헛갈리고, ‘결재(決裁)/결제(決濟), 물의(物議)/무리(無理)’ 같은 유사어를 헛갈린다. ‘糖尿病’을 “똥똥하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수평선(水平線)/수직선(垂直線)’의 ‘수-’가 같은 줄 알며, ‘서정시(抒情詩)/서사시(敘事詩)’의 ‘서-’를 같은 줄 착각한다.

5.4. 國語를 잘하려면 文法 意識과 知識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에게 필요한 문법 능력은 자식의 국어 질문(단어 뜻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가 정확한 단어인지, 어법이 맞는지, 訓民正音 원리, 주요 국어 역사, 국어 인물, 국어 사건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국어 분석 능력(품사, 성분 용어): 국어 문법 용어로 문장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올바른 표현에 대한 국어 意識 高揚(awareness raising): 국어에 대한 敏感性
- 외국어 학습 대조 문법용의 최소한의 자국어 문법 지식
- 국어 규범 이해와 실용(맞춤법)
- 표준어 구사 능력
- 외래어에 대한 태도 형성(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국어사랑, 국어순화)
- 국어사전 활용 능력
- 국어예절(표준화법)
- 국어의 역사 이해: 훈민정음 등
- 국어 운동사, 사건사, 인물사 이해(세종, 주시경, 조선어학회 사건 등)

5.5. 國語能力의 출발은 讀書能力이다.

국어능력의 기본은 독서능력에서 출발한다. 문법지식은 이를 돕는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독서능력을 키워야 작문도 잘한다.

(1) 2010년 문화관광체육부,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① 독서율: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1년에 일반도서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65.4%로, 지난 2007년 이래 독서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한편, 비독서자를 포함한 연

평균 독서량은 10.8권으로 전년도(10.9권)와 비슷한 수준임.

. 전년 대비 성인 독서율 하락(-6.3% 포인트)은 응답자 특성별로 30.40대(각각 -10%P),

생산·판매직(평균 -17.3%P) 및 자영업(-11.0%P), 저소득층(월소득 100~200만원, -21.5%P)의 독서율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다만, 직업별 전년 대비 연평균 독서율 변화는 생산·판매/자영업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크게 감소한 반면 관리직/전 문직/사무직 종사자(-3.8%P), 대학생(+0.3%P), 전업주부(+5.1%P), 은퇴/무직(+1.5%P)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증가한 경우도 있어 직업별 편차가 존재함.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율(만15세 이상) 67%는 유럽(EU 27개국) 평균(71%)보다 약간 저조

② 독서량: 한국인의 월평균 독서량(성인 1.3권, 초·중·고 6.4권)은 일본인(성인 1.4권 등)과 비슷한 수준

③ 시간 부족 및 독서습관 미흡이 독서 장애 요인

. 평소 ‘책 읽기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성인들은 17.4%에 불과하며, 과반수 이상(55.7%)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로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음. 성인들의 독서 장애 요인 역시 ‘일이 바빠서’(41.3%)가 가장 주된 이유이나 두 번째는 ‘독서습관 미형성’(25.8%)인 것으로 나타남.

④ 전자책의 이용 확산 추세

.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등 디지털 매체의 확산에 따라 ‘종이책’ 위주의 독서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 전자책(e-book) 이용 경험률은 성인 11.2%, 학생 43.5%로 학생층을 중심으로 전자책 이용이 대폭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아직까지는 ‘스마트폰/태블릿PC’보다는 일반적인 ‘컴퓨터(데스크톱 컴퓨터)’ 위주로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경로는 주로 ‘포털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남. 성인들은 ‘문학도서’(33.9%), ‘실용도서’(30.4%),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문학도서’(50.1%)와 ‘만화’(43.4%), 초등학생은 ‘어린이소설’(47.1%), ‘학습용 만화’(39.0%), ‘오락용 만화’(38.1%)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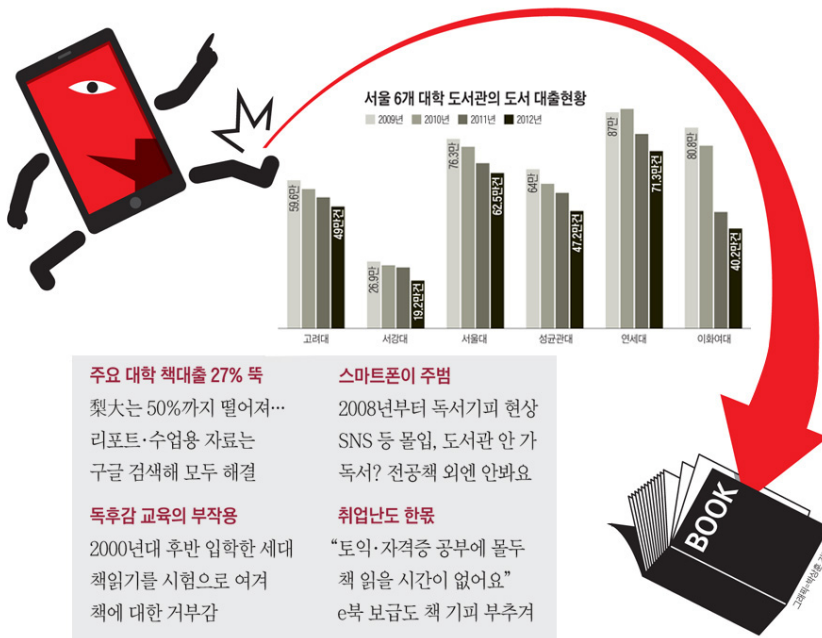
③ 독서시간

성인 독서인구의 독서시간은 증가, 학생은 감소 (초등학생은 증가, 중·고등학생은 감소)

- 비독서자를 포함한 성인 전체의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31분, 주말 32분으로 지난 '09년 (평일 28분, 주말 29분) 대비 소폭 증가함. 이는 독서자들의 독서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평일 40분 → 50분, 주말 44분 → 53분).

- 학생들의 평일 독서시간은 41분(초등학생 57분, 중학생 36분, 고등학생 30분), 주말 48분(초등학생 65분, 중학생 43분, 고등학생 36분)으로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평일/주말 독서시간이 소폭 감소함.

[대학생 도서 대출 경향] 대학생들 '폰'은 가깝고 책은 멀다(조선일보 2013-2-4)⁴⁾



- 주요 대학 책대출 27% 뚝: 梨大는 50%까지 떨어져... 리포트·수업용 자료는 구글 검색해 모두 해결. 독서? 전공책 외엔 안봐요
- 스마트폰이 주범: 2008년부터 독서기피 현상... SNS 등 몰입, 도서관 안 가
- 독후감 교육의 부작용: 2000년대 후반 입학한 세대... 책임기를 시험으로 여겨 책에 대한 거부감.
- 취업난도 한몫: “토익·자격증 공부에 몰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 e북 보급도 책 기피 부추겨

전통적으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집단이었던 대학생들의 독서 기피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6개 대학(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도서관의 도서 대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출 건수는 최근 3~4년 새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대출 건수도 17.9% 감소했다. 이화여대는 2009

4)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생 독서 기피의 외부요인이 스마트폰이라면 내부요인은 독서교육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교생 시절 잘못된 독서교육을 받아 책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 당국은 '사·도 교육청 독서지도 매뉴얼'을 발간해 학생들에게 선정도서를 중심으로 독후감을 쓰도록 하는 등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07년 고교 과정부터 독서 포트폴리오 제도를 본격 도입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독서활동사항을 기록하도록 했다. 서울대 국문과 방민호 교수는 “독서교육이 강화되고 입시제도에 논술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깊은 독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읽으면서 사색을 해야 하는데 시험 준비용으로 삼으니 진정한 독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서를 교육과정에 넣은 것은 옳았으나, 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며 중고생들에게 책을 심리적 혐오 대상으로 만들었다. 점수화된 독서교육을 받은 세대가 대학에 와 스마트폰·아이패드를 익숙하게 다루게 되면서 더욱 독서를 기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이상 조선일보 2013-2-4 기사 인용).

년 80만8764건에서 2012년 40만2439건으로 도서 대출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사고력이 약화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력은 독서량으로도 측정한다. 독서량이 많으면 그 나라는 장래가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은 1위라고 하지만 인터넷 발전이 ‘지식의 단편화’를 부추겨서 ‘사색을 요하는 독서’를 저해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이런 병리 현상을 보여 준다.

(2) 읽기 교육의 중요성

- 언어, 읽기를 통해 다른 과목을 배운다.
- 4 기능은 신체와 함께 기른다. 눈은 읽기, 귀는 듣기, 입은 말하기, 손은 쓰기.
- 듣기, 말하기는 타고 태어난다(장애인 제외). 읽고 쓰기는 후천적이다.
- 듣기, 말하기가 선천적이지만 후천적 교육 발달 과정이 필요하다.
- 읽고 쓰기는 후천적이나 선천적 지능, 능력에 좌우되며 훈련 필요하다.
-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은 사고력이 있음을 뜻한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민족은 독서력이 낮고 게으르고 미개하다. 읽을수록 사고력이 발달한다.
- 운동이 신체를 자라게 하듯 독서는 마음을 자라게 한다.
-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책 읽으면 결정적 영향 받는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좋은 책과의 만남처럼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없다.

(3) 학교 독서교육의 방향

- 학생들이 좋은 책을 바르게 선택하여 능률적인 방법으로 읽게 한다.
- 저학년(1학년) 아동기의 독서 습관이 학습과 진로에 절대적이므로 저학년 지도부터 철저히 한다.
- 독서에 흥미를 갖고 독서 행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독서 심리를 자극하고 독서 환경을 조성한다.
-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동안 독서 생활화 도와준다.
- 초현실적 반복 이야기(2세~6세) - 옛날 이야기(4세~6세) - 寓話期(6세~8세) - 童話期(8세~10세) - 이야기기(10세~12세) - 傳記期(12세~14세) - 文學期(14세~) - 思索期(17세~)

(4)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의 조성

- 독서교육에 대한 교사, 부모, 학생들의 인식 대전환 필요
- 가정 독서 문화 수립: TV보다 독서(읽어주기, 같이 읽기, 홀로 읽기)
아동이 흥미 느끼는 독서로 유도하라. 책 읽는 모습을 보여라.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 줘라. 어린아이에게는 큰소리로 읽어 주라. 독서를 한 뒤 줄거리를 쓰게 하지 마라. 다독보다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게 하라(3회 읽을 가치 있는 책으로 하라).

- 책의 내용을 토대로 대화 시간을 가져라. 개방형 질문을 하라(너라면?, 결말은?). 책 속의 장소로 가족여행을 떠나 보라.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라, 주인공이 그때 뭐라고 말했지?’ 퀴즈식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라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식으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톨스토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책을 끝까지 읽어 주지 않고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 재미있는 학교 독서 지도: 독서 통장, 독서 우체국, 10분 독서 등 지속적 실천지도. 요약, 퀴즈식 독후감 활동을 넘어 개방형, 창의적 질문 학습
- 학교 도서관 기능 강화: 하드웨어(공간 규모와 시설, 환경 등), 소프트웨어(장서와 운영 프로그램 등), 휴먼웨어(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서 교사나 담당 교사 등) 3 요소. 학교 도서관은 ‘독서 활동의 장, 학습 활동의 장, 자료제공의 장, 정보 제공의 장, 레크리에이션의 장’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 정보 문화 센터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체계적 독서 시간 제공: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이용한 독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하고, 독서의 방법과 원리 지속적 교육.

(5) 읽기 잘하기 환경 만들기

- 읽기 天性 만들기
- 공감대 형성하기(가족과 읽기, 부모의 읽어주기)
- 일상읽기 강화(가정에서 환경 조성. 신문 방송 매체언어 활용 등)
- 상호작용 읽기(주제 접근 피드백 읽기, 프롬프트 읽기(예/아니요 질문, Wh형 질문))
-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글의 표현이나 의미에 중점을 두면서 읽는 게 아니라 줄거리만 기억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창의성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오히려 부정적이다. 2학년(저학년)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通讀’이, 4학년(중학년)과 6학년(고학년)의 경우에는 ‘精讀’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다. 모든 학년에서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꼽힌 것이 ‘多讀’과 ‘拔萃讀’이다. 한 권이라도 아이가 집중해 즐겁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읽고 나서 아이의 독특한 발상을 격려하는 쪽으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한다. 결말 바꿔 쓰기, 뒷이야기 만들어가기 등 아이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도와야 한다[조미아,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6) 성공한 지도자의 공통점은 초등시절 좋은 책을 자주 접했다. 범죄자들은 초등시절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 방향이 결정된다.

첫째, 책 읽는 환경이 중요하다. 좋은 책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먼저 아이의

역할모델이 돼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독서의 생활화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자.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일은 스킨십만큼이나 아이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도 아이의 정서발달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TV·인터넷 등 영상매체를 최소화하자.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인터넷 등 다양한 영상매체에 노출돼 있어 책을 접할 기회를 잃고 있다. 영상매체 활용 시간은 주 1, 2회로 줄이고 좋은 프로그램은 부모가 먼저 살펴보고 아이와 함께 골라보는 것이 좋다.

넷째, 독서 육아에 아빠가 적극 참여하자. 주말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아빠들이 많은데 아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 함께 책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독서 육아가 된다.

독서교육은 특히,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행복한 아이를 원한다면 좋은 책을 선물하라. 밥처럼 꾸준히 책을 읽는 분위기가 아이를 달라지게 한다.

[부록]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어문 상식

1. 국어의 위상: 세계 6,000여 언어. 문자 400여 개. 실제 주요 문자는 30여 개.

2. 국어의 계통:

(1) 북방설: 알타이 어족설(핀란드 학자 람스테드) /古시베리아 어족설

(2) 남방설: 삼국유사 권2 駕洛國記 金首露王 왕비. 阿踰陀國 許黃玉 普州大妃

삼국유사 권3 塔像篇 金官城 婆娑石塔條 아유타국에서 실어온 수호 불상
김병모(1999, 김수로왕비의 혼인길, 푸른숲)(1998, 금관의 비밀 : 한국 고대사와 김씨의 원류를 찾아서, 푸른 역사)(1994, 김수로왕비 허황옥: 쌍어의 비밀, 조선일보)
수로왕릉 雙魚紋(인도 아오디아주 紋章), kara, kayal, kaye 魚

(3) 현대 한국어의 뿌리: 신라 삼국통일(민족사 최대 영웅, 김유신)

대한민국의 민족적, 역사적 뿌리를 멀리는 고조선에서부터 보지만 통일신라의 삼국통일이 한민족 통합과 통일 민족국가 성립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대한민국은 제2의 통일신라와 같은 존재이다. 북한은 고조선-고구려-김일성 조선(북조선)으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있는 것으로 역사 조작을 하였다.

金富軾이 ‘三國史記’ 列傳 10권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인물로 1-3권에 金庾信을 넣은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金庾信 列傳의 끝에는 “유신과 같은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여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이 점 사대부들이 알아야 한다. 추동목수(菟童

牧豎, 풀 베는 아이와 목동)까지도 능히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이 만드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다”라고 하여 金庾信이 소년들에게까지 영웅으로 회자되어 있음을 증언하고 있고 사대부들이야말로 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金庾信을 고대 민족사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을까? 삼국통일기에 對唐 통일전쟁을 벌여 당나라 군대를 내쫓고 통일 성업을 이룬 676년 장항 앞바다의 기벌포(伎伐浦) 전투와 金庾信을 우리의 교육은 잊고 있다. 당시 김유신의 통일신라군이 당나라 군대에 졌다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일개 군현으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4) 국어문화의 정체성 7 요소

- ① 言語 正體性, ② 民族 正體性, ③ 衣食住 생활 정체성, ④ 國民 意識 正體性(國民性), ⑤ 宗教 正體性, ⑥ 歷史 正體性, ⑦ 國家 正體性

4. 國語, 國文, 한글

[훈민정음]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御製 序文)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合字解)

· 一起]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當合二字而用 如기그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合字解)

[개화기] 六. 敎民才德文藝以治本

先敎人民以國史及國語國文事(不敎本國之歷史文章而但敎清國之歷史文章故人民以清爲本而重之至有不知自國之典故者此可謂捨本取末也)[박영효가 고종에게 건의한 ‘內政 改革에 대한 建白書’(1888)의 8개 조항 중 제6항]

[한글] 주시경(1876-1914), 최남선(1890-1957) 작명설이 있다.

5. 훈민정음론

(1)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 ① 성리학의 영향: 성리대전(1415),의 전래(1419). 홍무정운(1375)의 전래로 중국 음운학의 도입과 영향. 聲韻學 용어 활용. 해례본 본문에 성리대전 곳곳 인용.
- ② 인근 제민족의 문자에 대한 관심: 司譯院 설치(1394)
- ③ 한자 음訓借 표기법(이두, 구결, 향찰)의 불편

(2)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 ① 백성들에게 표기수단 제공(便民) ② 한자음 개혁(東國正韻) ③ 이두의 불편
- ④ 愛民정신 ⑤ 고유어 표기, 한자음 표기(注音符號)의 수단
- ⑥ 訓民敎化적 동기(殺父사건 - 三綱行實圖 1434 편찬, 한문본 - 한글본)
- ⑦ 元 世祖의 八思巴 문자 ⑧ 문자 없는 국가 체면
- ⑨ 불교적 동기(해례서문 54자-언해서문 108자, 석보상절 등 불경언해)

(3) 훈민정음의 창제 기원

① 象形說: 解例本⇒ 자음: 발음 기관 상형, 가획, 병서 + 모음: 三才 상형, 합용

ㄱ. 子音

| | 牙 | 舌 | 脣 | 齒 | 喉 | 半舌 | 半齒 |
|------------|-----|-----|-----|-----|-----|-----|-----|
| 전청(全淸) | ㄱ 君 | ㄷ 斗 | ㅂ 弊 | ㅈ 即 | ㅇ 挹 | | |
| 차청(次淸) | ㅋ 快 | ㅌ 吞 | ㅍ 漂 | ㅊ 侵 | ㅎ 虛 | | |
| 전탁(全濁) | ㄴ 蚪 | ㄸ 覃 | ㅃ 步 | ㅆ 慈 | ㅇ 洪 | | |
| 불청불탁(不淸不濁) | ㅇ 業 | ㄴ 那 | ㅁ 弥 | | ㅇ 欲 | ㄹ 閭 | ㄷ 穰 |
| 전청(全淸) | | | | ㅅ 戌 | | | |
| 전탁(全濁) | | | | ㅆ 邪 | | | |

| | 기본자 | 제자 원리 | 가획자 | 병서자 | |
|-----------|-----|---------|------|------|---|
| 엄소리(牙音) | ㄱ | 象舌根閉喉之形 | ㅋ | ㄴ | ㅇ |
| 혀소리(舌音) | ㄴ | 象舌附上齶之形 | ㄷ, ㅌ | ㄸ | ㄹ |
| 입시울소리(脣音) | ㅁ | 象口形 | ㅂ, ㅍ | ㅃ | |
| 니소리(齒音) | ㅅ | 象齒形 | ㅈ, ㅊ | ㅆ, ㅊ | ㅊ |
| 목소리(喉音) | ㅇ | 象喉形 | ㅎ, ㅎ | ㅇ | |

ㄴ. 母音

· → ㅏ ㅑ → ㅓ ㅕ → ㅗ ㅛ → ㅜ ㅠ

ㅡ → ㅒ ㅖ → ㅔ ㅙ → ㅚ ㅜ

② 고전(古篆) 기원설: 세종실록 권 102, 세종 25년(1443/4) 계해 12월 기록.

ㄱ.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 그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였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ㄴ. 解例本 정인지 서문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의 象形而字倣古篆 논쟁

ㄷ. 鄭樵(1104-1162)의 六書略(通志 卷34)에 나오는 ‘起一成文圖’

③ 몽고 八思巴 문자 기원설: 李瀾(星湖僊說), 柳僖(諺文誌)

④ 梵字 기원설: 成俔(慵齋叢話)

⑤ 窓戶 상형설: P.A.Eckardt 신부

(4) 훈민정음의 특성

- ① 창제자, 창제 기록, 창제 연대 분명하다.
- ② 과학성, 체계성, 경제성, 실용성(애민정신)
- ③ 한글 운용 원리: 음소문자이면서 음절문자로 사용.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장점 활용

(5) 창제의 주체: 세종 친제설.[이기문(1992), 훈민정음 친제론, 한국문화 13]

세종(1397-11450, 재위 1419-1450)은 조선초에 국가의 기초를 든든히 한 성군이다. 성운학에 능통하고, 집현전을 설치해 학문 진작에 힘썼고, 농업서, 역사서 등 서적 출판, 활자 구조, 음악 정리, 제도 개혁 등의 내치뿐만 아니라 북진 개척, 對明 외교 등에서 외치에도 힘썼다. 그는 1415년에 나온 ‘性理大典’을 구입해 직접 읽고 1418년에 발간, 신하들에게 배포해 유행케 한 유학자이지만 소현왕후를 잃고는 신하들과 충돌하면서도 불교 신앙에 심취한 불자였고 풍수설로 경복궁 거주를 꺼리고 왕자, 형제의 집을 전전하다가 승하한 풍수설 신봉자여서 그의 사상의 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그동안 한글 창제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문제에 대해 ‘용재총화’의 기록처럼 세종이 신숙주 등에게 명해 만들었다는 〈命制說〉, 주시경의 주장처럼 신하들의 협력으로 만들었다는 〈協贊說〉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견해는 결국 세종의 非친제설을 가리키는데 이는 세종 당시 기록들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막연하고도 잘못된 주장이다. 세종 당시의 다음 기록들은 분명히 세종의 친제를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ㄱ.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세종실록25년 12월 끝 기사)라고 ‘親制’를 명시하고 있다.
- ㄴ.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낸 성인으로 제도를 베풀어 백왕을 초월하고 정음을 지으심도 선인의 가르침을 받은 것 없이 자연에서 이루신 것이라’(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 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라고 세종의 공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 ㄷ. 世宗 御製 서문에도 ‘내 이를 위해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予爲此憫然…)라고 세종 자신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
- ㄹ. 세종의 문자 제정의 사명감과 열정이 최만리 반대상소에 대한 반박에서 드러난다. 세종은 최만리에게 ‘그대들의 군상이 한 일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일이 무엇때문이나……내가 운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한단말이냐(而非其君上之事 何哉……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라고 반박한다.
- ㅁ. 세종은 학문적으로 好學者여서 직접 性理學을 토대로 한 중국의 聲韻學을 연구하였다. ‘성리대전’을 읽고 발간, 배포한데서 알 수 있다.
- ㅂ. 세종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의 두 문헌은 세종이 개인적으로 선호한 표의주의 맞춤법(예: 꽃, 높고, 빛나)을 보여주지만 다른 불경서

들은 8종성법에 따라 소리대로 적은 표음주의 표기(예: 곶, 늣고, 빗나)를 보여 세종 개인의 표기의식이 남달랐음을 보여 주며 이는 세종 개인의 언어 표기의식이 강력하고 이론적이었음을 반영한다. 세종은 이미 기본형을 밝혀 적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6) 崔萬理 등 7인 원로들의 6개 항목 甲子 上疏(1444. 음 2. 20)

崔萬理(?-1445): 최고 清白吏, 충신, 集賢殿 副提學으로 책임자. 역적으로 봄은 잘못. 자주적 事大 노선과 외세의존적 事大主義는 구별해야 한다. 당시 사대 노선은 국가 이념.

서문: 정음 창제 신묘 칭송, 상소 이유(정음 창제에 대한 의문점) 명시와 성재(聖裁) 간구

1항: 문화 및 문자 사대주의 전통 확인(중국과 글 및 법도 동일 확인). 정음 창제 및 한자음 개혁으로 국가 노선 훼손 및 중국과 불화 우려, 고전 기원설 의심

2항: 문화 사대주의(소중화) 강조. 문자 창제는 오랑캐 夷狄의 일. 오랑캐와 조선의 차별성과 사대 모화의 당위성 강조, 문자 창제는 중국 포기 노선 간주

3항: 이두 효용 주장과 언문 불필요론, 정음 시행 후의 공직 혼란 및 한문 보급 쇠퇴와 문화 쇠락 우려, 한자 기원설 부정(한자 무관 단정)

4항: 언문일치/불일치 문제와 법치를 위한 문자 용도론의 한계 설파

5항: 어문 정책의 중요성과 세종의 독단적 어문정책, 특히 한자음 개혁의 비판

6항: 동궁의 정음 사업 관여 우려

6. 개화기 국어와 국문의 자각

① 1886년 민간 사학 ‘배재학당, 이화학당’. 관립학교 ‘育英公院’ 교사 힐버트의 순한 글체 지리 교과서 ‘스민필지’(土民必知, 1889경).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 개화기 혼용체)

② 성경 번역: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로스, 1882).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李樹廷, 1885). 최초의 신약 성서: 예수성교전서(존 로스 목사, 1887)

언더우드/아펜젤러 ‘성서번역자회’: 신약전서(1900), 구약전서(1910), ‘성경전서’(1911) <성서 문체의 변천>

[로스87] 들에밧팀레를베풀고회기의밧팀레를던혀여씨죄를샤게하느요안닐으니

[이수정85] 約翰요한네쓰가드을에서洗禮밧테슈마를베푸리뉘웃쳐곳치는洗禮밧테슈마를傳전하야하여금罪죄의赦사함을얻게하니

[언더우드87] 요한이들에서세레를베푸리뉘웃쳐곳치는세레를전하야하여금죄샤함을얻게하니

[1900] 뵤 들에서 세레 주는 요한이 와서 뉘웃쳐 곳치는 세레를 전파하매 이는 죄 샤함을 얻게 함이니

[1911] 요한이 니르러 광야에서 세례를 줄식 회기하는 세례를 전파하야 죄 사함을 얻게 하니

[1938] 세례요한이 니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1952]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1998]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 개화기의 국어 운동사/인물사

(1) 徐載弼(1864-1951) 송재(松齋)·쌍경(雙慶),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

갑신정변 실패로 탈출 도미. 최초의 의학박사. 10년 후 갑오경장으로 1895년 귀국 후 순한글체 ‘독립신문’ 발간.

(2) 李承晚(1875-1965) 우남(雲南)

양녕대군 후손. 漢學 수학(漢詩에 능함). 배재학당 졸업. 영어를 1학년 때 익혀 재학 때 영어 가르치고 졸업연설을 영어로 함(조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였다는 평). 고종에게 내정 개혁 요구한 최초의 국민 궐기대회인 만민공동회 주동(최초의 학생 운동 민중 계몽가). 만민공동회 직후 반역죄로 사형수가 됨. 23세부터 6년간 투옥. 그의 재주를 아껴 감형됨(감옥에서 죄수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영한사전 집필).

1904년 29세 특사(特赦) 출옥 후 남대문 尙洞교회 부설 상동학교 교장. 고종 밀사로 도미. 일본 침탈에서 조선 독립 요청. 그러나 약소국 외교 한계 느끼고 서구 학문 익히고자 1905년부터 5년반 동안 조지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 석, 박사 마침. 1910년 10월 귀국 후 YMCA 활동. 105인 사건으로 하와이로 도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시작.

1919년 3.1 운동 직후 상해 임정 초대 총리, 초대 대통령. 1945년 10월 귀국. 건국, 2,3대 대통령. 동서양의 학문을 겸비한 이승만은 건국 후 어문정책의 기본을 한글전용 정책으로 추진하였다.⁵⁾ 그러나 한자, 한문 교육은 현존시켜 국한 혼용을 현실적으로 지속했으며 과격성을 띠지 않았다. 반면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문자 개혁을 혁명 도구로 삼아 북한 김일성은 한자 폐지 정책으로 문화를 말살하고 우민화 정책과 역사 조작을 시작하여 북한 독재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3) 周時經(1876-1914) 한힌샘

독립신문사의 맞춤법 연구 모임인 국문동식회 활동, 정부 내에 설치한 국문연구소(1907) 위원. 상동학교 부설 조선어강습원 강습. <국어문전음학><국어문법><말의 소리>

國文同式會(1896.5) - 국어연구학회(1908.8.31. 주시경 등) - 배달말글모음(1911.9.3.) - 한글모(1913.3.23.) - 조선어연구회(1921.12) - 조선어학회로 개명(1931.1.10.) - 한글학회 개명(1949.9.25)

5) 법률 6호(한글전용법, 1948. 10. 9):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 2005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

(4)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1942)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업적: 한글날 제정(1926),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1933), 표준말 사전(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1940), 큰사전 편찬(1957), 우리말 다듬기(1967), 한국 지명 총람 편찬(1986), 한국 땅이름 큰사전 편찬(1991), 우리말 큰사전 편찬(1991) 등.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개요: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해 〈큰사전〉의 편찬을 시도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발기인 108명 모두가 민족주의 사상을 지녔다고 판단한 일제는 이들을 강제해산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회원들은 사전출판을 서둘러 1942년 4월 그 일부를 대동출판사에 넘겨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때 일제는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함흥학생사건을 꾸몄다.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태극기를 그리며 '우리나라 국기'라고 속삭이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취조받게 되었는데,⁶⁾ 취조 결과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을 맡고 있는 丁泰鎭이 관련되었음을 알았다. 같은 해 9월 5일 정태진이 검거되어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짓자백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2년 10월 1일 이중화·장지영·최현배·이극로·한징·이운재·이희승·정인승·김윤경·권승욱·이석린 등 핵심인물 11명이 검거되어 함경남도 홍원으로 압송된 뒤,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어 고문을 당했다. 사건을 취조한 홍원경찰서에서는 33명 모두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기소했다.

이들 중 16명은 기소, 12명은 기소유예 되었으며 기소자는 예심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운재가 1943년 12월 8일에, 1944년 2월 22일에는 한징이 옥중에서 사망하고, 장지영·정열모 두 사람이 공소 소멸로 석방되어 공판에 넘어간 사람은 12명이었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판소에서는李克魯 징역 6년, 崔鉉培 징역 4년, 李熙昇 징역 2년 6개월, 鄭寅承·丁泰鎭 징역 2년, 김법린·이중화·이우식·김양수·김도연·이인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현식 무죄 등의 판결을 내렸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1945년 해방을 계기로 풀려났으며,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강제로 해산당했다가 해방 후 조직을 정비한 뒤 1949년 9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韓澄(1887-1944.2.22), 李允宰(桓山 한메 1888-1943.12.8) 선생은 모진 고문으로 獄中 殉國하였다[참고: 새국어생활 1998년 가을호 '石人(쇠돌) 丁泰鎭(1903-1952) 선생 특집호']

6)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다른 주장도 보인다.

이용호 글: 영생여고생 조선어 사용 트집. 박영희 여학생 일기장 사건(일어 사용 야단친 교사로 정태진 선생 지목 철폐)

아들 정해동 증언: 일본 유학생 박병엽이 검문에 조선어로 대답, 시비. 가택 수색, 조카 박영희 일기장에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를 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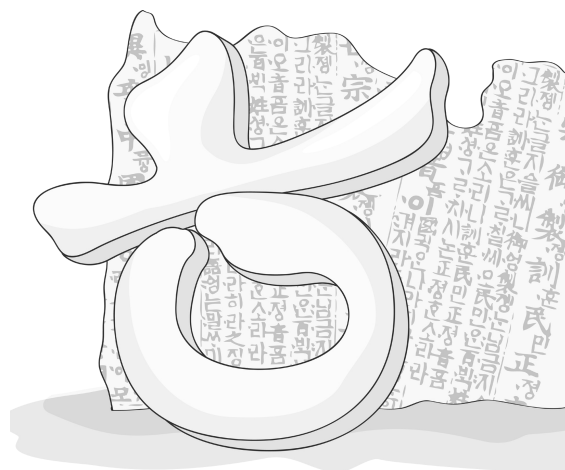
외솔 崔鉉培(1894-1970) 조선어강습원, 히로시마고등사범, 교토대 문학부(교육학) 졸.
연희전문 교수, 군정청 편수과장, 연세대 교수. 한글학회 이사장.

一石 李熙昇(1896-1989) 중앙고보, 경성제대, 이화여전, 서울대 교수.

石人 丁泰鎭(1903-1952) 경성고보, 연희전문, Wooster대, 컬럼비아대 석사, 영생여고
교사.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정 호 성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여기에 실린 한글 맞춤법 해설은 ‘문교부(1988) 편수 자료 Ⅱ-4: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로마자 표기법(표기 용례),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의 일부를 다듬은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해설 ·

| | |
|--------------------------------------|-----|
| 제1장 총 칙 | 38 |
| 제2장 지 모 | 39 |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40 |
| 제1절 된소리 | 40 |
| 제2절 구개음화 | 42 |
| 제3절 ‘ㄷ’ 소리 받침 | 43 |
| 제4절 모 음 | 43 |
| 제5절 두음 법칙 | 45 |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50 |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51 |
| 제1절 체언과 조사 | 51 |
| 제2절 어간과 어미 | 52 |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61 |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71 |
| 제5절 준 말 | 78 |
| 제5장 띄어쓰기 | 86 |
| 제1절 조 사 | 86 |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 86 |
| 제3절 보조 용언 | 91 |
|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93 |
| 제6장 그 밖의 것 | 96 |
| 부 록 문장부호 | 112 |

제1장 중 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맞춤법이란 주로 음소 문자(音素文字)에 의한 표기 방식을 이른다. 한글은 표음 문자(表音文字)이며 음소 문자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예컨대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따위는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花]’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 (1) [꼬츠] - (꽃이)[꼬치] (꽃을)[꼬츨]
- (꽃에)[꼬체]
- (2) [꼰] -- (꽃나무)[꼰나무] (꽃놀이)[꼰노리]
- (꽃망울)[꼰망울]
- (3) [꼰] -- (꽃과)[꼰과] (꽃다발)[꼰따발]
- (꽃밭)[꼰뻘]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어법(語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이다. 형태소는 단어의 기초 단위가 되는 요소인 실질 형태소(實質形態素)와 접사(接辭)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인 형식 형태소(形式形態素)로 나뉜다.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늡고)[늡꼬] (늡지)[늡찌] (늡는)[늡는]

처럼 발음되는 단어를 ‘늡-’으로 쓰는 것은, (늡어) [늡거], (늡은) [늡근]을 통하여 실질 형태소(어간)의 본모양이 ‘늡-’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모든 언어 형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變異形態)를 인정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막 - 하/멕 - 허 소 - 가/말 - 히

따위와 같이, 음운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한 가지 형태로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예컨대 ‘국어(國語) 〈나라+말〉, 남아(男兒) 〈남자+아이〉’처럼 결합한 글자가 각기 독립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각 글자의 음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範疇)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依存形態素)이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해설 외래어 표기도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표기에서는 각 언어가 지닌 특질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로 정하고(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그 규정에 따라 적도록 한 것이다.

제2장 자 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 |
|-------|-------|-------|-------|
| ㄱ(기역) | ㄴ(니은) | ㄷ(디귄) | ㄹ(리을) |
| ㅁ(미음) | ㅂ(비읍) | ㅅ(시옷) | ㅇ(이응) |
| ㅈ(지읒) | ㅊ(치읓) | ㅋ(키읔) | ㅌ(티읕) |
| ㅍ(피읖) | ㅎ(히읇) | | |
| ㅏ(야) | ㅑ(야) | ㅓ(어) | ㅕ(여) |
| ㅗ(오) | ㅛ(요) | ㅜ(우) | ㅠ(유) |
| ㅡ(으) | ㅣ(이) | | |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 | |
|--------|--------|---------|---------|---------|
| ㅄ(쌍지읒) | ㅆ(쌍디귄) | ㅅㅅ(쌍비읍) | ㅅㅈ(쌍시읏) | ㅅㅊ(쌍치읓) |
| ㅈㅈ(예) | ㅈㅊ(예) | ㅊㅊ(예) | ㅊㅌ(예) | |

나(와) 내(와) 이(외) 너(위)
 제(위) 기(위) 이(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ㅍ ㅎ

[illegible]

해설 한글 자모(字母)의 수와 차례 및 이름은 통일안(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글자 이름에서, ‘ㄱ, ㄷ, ㅅ’도 나머지 글자의 경우처럼 ‘기역, 다음, 시옷’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는 것이 오랜 관용(慣用)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용대로 ‘기역, 다음, 시옷’으로 하였다.

[붙임 1] 한글 자모 24자만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들을 적기 위하여, 두 개 자모를 어우른 글자인 ‘ㄲ, ㅌ, ㅍ, ㅆ, ㅈ’, ‘ㅋ, ㆁ, ㄷ, ㄹ, ㄴ’와, 세 개 자모를 어우른 글자인 ‘ㄳ, 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차례를 정했는데, 글자(특히 겹글자)의 차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편찬자가 임의로 배열하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ㄊ ㄊㄧ ㄊㄨ ㄌ ㄌㄨ ㄌㄜ ㄘ ㄘㄧ ㄘㄨ ㄘㄨㄣ ㄘㄨㄟ ㄘㄨㄟ ㄘㄨㄟ

ㄜ ㄛ ㄝ ㄞ ㄟ ㄠ ㄡ ㄢ ㄣ ㄤ ㄨ ㄩ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 | | | |
|-----|------|------|------|-----|
| 소쩍새 | 어깨 | 오빠 | 으뜸 | 아끼다 |
| 기쁘다 | 깨끗하다 | 어떠하다 | 해쓷하다 | 가끔 |
| 거꾸로 | 부쩍 | 어찌 | 이따금 | |

- ## 2.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신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짚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 | | | |
|----|-----|----|----|---------|
| 국수 | 깍두기 | 딱지 | 색시 | 썩둑(~썩둑) |
| 법석 | 갑자기 | 몹시 | | |

해설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 안’은 하나의 형태소 내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시어 중, ‘소쩍-새, 아끼-다’ 따위는 두 개 형태소로 분석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된소리 문제는 그 중 한 형태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발음에 있어서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조건(환경)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디 예사소리인 것이 환경에 따른 변이음(變異音)으로서의 된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말한다.

1.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두 모음 사이에서(곧 모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예컨대 ‘소쩍(-새)’은 그 새의 울음소리를 시늉(음성 상징)한 의성어(擬聲語)이므로, ‘쑈/적’처럼 갈라질 수 없고, ‘어깨’는 ‘엇개, 억개’처럼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피꼬리 메뚜기 부뚜막 새끼 가꾸다 가까이 부쩍
등은 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

‘쑈제[순제]’(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는 흔히 [수제]로 발음되지만, 이 경우의 ‘쑈’는 ‘쑈-되다, 쑈-접다, 쑈-지다’ 등과 연관되며, ‘쑈접-이→쑈저비→쑈저이→쑈제’처럼 분석되는 것이므로, ‘수제’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쁘다(나쁘다, 미쁘다, 바쁘다)’는 어원적인 형태가 ‘깃-브다(낮-브다, 민-브다, 밋-브다)’로 해석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원형(原形)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 항에서 다룬 것이다.

2. 역시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울림소리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받침 ‘ㄴ, ㄹ, ㅁ, ㅇ’은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 | | | |
|----|----|------|-------|
| 단작 | 번쩍 | 물썩 | 절뚝거리다 |
| 듬뿍 | 함박 | 껍뚱하다 | 뭉뚱그리다 |

따위는 ‘단작, 번쩍, 물썩, 절뚝거리다, 듬뿍, 함박, 껍뚱하다, 뭉뚱그리다’처럼 적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ㄱ, ㅂ’ 받침 뒤는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곧,

늑대[늑때] 낙지[낙찌] 접시[접찌] 납작하다[납짜카다]

처럼 필연적으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똑똑(-하다), 쓱쓱(~쓱쓱), 짹짹(-하다)’ 따위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로 적는다(제13항 참조).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ㅅ, ㅆ’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만 | 마 | 할 | 할 |
| 만 | 마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 하 | 하 | 하 | 하 |

해설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형태소 연결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딸려 붙는(종속되는) 요소인 것이다.

실질 형태소의 끝 받침 ‘ㄷ, ㅌ’이 구개음화(口蓋音化)하여 [ㅅ, ㅆ]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를 밝히어 ‘ㄷ, ㅌ’으로 적는다. 그런데 앞(제1항 해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지만, 실질 형태소의 경우는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ㅅ, ㅆ]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로 적는 것이다.

| | |
|----------------------|----------------|
| 곧(- 곧대로, - 든다) | (미-, 여-)달이 |
| (해-)돋이 | 만 |
| (휘-)묻이 | (땀-, 물-, 씨-)받이 |
| 굳히다 | 달히다 |
| 묻히다 | 날날이 |
| (겨레-, 살-, 일가-, 피-)붙이 | 살살이 |
| 붙이다 | 벼훅이 |
| 활이다 | 훅이다 |

파위처럼 ‘ㄷ, ㅌ, ㅍ’ 받침 뒤에 조사나 접미사의 ‘-이, -히’가 결합되는 구조에도 적용된다.

한편, 명사 ‘만[마지][毘]’를 ‘마지’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만-아들, 만-손자, 만-형’ 등을 통하여 ‘태어난 차례의 첫 번’이란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만’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만’으로 적기로 하였다.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덜저고리 돛자리 엇셈 웃어른 핫웃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해설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때 [ㄷ]으로 실현되는 ‘ㅅ, ㅆ, ㅈ, ㅊ, ㅌ’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뒤에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결합될 경우에는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내리이어져 발음되지만,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음절 말음으로 실현될 때는-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ㄷ’ 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견 - 잡다(거두어 붙잡다), 곧 - 장(똑바로 곧게), 난 - 가리(난알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돌 - 보다(←도두 보다)’ 등은 본디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반질 - 고리, 사흘 - 날, 순 - 가락’ 등은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갓 - 스물 걸핏 - 하면 그 - 까짓 기껏 늦 - 그릇
덜 - 셈 빗장 샅대 숯 - 접다 자칫
짓 - 밝다 풋 - 고추 헛 - 곡식

따위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덜저고리, 돛자리, 엇셈, ……」처럼 적어야 할 것이지만,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래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한편, 사전에서 ‘발 - ’형으로 다루고 있는 ‘발사돈, 발상제’를 ‘뱃사돈, 뱃상제’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바깥’과의 연관성을 살리기 위하여 ‘발 - ’형을 취하기로 하였다. ‘표준말 모음’(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바깥쪽→)발쪽’이 ‘뱃쪽’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뱃’은 ‘바깥’의 뜻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발벽 발부모 발사돈 발상제 발아버이 발쪽
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제4절 모 음

제8항 ‘계, 레, 메, 폐, 헤’의 ‘ㄷ’은 ‘ㄱ’으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계수(桂樹) | 계수 | 혜택(惠澤) | 혜택 |
| 사례(謝禮) | 사례 | 계집 | 계집 |
| 연매(連袂) | 연매 | 핑계 | 핑계 |
| 폐품(廢品) | 폐품 | 게시다 | 게시다 |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해설 ‘계, 레, 매, 폐, 혜’는 현실적으로 [계, 레, 매, 폐, 혜]로 발음되고 있다. 곧, ‘예’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꺠’는 단모음화하여 [꺠]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다.(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2 참조)

이 중, ‘레(禮)’의 경우는, 같은 한자음을 단어 첫머리에서는 ‘꺠’로, 제2음절 이하에서는 ‘꺠’로 적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밖의 ‘계, 매, 폐, 혜’는 발음대로 ‘꺠’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철자 형태와 발음 형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꺠’형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대로 ‘꺠’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본음인 ‘꺠’로 적기로 하였다. 따라서 ‘게구(偈句), 계기(揭記), 게방(揭榜), 계양(揭揚), 게재(揭載), 게시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게제(偈諦), 게휴(憩休)’ 등도 ‘꺠’로 적는 것이다.

한편, ‘으레, 케케묵다’는 표준어 규정(제10항)에서 단모음화한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으 레, 케 케 묵다’로 적어야 한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의의(意義) | 의이 | 닝큼 | 닝큼 |
| 본의(本義) | 본이 | 띄어쓰기 | 띄어쓰기 |
| 무늬[紋] | 무니 | 썩어 | 썩어 |
| 보늬 | 보니 | 티어 | 티어 |
| 오늬 | 오니 | 희망(希望) | 희망 |
| 하늬바람 | 하니바람 | 히다 | 히다 |
| 닐리리 | 닐리리 | 유희(遊戱) | 유희 |

해설 ‘ㄴ’의 단모음화 현상을 인정하여, 표준 발음법(제5항 다만 3, 4)에서는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발음하고,

닐리리[닐리리] 띄어[띄어] 유희[유희]

②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예]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ㄴ’과 ‘ㄷ’, ‘ㄴ’과 ‘ㄹ’이 각기 변별적 특징(辨別的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발음 현상보다 보수성을 지니는 표기법에서는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ㄴ’이 [ㄴ]나 [ㄹ]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ㄴ’로 적기로 한 것이다.

‘띄어(←프이어), 씌어(←쓰이어), 티어(←트이어)’ 등은 ‘ㄴ’이 줄어진 형태이므로 ‘ㄴ’로 적으며, ‘희다, 희뵈다, 희뜩거리다’ 등은 관용에 따라 ‘ㄴ’로 적는다. 다만, ‘닐리리, 닝큼, 무늬, 보늬, 하늬바람’ 등의 경우는, ‘ㄴ’의 첫소리 ‘ㄴ’이 구개음화하지 않는 음([n])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유의한 표기 형식이다. ‘ㄴ’은 ‘ㄷ(ㄷ, ㄷ, ㄷ, ㄷ)’ 앞에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 [n]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닐리리, 무늬’ 등의 ‘ㄴ’은 구개음화하지 않는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발음 형태는 [니]를 인정하면서도, 재래의 형식대로 ‘ㄴ’로 적는 것이다.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여자(女子) | 녀자 | 유대(紐帶) | 뉴대 |
| 연세(年歲) | 년세 | 이토(泥土) | 니토 |
| 요소(元素) | 뇨소 | 익명(匿名) | 닉명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쫙(兩-) 년(年) (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해설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음이 두음 법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는다. 음소 문자인 한글은 원칙적으로 1자 1음(소)의 체계를 취하지만, 표의 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취한 것이다.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육혈(衄血)
 이승(尼僧) 이토(泥土) 익사(溺死)

다만, 의존 명사인 ‘냥(←兩), 냥쫙(←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금 한 냥 은 두 냥쫙 십 년

‘년(年)’이 ‘연 3회’처럼 ‘한 해(동안)’란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편,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녀석(고얀 녀석) 년(괘뽀한 년) 님(바느질 실 한 님)
 뉘(엽전 한 뉘, 가마니 두 뉘)

[붙임 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결뉴(結紐)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은닉(隱匿) 탐닉(耽溺)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란, 사전들에서 접두사로 다루어지는 게 통레이긴 하나, 그 성격상 접두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한자어 형태소를 말한다. 예컨대 ‘신(新), 구(舊)’는 의존 형태소라는 점에서 접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신구(新舊)와 같이 양자가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명사적 성격을, ‘신인(新人), 신참(新削)’과 같이 수식피수식의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형용사 또는 부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구조적 특질을 고려할 때, ‘신-세계, 신-여성’처럼 독립성을 지닌 단어 앞에 결합한 구조에서만 접두사로 분석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처리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형태소 ‘신-, 구-, 공-’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염불’로 적지 않으며, ‘남존-여비, 남부-여대(男負女戴)’ 등은 각각 단어(혹은 절) 성격인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

한편, 예컨대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 년도]이며 또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 여자 약사회→한국 여자약사회’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의 경우에 준하는 형식이다.

제11항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양심(良心) | 량심 | 용궁(龍宮) | 룽궁 |
| 역사(歷史) | 력사 | 유행(流行) | 류행 |
| 예의(禮儀) | 례의 | 이발(理髮) | 리발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나열(羅列) | 나렬 | 규율(規律) | 규률 |
| 치열(齒列) | 치렬 | 비율(比率) | 비률 |
| 비열(卑劣) | 비렬 | 실패율(失敗率) | 실패률 |
| 분열(分裂) | 분렬 | 선율(旋律) | 선률 |
| 선열(先烈) | 선렬 | 전율(戰慄) | 전률 |
| 진열(陳列) | 진렬 | 백분율(百分率) | 백분률 |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屹)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예시 본음이 ‘랴, 러, 레, 료, 류, 리’인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놓일 때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성씨(姓氏)의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는다.

양기탁(梁起鐸)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

다만,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

객차(客車) 오십 량(輛) 2푼 5리(厘)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예시어 중 ‘쌍룡(雙龍)’에 대해서는, 각기 하나의 명사로 다루어지는 ‘쌍’(한 쌍, 두 쌍, ……)과 ‘용’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쌍용’으로 적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익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열(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발음 형태가 [나열, 서 : 열, ……]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는다.

| | | | |
|------------|--------|----------|--------|
| 나열(羅列) | 서열(序列) | 분열(分列) | 전열(前列) |
| 의열(義烈) | 치열(熾烈) | 선열(先烈) | |
| 사분오열(四分五裂) | | 균열(龜裂) | 분열(分裂) |
| 비열(卑劣) | 우열(優劣) | 천열(賤劣) | |
| 규율(規律) | 자율(自律) | 운율(韻律) | 선율(旋律) |
| 비율(比率) | 이율(利率) | 백분율(百分率) | |
| 외율(煨栗) | 조율(棗栗) | 전율(戰慄) | |

‘율(率)’을 독립적인 단어로 다루어 ‘명중율(命中率), 합격율(合格率)’처럼 적기도 하였으나, ‘율’로 쓰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국한시켰으므로, ‘명중률, 합격률’로 적어야 한다.

[붙임 2] 한 글자(음절)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익어져 있으므로, 표기 형태인 ‘신립, 최린’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글자 이름의 경우에 국한되는 허용 규정이므로,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朴麟洙), 김륜식(金倫植)’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서 두 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뒤 한자의 음을 본음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제 연합(두 개 단어)→국련(國聯)(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교육 연합회(두 개 단어)→교련(敎聯)(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붙임 4] 전항 [붙임 2]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몰 - 이해(沒理解) 과 - 인산(過隣酸) 가 - 영수(假領收)

등 - 용문(登龍門) 불 - 이행(不履行) 사 - 육신(死六臣)
 생 - 육신(生六臣) 선 - 이자(先利子) 소 - 연방(蘇聯邦)
 청 - 요리(淸料理) 수학 - 여행(修學旅行)
 낙화 - 유수(落花流水) 무실 - 역행(務實力行)
 시조 - 유취(時調類聚)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미 - 립자(微粒子) 소 - 립자(素粒子)
 수 - 류탄(手榴彈) <총 - 유탄(銃榴彈)>
 파 - 렘치(破廉恥) <몰 - 염치(沒廉恥)>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개 - 현(蓮) 구름 - 양(量)[雲量]
 허파숨 - 양(量)[肺活量] 숫 - 용[雄龍]

[붙임 5] ‘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낙원(樂園) | 락원 | 뇌성(雷聲) | 뢰성 |
| 내일(來日) | 래일 | 누각(樓閣) | 루각 |
| 노인(老人) | 로인 | 능묘(陵墓) | 릉묘 |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예시 본음이 ‘라, 레, 로, 뢰, 루, 르’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에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교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다만, 예컨대 ‘어린이 - 단, 어머니 - 단, 가십(gossip) - 단’과 같이 고유어나 (구미)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개 - 연(蓮), 구름 - 양(量)’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반 - 나체(半裸體) 실 - 낙원(失樂園) 중 - 노인(中老人)
육체 - 노동(肉體勞動) 부화 - 뇌동(附和雷同)
사상 - 누각(砂上樓閣) 평지 - 낙상(平地落傷)

한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 - 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 - 지’로 적는 것이다.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딱딱 | 딱닥 | 꽃꽃하다 | 꽃긋하다 |
| 씩씩 | 씩색 | 놀놀하다 | 놀릐하다 |
| 씩씩 | 씩식 | 눅눅하다 | 눅늑하다 |
| 똑딱똑딱 | 똑닥똑닥 | 밋밋하다 | 민밋하다 |
| 씩씩씩씩 | 씩삭씩삭 | 씩씩하다 | 씩삭하다 |
| 연연불망(戀戀不忘) | 연련불망 | 쌈쌈하다 | 쌈살하다 |
| 유유상종(類類相從) | 유류상종 | 썹썹하다 | 썹슬하다 |
| 누누이(屢屢 -) | 누루이 | 짹짹하다 | 짹잘하다 |

예시 ‘딱딱, 씹씹’ 등은 의성어 ‘딱, 씹’이 겹쳐진 첩어(疊語)이며, 한자어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등도 첩어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꽃꽃하다, 놀놀하다’ 등에서의 ‘꽃, 놀’ 따위는 의미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왼쪽 예시어와 오른쪽 예시어) 유형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중복되는 형식이므로, 본 항에서 함께 다루었다.

다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1항 [붙임 1] 규정을 적용하면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여:년-], [유유-], [누:누-]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문(寥寥無聞), 요요(寥寥)하다’ 등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 | | |
|----------|----------|------------|
| 낭랑(朗朗)하다 | 냉랭(冷冷)하다 | 녹록(碌碌)하다 |
| 늪늪(凜凜)하다 | 연년생(年年生) | 염념불망(念念不忘) |
| 역력(歷歷)하다 | 인린(隣隣)하다 | 적나라(赤裸裸)하다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 | | | |
|-----|-----|-----|-----|-----|
| 떡이 | 떡을 | 떡에 | 떡도 | 떡만 |
| 손이 | 손을 | 손에 | 손도 | 손만 |
| 팔이 | 팔을 | 팔에 | 팔도 | 팔만 |
| 밤이 | 밤을 | 밤에 | 밤도 | 밤만 |
| 집이 | 집을 | 집에 | 집도 | 집만 |
| 옷이 | 옷을 | 옷에 | 옷도 | 옷만 |
| 콩이 | 콩을 | 콩에 | 콩도 | 콩만 |
| 낮이 | 낮을 | 낮에 | 낮도 | 낮만 |
| 꽃이 | 꽃을 | 꽃에 | 꽃도 | 꽃만 |
| 발이 | 발을 | 발에 | 발도 | 발만 |
| 앞이 | 앞을 | 앞에 | 앞도 | 앞만 |
| 밖이 | 밖을 | 밖에 | 밖도 | 밖만 |
| 넋이 | 넋을 | 넋에 | 넋도 | 넋만 |
| 흙이 | 흙을 | 흙에 | 흙도 | 흙만 |
| 삶이 | 삶을 | 삶에 | 삶도 | 삶만 |
| 여덟이 | 여덟을 | 여덟에 | 여덟도 | 여덟만 |
| 끓이 | 끓을 | 끓에 | 끓도 | 끓만 |
| 값이 | 값을 | 값에 | 값도 | 값만 |

예시 실질 형태소인 체언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조사도 모든 체언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시켜 적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면,

값씨 값쓸 값또 값만

처럼 되어서, 실질 형태소(체언)의 본모양이 어떤 것인지, 또 형식 형태소인 조사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된다. 실질 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은, 결국 체언의 끝 받침을 조사의 첫소리 자리로 내리이어 적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밭 - 이’를 ‘바티’ 혹은 ‘바치’로 적는다고 하면, 체언의 형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주격(主格)을 표시하는 조사의 형태가 불분명해진다. 그리하여 ‘田’이란 뜻을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를 ‘밭’으로 고정시키고, 여기에 주격을 표시하는 ‘이’가 결합한 형태는 ‘밭이’로 적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다.

| | | |
|-----------------------------------|---|------------------------------|
| 젓 [乳] 꽃 [花] 부엌 [廚] | + | 은 의 을 에 으로 이다 |
|-----------------------------------|---|------------------------------|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 | | |
|----|----|----|------|
| 먹다 | 먹고 | 먹어 | 먹으니 |
| 신다 | 신고 | 신어 | 신으니 |
| 믿다 | 믿고 | 믿어 | 믿으니 |
| 올다 | 올고 | 올어 | (우니) |
| 넘다 | 넘고 | 넘어 | 넘으니 |
| 입다 | 입고 | 입어 | 입으니 |
| 웃다 | 웃고 | 웃어 | 웃으니 |
| 찾다 | 찾고 | 찾아 | 찾으니 |
| 좃다 | 좃고 | 좃아 | 좃으니 |
| 같다 | 같고 | 같아 | 같으니 |
| 높다 | 높고 | 높아 | 높으니 |
| 좋다 | 좋고 | 좋아 | 좋으니 |
| 깎다 | 깎고 | 깎아 | 깎으니 |

| | | | |
|----|----|----|-----|
| 앉다 | 앉고 | 앉아 | 앉으니 |
| 많다 | 많고 | 많아 | 많으니 |
| 늡다 | 늡고 | 늡어 | 늡으니 |
| 젊다 | 젊고 | 젊어 | 젊으니 |
| 넓다 | 넓고 | 넓어 | 넓으니 |
| 훤다 | 훤고 | 훤어 | 훤으니 |
| 웁다 | 웁고 | 웁어 | 웁으니 |
| 웁다 | 웁고 | 웁아 | 웁으니 |
| 없다 | 없고 | 없어 | 없으니 |
| 있다 | 있고 | 있어 | 있으니 |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 | | | |
|-------|------|------|------|
| 넘어지다 | 늘어나다 | 늘어지다 | 돌아가다 |
| 되짚어가다 | 들어가다 | 떨어지다 | 벌어지다 |
| 엮어지다 | 접어들다 | 틀어지다 | 흠어지다 |

(2) 본뜻에서 떨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히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
|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요.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요. |
| 이것은 책이 아니오. | 이것은 책이 아니요. |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

해설 전향과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인 어간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형식 형태소인 어미도 모든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시켜 적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어간 형태소 ‘늡-’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면,

늡꼬 늡찌 늡는 늡그니

① (② (③ (④ (

늡께 늡쏘 늡네 늡거서

처럼 되어서, 어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어미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진

다. 이 경우 역시, ‘늘-고, 늙-지, 늙-는, 늙-으니’처럼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어간이 표시하는 어휘적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 | | |
|------|---|-----|
| 꺾(折) | + | -는다 |
| 잊(忘) | | -느나 |
| 덮(覆) | | -으니 |
| 꺾(擻) | | -어서 |
| 읊(咏) | | -도록 |
| 잃(失) | | -거든 |

〔붙임 1〕 두 개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된 경우,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고,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본 뜻에서 떨어진 것’이란, 그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 표시되는 어휘적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변화되었음을 말한다. 예시어 중, ‘늘어나다, 되짚어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는 통일안에서 안 다루어졌던 것을 추가하였다.

(1)의

| | |
|--------------|---------------|
| 늘어나다-늘다[增] | 늘어지다-늘다[延] |
| 돌아가다-돌다[回] | 들어가다-들다[入] |
| 떨어지다-(밤을) 떨다 | 벌어지다-(아람이) 벌다 |
| 엮어지다-엮다[覆] | 틀어지다-틀다[妨] |
| 흩어지다-흩다[散] | |

따위는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되짚어가다’(및 ‘되짚어오다’)는 ‘되짚어’라는 단어(부사)가 사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넘어지다, 접어들다’의 경우는 그 의미 구조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원적인 형태를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해석하는 관례에 따라 여기서 다룬 것이다.

한편, ‘돌아가다[歸], 접어들다[移入]’ 따위는 예컨대

산모퉁이를 돌아(서) 간다. 우산을 접어(서) 든다.

같은 형식과는 구별된다.

(2)의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등은 ‘들다/나다’, ‘살다/지다’, ‘쓸다/지다’처럼 분석되지 않는다. 사전에서는 ‘(방을) 쓸다’의 피동형은 ‘쓸리다’로 다루고 있으나, ‘지다’ 결합 형식은 ‘쓸어지다’(비가 좋으니, 방이 잘 쓸어진다.)로서, ‘쓰러지다[靡]’와 구별된다. (2)의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로는

| | | |
|----------|---------|---------|
| 나타나다 | 바라보다 | 바라지다[垢] |
| 배라먹다[乞食] | 부서지다[碎] | 불거지다[凸] |
| 부러지다[折] | 자라나다[長] | 자빠지다[沛] |
| 토라지다[少滯] | | |

등도 있다.

[붙임 2, 3] 통일안 부록 I 표준말 5에는, 연결형(連結形)이나 종지형(終止形)이나 마찬가지로, ‘이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표기에서는 연결형은 ‘이요’, 종지형은 ‘이오’로 적고 있어서, 관용 형식을 취한 것이다. 연결형의 경우는, 옛말에서 ‘이고’의 ‘ㄱ’이 묵음화(默音化)하여 ‘이오’로 굳어진 것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의 연결형에 ‘오’ 형식이 없으므로(연관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나는 대로 ‘요’로 적는 것이다. 그러나 종지형의 경우는, ‘나도 가오’, ‘집이 크오’처럼 모든 용언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오’인데, ‘이-’ 뒤에서만 예외적인 형태 ‘요’를 인정하는 것은 체계 있는 처리가 아니므로 ‘오’로 적는 것이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 | | |
|----|-----|-----|
| 나아 | 나아도 | 나아서 |
| 막아 | 막아도 | 막아서 |
| 앉아 | 앉아도 | 앉아서 |
| 돌아 | 돌아도 | 돌아서 |
| 보아 | 보아도 | 보아서 |

2. ‘-어’로 적는 경우

| | | |
|----|-----|-----|
| 개어 | 개어도 | 개어서 |
| 겪어 | 겪어도 | 겪어서 |
| 되어 | 되어도 | 되어서 |
| 베어 | 베어도 | 베어서 |
| 쉬어 | 쉬어도 | 쉬어서 |
| 저어 | 저어도 | 저어서 |
| 주어 | 주어도 | 주어서 |
| 피어 | 피어도 | 피어서 |
| 희어 | 희어도 | 희어서 |

해설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양성 모음)일 때에는 어미를 ‘-아’ 계열로 적고,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ㅟ, ㅣ’(음성 모음)일 때에는 ‘-어’ 계열로 적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형식으로서의 모음조화(母音調和)의 규칙성에 따른 구별인데,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약(制約) 받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모음조화의 파괴로 말미암아 (잡아→)[자버], (앉아→)[알버]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 어간 끝 음절의 모음 | 어미의 형태 |
|---------------------------------------|---------------------------|
| ㅏ, ㅑ | - 아(아라, 아서, 아도, 아야)(았, 았) |
| ㅕ, ㅗ, ㅛ, ㅜ, ㅠ, ㅟ, ㅡ, ㅚ, ㅜ, ㅡ, ㅜ, ㅜ | - 어(어라, 어서, 어도, 어야)(었, 었) |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 |
|-----|------|
| 읽어 | 읽어요 |
| 참으리 | 참으리요 |
| 좋지 | 좋지요 |

해설 이 경우의 ‘요’는,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결합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성분인데, 어미에 결합하는 조사로 설명되고 있다. 이 ‘요’는 의문형 어미 뒤에도 결합한다.

| | |
|--------|---------|
| 가리 - 요 | 가지 - 요 |
| 가나 - 요 | 가는가 - 요 |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 | | | | | |
|-------|-----|----|------|------|-----|
| 갈다 : | 가니 | 간 | 갑니다 | 가시다 | 가오 |
| 놀다 : | 노니 | 논 | 놉니다 | 노시다 | 노오 |
| 불다 : | 부니 | 분 | 붙니다 | 부시다 | 부오 |
| 등글다 : | 등그니 | 등근 | 등굽니다 | 등그시다 | 등그오 |
| 어질다 : | 어지니 | 어진 | 어집니다 | 어지시다 | 어지오 |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 | | | |
|---------|-----------|--------|--------|
| 마지못하다 | 마지않다 | (하)다마다 | (하)자마자 |
| (하)지 마라 | (하)지 마(아) | | |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 | | | |
|------|----|-----|-----|
| 긋다 : | 그어 | 그으니 | 그었다 |
| 낫다 : | 나아 | 나으니 | 나았다 |
| 잇다 : | 이어 | 이으니 | 이었다 |
| 짓다 : | 지어 | 지으니 | 지었다 |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 | | | |
|-------|------|-----|-----|
| 그렇다 : | 그러니 | 그렐 | 그러면 |
| | 그릅니다 | 그리오 | |
| 까맣다 : | 까마니 | 까말 | 까마면 |
| | 까맙니다 | 까마오 | |

| | | | |
|--------|-------|------|------|
| 동그랗다 : | 동그라니 | 동그랄 | 동그라면 |
| | 동그랍니다 | 동그라오 | |
| 퍼렇다 : | 퍼러니 | 퍼렐 | 퍼러면 |
| | 퍼럽니다 | 퍼러오 | |
| 하얗다 : | 하야니 | 하얏 | 하야면 |
| | 하얍니다 | 하야오 | |

4. 어간의 끝 ‘ㄴ, ㄹ’가 줄어질 적

| | | |
|-------|----|-----|
| 푸다 : | 퍼 | 폈다 |
| 뜨다 : | 떠 | 뒀다 |
| 끄다 : | 껴 | 꼈다 |
| 크다 : | 커 | 꼈다 |
| 담그다 : | 담가 | 담갔다 |
| 고프다 : | 고파 | 고팠다 |
| 따르다 : | 따라 | 따랐다 |
| 바쁘다 : | 바빠 | 바빴다 |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 | | | |
|---------|----|-----|-----|
| 걸다[步] : | 걸어 | 걸으니 | 걸었다 |
| 듣다[聽] : | 들어 | 들으니 | 들었다 |
| 묻다[問] : | 물어 | 물으니 | 물었다 |
| 싣다[載] : | 실어 | 실으니 | 싣었다 |

6. 어간의 끝 ‘ㅂ’이 ‘ㄴ’로 바뀔 적

| | | | |
|---------|------------|------|-------------|
| 집다 : | 기워 | 기우니 | 기웠다 |
| 굽다[炙] : | 구워 | 구우니 | 구웠다 |
| 가깝다 : | <u>가까워</u> | 가까우니 | <u>가까웠다</u> |
| 괴롭다 : | <u>괴로워</u> | 괴로우니 | <u>괴로웠다</u> |
| 맵다 : | 매워 | 매우니 | 매웠다 |
| 무겁다 : | 무거워 | 무거우니 | 무거웠다 |
| 밋다 : | 미워 | 미우니 | 미웠다 |
| 쉽다 : | 쉬워 | 쉬우니 | 쉬웠다 |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 | | | | |
|---------|----|-----|-----|-----|
| 돕다[助] : | 도와 | 도와서 | 도와도 | 도왔다 |
| 곱다[麗] : | 고와 | 고와서 | 고와도 | 고왔다 |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 | | | | | |
|------|----|-----|-----|-----|-----|
| 하다 : | 하여 | 하여서 | 하여도 | 하여라 | 하였다 |
|------|----|-----|-----|-----|-----|

8.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ㄹ’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 -어’가 ‘-라/ -러’로 바뀌어 적

가르다 : 갈라 갈랐다

거르다 : 걸러 걸렸다

구르다 : 굴러 굴렀다

벼르다 : 별러 별렀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이르다 : 일러 일렀다

지르다 : 질러 질렀다

해설 어휘적 형태소인 어간이 문법적 형태소인 어미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활용의 체계에는

(1) 어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어미만이 교체된다(변화한다).

(2) 어미는 모든 어간에 공통되는 형식으로 결합한다.

라는 원칙이 있다.

‘원칙에 벗어나면’이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니,

①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②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고, 어미도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등, 두 가지 형식을 들 수 있다.

1.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으)오, -(으)르’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살다 - (살네) 사네 (살세) 사세
(살으오) 사오 (살을수록) 살수록

빌다 - (빌네) 비네 (빌세) 비세
(빌으오) 비오 (빌읍시다) 빌시다

(빌을뿐더러) 빌뿐더러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붙임] 어간 끝 받침 ‘ㄹ’은 ‘ㄷ, ㅅ, ㅂ’ 앞에서 줄지 않는 게 원칙인데, 관용상 ‘ㄹ’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준 대로 적는다.

(-다 말다) - 다마다 (말지 못하다) 마지못하다

(멀지 않아) 머지않아 (-자 말자) - 자마자

(-지 말아) -지 마(아) (-지 말아라) -지 마라

‘(-지 말아라→) -지 마라’의 경우는, 어간 끝 받침 ‘ㄹ’과 어미의 ‘아’가 함께 줄어지는 형태인데, 이른바 문어체(文語體) 명령형이나 간접 인용법의 형식에서는 ‘말라’가 사용된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읽지 말라고 하였다.

한편 ‘-다마다’는 사전에 따라 ‘-고말고’의 방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2. 어간 끝 받침 ‘ㅅ’이 어미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어간 끝에 ‘ㅅ’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긋다, 낫다, 붓다, 잇다, 잣다, 젓다, 짓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벗다, 빗다, 빼앗다, 솟다, 찢다, 웃다’ 등은 ‘ㅅ’받침이 줄어들지 않는다.

붓다 - (붓으니) 부으니 (붓어도) 부어도 (붓었다) 부었다

‘긋다’가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줍다’의 방언으로 다루어진다. 어원적으로 ‘줍다’에서 파생된 부사 ‘주섬주섬’은 ‘주엄주엄’으로 적지 않는다.

3.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는 ‘-애/-에’로 나타난다.

노랑다 - (노랑네) 노라네 (노랑은) 노란 (노랑으니) 노라니

(노랑아) 노래 (노랑아지다) 노래지다

허영다 - (허영네) 허여네 (허영을) 허열 (허영으면) 허여면

(허영어) 허예 (허영어지다) 허예지다

어간 끝에 ‘ㅎ’ 받침을 가진 형용사 중, ‘좋다’ 이외의 단어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4. 어간이 모음 ‘ㄴ’으로 끝나는 동사 ‘푸다’와, 어간이 모음 ‘ㅡ’로 끝나는 용언 중 8, 9에 해당하는 단어 이외의 단어들은,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ㄴ, ㅡ’가 줄어진다.

푸다 - (푸어) 퍼 (푸어서) 퍼서 (푸었다) 폼다

바쁘다 - (바쁘어) 바빠 (바쁘어도) 바빠도 (바쁘었다) 바빴다

‘ㄴ’이 줄어지는 단어는 ‘푸다’ 하나뿐이며, ‘ㅡ’가 줄어지는 단어로는 ‘끄다, 담그다, 따르다, 뜨다, 잠그다, 치르다, 트다, 가쁘다, 고프다, 기쁘다, 나쁘다, 미쁘다, 바쁘다, 슬프다, 아프다, 예쁘다, 크다’ 등이 있다.

5.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일킨다 - (일킨으면) 일컬으면 (일킨어서) 일컬어서

(일킨었다) 일컬었다

어간 끝에 ‘ㄷ’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걷다[步], 긴다, 깨닫다, 놀다, 닫다[走], 듣다, 묻다[問], 붙다, 신다, 일킨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걷다[收, 撤], 닫다[閉], 돈다, 뜯다, 묻다[埋], 밟다, 받다, 번다, 뻗다, 얻다, 곧다, 굳다’ 등은 ‘ㄷ’이 ‘ㄹ’로 바뀌지 않는다.

6. 어간 끝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눅다 - (눅으니) 누으니 (눅어) 누워 (눅었다) 누웠다

덥다 - (덥으면) 더우면 (덥어) 더워 (덥었다) 더웠다

어간 끝에 ‘ㅂ’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굽다[炙], 갑다, 눅다, 줍다, 가깝다, 가볍다, 간지럽다, 괴롭다, 그럽다, 노엽다, 더럽다, 덥다, 맵다, 메스껍다, 무겁다, 미덥다, 밉다, 사납다, 서럽

다, 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지겹다, 차갑다, 춥다' 등과, 접미사 '-답다, -롭다, -스럽다'가 결합하여 된 단어들이 이에 해당되고, '(손-)꼽다[屈指], 뽀다, 찜다, 엮다, 잡다, 접다, 집다, (손이) 곱다, 굵다[曲], 좁다' 등은 'ㅂ' 받침이 '우'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모음 조화의 규칙성에 따라 'ㅏ, ㅑ'에 붙은 'ㅂ' 받침 뒤에 어미 '-아(았)'가 결합한 형태는

가까와, 가까와서 아름다와, 아름다와야 괴로와도, 괴로왔다
처럼 모두 '와(왔)'로 적었으나, 이번에는 현실적인 발음 형태를 취하여, 모음이 'ㅑ'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만 '와'로 적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기로 하였다.

돕다 -도와, 도와라, 도와서, 도와도, 도와야, 도왔다
곱다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와야, 고왔다

'] '와' 형

괴롭다 -괴로워, 괴로워서, 괴로워도, 괴로워야, 괴로웠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서, 아름다워도, 아름다워야,
아름다웠다

'] '워' 형

7. 제16항 규정을 적용한다면, 어간 '하-' 뒤에는 어미 '-아'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 뒤에서는 분명히 [여]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태인 '여'로 적는 것이다.

(하아) 하여 (하아라) 하여라
(하아도) 하여도 (하았다) 하였다

8. 제16항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르-, 노르-' 뒤에는 어미 '-어'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르다(至), 누르다, 푸르다' 따위의 경우는 분명히 [러]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태인 '러'로 적는다.

(푸르어) 푸르러 (푸르어서) 푸르러서
(푸르었다) 푸르렀다 (푸르어지다) 푸르러지다

어간 끝 음절이 '르'인 용언 중, '노르다, 누르다, 푸르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9. 어간 끝 음절 '르'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모음 'ㅡ'가 줄면서 'ㄹ'이 앞 음절 받침으로 올라붙고, 어미 '어'가 '라/러'로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나르다 - (나르어) 날라 (나르어서) 날라서
(나르었다) 날랐다
누르다 - (누르어) 눌러 (누르어도) 눌러도
(누르었다) 눌렀다

어간 끝 음절이 '르'인 용언 중, 4나 8에 해당하는 단어 이외의 것들은 다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간 끝 음절 '르' 뒤에 피동사화, 사동사화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역시 어간 모음 'ㅡ'가 줄면서 'ㄹ'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라붙고, '이'가 '리'로 바뀌어 나타난다.

(누르이다) 눌러다 (오르이다) 올리다 (흐르이다) 흘리다
이 밖에, 예외적인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는 형식으로

가다 - (가아라) 가 처라 자다 - (자아라) 자 처라
오다 - (오아라) 오 너라

가 더 있으나, 예외 형식이 단지 명령형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훅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앓 만듦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鬚]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해설 1, 2. 명사화 접미사 ‘- 이, - 음’은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하며, 또 본디 어간 형태소의 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 | | |
|--------------|-----------|-----------|
| (굽다) 굽이 | (걸다) 귀걸이 | (밟다) 귀밟이 |
| (넓다) 넓이 | (놀다) 놀음놀이 | (더듬다) 더듬이 |
| (뚫다) 대뚫이 | (받다) 물받이 | (뿜다) 물뿜이 |
| (얹다) 배얹이 | (놀다) 뱃놀이 | (맞다) 손님맞이 |
| (잡다) 손잡이 | (막다) 액막이 | (닫다) 여닫이 |
| (걸다) 옷걸이 | (박다) 점박이 | (살다) 하루살이 |
| (돈다) 해돈이 | (씻다) 호미씻이 | (묻다) 휘묻이 |
| (갈다) 갈음(-하다) | (볶다) 고기볶음 | (그을다) 그을음 |
| (모질다) 모질음 | (살다) 삶 | (끓다) 설음 |
| (숙다) 숙음 | (수줍다) 수줍음 | (값다) 양값음 |
| (엮다) 엮음 | (솟다) 용솟음 | (일컫다) 일컫음 |
| (놀다) 탈놀이 | (막다) 판막음 | |

‘겨레불이, 쇠불이, 일가불이, 피불이’의 ‘- 불이’를 ‘부치’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경우 ‘불-’에는 ‘불다, 팔리다’란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이’로 적기로 하였다.

3, 4. 부사화 접미사 ‘- 이, - 히’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한다.

| | | |
|--------------|----------|---------|
| (곧다) 곧이(-든다) | (없다) 덧없이 | (옳다) 옳이 |
| (적다) 적이 | (밝다) 밝히 | (익다) 익히 |
| (작다) 작히 | | |

‘밝히’는 그 뒤에 ‘증명하다(되다)’ 같은 말이 연결되긴 하지만, ‘만들다, 비치다, 빛나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제약성을 지니므로, 부사적 기능이 약한 단어이며, ‘작히(작히나)’는 그 어근(어간)의 본뜻과 상당히 떨어진 단어다. 그러나 용언 어간 ‘밝-, 작-’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므로, 여기서 다룬 것이다.

다만. 명사화 접미사 ‘- 이, - 음’이 결합하여 된 단어라도, 그 어간의 본뜻과 떨어진 원형(原形)을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시어들은 ‘돌(다), 달(다), 걸(다), 열(다), 길(다), 놀(다)’ 같은 어간 형태소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굽돌이, 달이, 목걸이(땀 단어), 문열이, 코걸이(코끼리), 꿩음, 놀음(땀 단어)’처럼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 | | | |
|------|---------------|------|-----|
| 너비 | 도리깨 | 두루마리 | 목도리 |
| 빈털터리 | 턱거리(언턱거리, 종기) | | |

따위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거름[肥料], 노름[賭博], 어름[物界]’ 등은 ‘걸음[步], 놀음[遊], 얼음[氷]과 달리 적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인 것이다.

〔붙임〕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하는 ‘- 이, - 음’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1) 명사로 된 것

| | | |
|-------------|-----------|------------|
| (꾸짚음) 꾸중 | (남어지) 나머지 | (논웅지) 누렁지 |
| (늪으막) 늪그막 | (돌양) 도랑 | (돌으래) 도르래 |
| (동글아미) 동그라미 | (불영이) 불경이 | (뺨으렁) 빠드렁니 |
| (옴아미) 올가미 | (짚양이) 지팡이 | (똥에) 코뚜레 |

(2) 부사로 된 것

| | | |
|-----------|-----------|-----------|
| (늘우) 느루 | (돌우) 도두 | (돌오) 도루 |
| (맞우) 마주 | (비똥오) 비뚜로 | (발암) 발밤발밤 |
| (잡암) 자밤자밤 | (줏엄) 주섬주섬 | |

‘넘어, 너머, 너무’는

산을 넘어(동사) 날아간다. 산 너머(명사)에 있는 마을.

사람이 너무(부사) 많다.

처럼 구별되며, ‘참아, 차마’는

괴로움을 참아(동사) 왔다. 차마(부사) 때릴 수는 없었다.

처럼 구별된다.

(3) 조사로 된 것

동사 ‘남다, 붙다, 좇다’의 부사형 ‘남아, 붙어, 좇아’가 허사화(虛辭化)한 것인데,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마저(←마자←맞아)’도 이에 해당된다.

제20항 명사 뒤에 ‘-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뭇뭇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 | |
|------|------|-----|-----|
| 꼬락서니 | 꼬트머리 | 모가치 | 바가지 |
| 바깥 | 사타구니 | 싸라기 | 이파리 |
| 지붕 | 지푸라기 | 짜개 | |

예시 명사에 접미사 ‘- 이’가 결합하여 다른 품사로 바뀌거나 뜻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명사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 이 경우의 ‘이’는 어간에 붙는 ‘이’처럼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의 예와 같이 명사가 중복되면서 ‘이’가 결합하여 부사화하는 형식은 꽤 널리 적용된다.

간간이 겹겹이 길길이 눈눈이 땀땀이
 번번이 사람사람이 옆옆이 줄줄이 참참이
 철철이 첩첩이 툼툼이 나날이 다달이
 골골살살이 구구절절이 사사건건이

품사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뜻만 달라지는 것으로는

각설이 검정이 고리눈이 네눈이 딸깍발이
 맹문이 생손이 왕눈이 외 툼이 외팔이
 우걱꺽이 통방울이

따위도 있다. ‘외툼이’는 ‘외툼(←외돌토리)’에 ‘- 이’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외툼이’로 적는 것이다.

〔붙임〕 명사 뒤에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의 경우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명사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양) 고랑 (굴영) 구렁 (끝으러기) 꼬트러기
 (목아지) 모가지 (살애) 사태 - 고기 (속아지) 소가지
 (솔앵) 소댕 (올아기) 오라기 (털억) 터럭

‘모가지’는 ‘뿔’에 ‘- 아지’가 붙어서 된 단어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치’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발음 형태도 [모가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지’로 적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있다. ‘값어치’에서의 ‘어치’는 사전들에서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본 규정을 적용하여 ‘갑서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지’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가버치’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푼어치, 십 원어치, 백 불(달러)어치, 천 엔어치, 만 프랑어치, 십만 마르크어치, ……」처럼 쓰이는 ‘어치’는 (의존) 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 원, ……」, ‘값’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너치, 원너치, ……」 같은 표기 형태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 것이다.

예외 형식으로는 ‘벼슬아치’도 있다. 이 경우의 ‘- 아치’(동냥아치, 장사아치)는 접미사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면, ‘벼스라치’로 적을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이 ‘벼슬(동냥, 장사)’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벼슬아치’로 적는다.

또, 표준어 규정 제17항에서 다루어진 ‘반빔아치’는 ‘반빔’(반찬 만드는 일)에 ‘-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이지만, 발음 형태가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어서 ‘반비사치’로 적을 수 없는 것이므로, 관용에 따라 ‘반빔아치’로 적는다.

본 규정에 따라 해석하면,

(원칙적인 형식) - 목사치, 갑서치, 벼스라치, 반비사치

(예외적인 형식) - 모가지, 값어치, 벼슬아치, 반빔아치

에서, 예외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흘지다 낚두리 빛깔 옆대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낙시 늑정이 덮개
뜯게질 갑작갑작하다 갑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랴다
굶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늑다랴다 늑수그레하다 엷죽엷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랴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쭙하다 실끔하다
알따랴다 알팍하다 짤따랴다 짤막하다
실컷
-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해설 명사나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는, 그 명사나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 | | | |
|----------------------|------------------|----------|
| (값) 값지다 | (꽃) 꽃답다 | (끝) 끝내 |
| (맛) 맛깔스럽다 | (멋) 멋지다 | (밑) 밑지다 |
| (별) 별뿔 | (부엌) 부엌데기 | (빛) 빛 채이 |
| (빛) 빛깔 | (숯) 숯장이 | (숲) 숲정이 |
| (앞) 앞장(-서다) | (옆) 옆구리 | (잎) 잎사귀 |
| (흙) 흙질(-하다) | (굶) 굶적거리다, 굶죽거리다 | |
| (넓) 넓죽하다 | (늑) 늑다랴다 | |
| (늑) 늑다리, 늑바탕, 늑수그레하다 | | |
| (몹) 몹숙하다, 몹수그레하다 | (엷) 엷적엷적하다 | |
| (엷) 엷지르다 | (옳) 옳조리다 | |

다만, 2에 딸린 규정으로서, (1)은, 겹받침에서 뒤엷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엷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

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굶다랴다([국 -]), 굶적거리다([국 -]), 늙수그레하다([늑 -])’ 따위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마는, ‘할짝거리다, 말끔하다, 실쭙하다’ 따위는 어간의 형태(할 -, 말 -, 실 -)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게 된다.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넙적하다, 넙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ㅼ’ (넓 -)에서 뒤의 ‘ㅅ’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넙따랴다, 넙적하다’는 ‘넓다’에서 파생된 것이나 ‘너르다’에서 파생된 것이나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너르다’(공간으로 넓다.)와 대응시켜 볼 수도 있으나, ‘넓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여 (1)에서 다루었다.

(2)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넙치’는 한자어 ‘광어(廣魚)’와 대응시켜 볼 때 ‘넓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그리고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도 ‘웁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역시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로 적는다. 이와는 달리 ‘골막하다’는 ‘굶다’와 연관되지 않고 ‘납작하다’는 ‘넓적하다’의 작은말로 설명되지만, ‘납다, 넓다’ 같은 단어가 없으므로, 어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다루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 | | | | |
|-----|------|------|-----|-----|
| 말기다 | 웁기다 | 웃기다 | 쫓기다 | 푹리다 |
| 울리다 | 늑이다 | 쌍이다 | 활이다 | 굳히다 |
| 굽히다 | 넓히다 | 앉히다 | 엷히다 | 잡히다 |
| 돈구다 | 숫구다 | 돈우다 | 갓추다 | 곧추다 |
| 맞추다 | 일으키다 | 돌이키다 | 없애다 | |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 | | |
|------------|------------|-----|
| 도리다(칼로 ~) | 드리다(용돈을 ~) | 고치다 |
| 바치다(세금을 ~) | 부치다(편지를 ~) | 거두다 |
| 미루다 | 이루다 | |

2. ‘-치-, -프리-, -트리-’가 붙는 것

| | | | |
|-------------|-----------|------|-----|
| 농치다 | 뒷치다 | 떠받치다 | 받치다 |
| 발치다 | 부딪치다 | 뺨치다 | 엷치다 |
| 부딪프리다/부딪트리다 | 쏟프리다/쏟트리다 | | |
| 젓프리다/젓트리다 | 젓프리다/젓트리다 | | |

흐뜨리다/흐트리다

[붙임] ‘- 업-, - 읍-, -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답다

우습다

미쁘다

해설 1. 이 접미사들은 다만 피동, 사동 등의 의미와 기능을 표시하는 요소이므로, 실질 형태소인 (본디의) 어간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곧, ‘(본디의) 어간+피동화·사동화 요소+어미’의 구조에 있어서 피동화, 사동화 요소의 첨가는 규칙적인 형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피동화, 사동화 접미사가 파생어의 어간을 형성하는 성분이면서도 본디의 어간과 분명히 구별되며, 규칙적인 형식으로 결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음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남다’의 피동사나 사동사는 마찬가지로 ‘남이다’로 적으며, ‘눅다, 눅다[柔, 軟], 썩다’의 사동사는 ‘눅이다(×눅히다), 눅이다(×눅히다), 썩이다(×썩히다)’로 적는다. 그리고 ‘돌우다, 돌구다’는 안경의 도수(度數) 따위를 높게 하다란 뜻으로는 ‘돌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란 뜻으로는 ‘돌우다’를 쓰는 게 통례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늘리다, 늘이다), 떨구다(→떨어뜨리다)’ 등은 비표준어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어원적인 형태는 어간에 접미사 ‘-이-, -히-, -우-’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피동이나 사동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시어 ‘도리다, 드리다, 고치다, 바치다, 부치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는 ‘돌[廻]이다, 들[入]이다, 곧[直]히다, 받[受]히다, 붙[附]이다, 걷[撒, 捲]우다, 밀[推]우다, 일[起]우다’와 같은 사동의 형태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는 형식이므로, 전항(제21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뜨리, -트리’는 지금까지 ‘뜨리’만을 취했었으나, 표준어 규정(제26항)에서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빠치다(…까지 미치다, 닿다), 뻘치다(‘뻘지르다’의 강세어)’는 구별 없이 ‘뻘치다’로 적는다.(제55항 참조) 또, ‘부딪다, 부딪치다, 부딪히다, 부딪치이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부딪다(힘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

부딪치다(‘부딪다’의 강세어)

부딪히다(‘부딪다’의 피동사.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

부딪치이다(‘부딪치다’의 피동사. 부딪침을 당하다의 뜻)

[붙임] ‘미답다, 우습다, 미쁘다’는 ‘(민다) 믿업다, (웃다) 웃읍다, (민다) 믿브다’처럼 형성된 단어인데, 제19항 [붙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역사적인 현상으로는, ‘고프다(←꼴브다), 기쁘다(←깃브다), 나쁘다(←낫브다), 바쁘다(←밧브다), 슬프다(←숯브다)’ 따위도 이런 유형이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깎쪽이 | 깎꾸기 | 살살이 | 살사리 |
| 꿀꿀이 | 꿀꾸리 | 씩씩이 | 씩새기 |
| 눈깜짝이 | 눈깜짜기 | 오뚝이 | 오뚜기 |
| 더떨이 | 더퍼리 | 코납작이 | 코납자기 |
| 배불뚝이 | 배불뚜기 | 푸석이 | 푸서기 |
| 빠죽이 | 빠주기 | 홀쪽이 | 홀쭉기 |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 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 | |
|------|-------------|------|------|
| 개구리 | 귀뚜라미 | 기러기 | 깍두기 |
| 쟁과리 | 날라리 | 누더기 | 동그라미 |
| 두드러기 | <u>딱따구리</u> | 매미 | 부스러기 |
| 빠꾸기 | <u>얼루기</u> | 칼썩두기 | |

해설 통일안에는 ‘-하다’가 붙은 어근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다’가 붙는 어근까지 포함 시켰다.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제19항 및 제24항과 연관되는 규정인데, 예컨대 ‘깜짝깜짝-깜짝하다, 깜짝거리다, 깜짝이다, (눈)깜짝이’와 같이 나타나는 형식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어근 ‘깜짝-’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떨거리다)더떨이[輕率人], (빠죽거리다)빠죽이[易怒人], (살살거리다)살살이[奸人], (푸석하다)푸석이[匍物]’는 통일안에서 ‘더퍼리, 빠주기, 살사리, 푸서기’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그리고 ‘(깎쪽거리다)깎쪽이[銀錢]’는 사전에서 ‘깎쭉기’로 다루어지던 것이다. ‘(홀쭉하다)홀 쭉이’는 몸이 야위어 가냘픈 사람을, ‘(꿀꿀거리다)꿀꿀이’는 게걸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 또는 꿀꿀이죽(의 준말)을 이르는 말이다.

한편, ‘오뚝이[不倒翁]’는 사전에서 ‘오뚝이’로 다루던 것인데, 표준어 규정(제8항)에서 ‘오뚝이’로 바꾸었으며, 부사도 ‘오뚝이(<우뚝이)’로 적는다.(제25항 참조) 또, ‘(씩씩거리다)씩씩이’는 ‘ㄱ’을 이르는 말이다. ‘씩씩’이란 울음소리를 시늉하여 지은 것이긴 하지만, ‘씩씩거리다’와 거리가 먼 곤충의 이름은 ‘씩 새기’로 적는다.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구조이므로, ‘씩새기’로 적지 않는다.(제18항 참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 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명사의 경우는, 그 어근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딱따구리’는 통일안(제22항)에서 ‘딱다구리’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의성어 ‘딱딱’에 접미사 ‘-우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룩이[斑點]/얼루기[斑毛]

獸]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루기’로 적는다.

한편, ‘깍두기, 칼썩두기[切麪]’에서의 ‘깍둑, 썩둑’은 ‘깍둑거리다(〈꺅둑거리다), 썩둑거리다(〈삭둑거리다)에서의 ‘깍둑-, 썩둑-’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으나, 어근의 본뜻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부스럭거리다’란 의성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스럭이’로 적지 않는다.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깍썩이다 | 깍썩기다 | 속삭이다 | 속사기다 |
| 꾸벅이다 | 꾸벅기다 | 속덕이다 | 속더기다 |
| 끄덕이다 | 끄더기다 | 울먹이다 | 울머기다 |
| 뒤적이다 | 뒤쳐기다 | 움직이다 | 움지기다 |
| 들먹이다 | 들머기다 | 지껄이다 | 지꺼리다 |
| 망설이다 | 망서리다 | 퍼덕이다 | 퍼더기다 |
| 번득이다 | 번드기다 | 허덕이다 | 허더기다 |
| 번쩍이다 | 번찌기다 | 헐떡이다 | 헐떠기다 |

해설 접미사 ‘-이다’는 규칙적으로 널리 (여러 어근에) 결합한다. 예컨대 ‘꾸벅하다, 꾸벅거리다, 꾸벅이다’처럼 나타나는 형식에서 실질 형태소인 ‘꾸벅’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으면, 의태어(擬態語)인 ‘꾸벅꾸벅’과의 연관성이 이해되기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어근과 ‘이다’가 구별되게 적는 것이다.

| | |
|------------|------------|
| (간질간질)간질이다 | (간족간족)간족이다 |
| (꿈적꿈적)꿈적이다 | (끈적끈적)끈적이다 |
| (곰적곰적)곰적이다 | (덜렁덜렁)덜렁이다 |
| (땃적땃적)땃적이다 | (뒤적뒤적)뒤적이다 |
| (들썉들썉)들썉이다 | (펼럭펼럭)펼럭이다 |
| (홀썉홀썉)홀썉이다 | |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해설 ‘-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急)하다, 꾸준하다, 도저(到底)하다’처럼 접미사 ‘- 하다’가 결합하여 용언이 파생되는 어근 형태소를 말한다. 그리고 부사에 ‘-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란, 품사는 바뀌지 않으면서 발음 습관에 따라, 혹은 감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부사 형태에 ‘- 이’가 결합하는 형식을 말한다.

1. ‘- 이’나 ‘- 히’는 규칙적으로 널리(여러 어근에) 결합하는 부사와 접미사다. 그리하여 명사와 접미사 ‘- 이’나 동사, 형용사와 접미사 ‘- 하다’, ‘- 이다’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합하는 어근의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나란하다) 나란히 (넉넉하다) 넉넉히

(무뎠하다) 무뎠히 (속하다) 속히

(뚜렷하다) 뚜렷이 (버젓하다) 버젓이

그러나 ‘-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체로 분석되지 않으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반듯하다[正, 直]’의 ‘반듯-’에 ‘- 이’가 붙은 ‘반듯이(반듯하게)’와 ‘반드시[必]’는 뜻이 다른 단어다.

반듯이(반듯하게) 서라. 그는 반드시(꼭) 돌아온다.

2. 발음 습관에 따라, 혹은 감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부사 형태에 ‘- 이’가 결합된 경우는, 그 부사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곰곰이’는 ‘곰곰’을 표준어로 삼았었으나, 이번에 ‘곰곰이’도 인정하였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그리고 ‘더욱이, 일찍이’는 ‘더우기, 일찍이’(‘더욱, 일찍’은 준말로)로 적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더욱- 이, 일찍- 이’처럼 ‘부사+ - 이’의 구조로 설명된다. 또, ‘오뚝이’는 명사와 부사의 (표기) 형태가 동일한데, 표준어의 형태가 ‘오뚝이(<우뚝이>)’였던 것을 ‘오뚝이(<우뚝이>’로 바꾸었다.(표준어 규정 제8항 참조) 부사와 접미사 ‘- 이, - 히’의 구별은 제51항에서 다루었다.

제26항 ‘- 하다’나 ‘-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 하다’나 ‘-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텅텅하다 폭하다

2. ‘-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해설 1. 예시어 중 ‘술하다’는 어원적으로 명사 ‘술[物量]’에 형용사 ‘하다[多]’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술’에 접미사 ‘- 하다’가 결합된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술하다’ 이외의 단어들에 있어서는 어근(및 접미사)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 하다’는 어근 뒤에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되게 하는 요소이므로, 이 단어들에서의 ‘딱,

착' 따위도 어근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 하다'는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접미사다. 그러므로 '- 하다'가 결합된 형식임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형태상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하다 눅눅하다 단단하다 멍하다 뻥하다
성하다 옥하다 찹찹하다 칠칠하다 털털하다

2. '부질없이[부지럽씨], 상없이[상업씨], 시름없이[시르몹씨], 열없이[여 : 럽씨], 하염없이[하염몹씨]' 등을 통하여 '- 없다'가 결합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상없다, 시름없다' 따위를 파생어로 다룰 것이냐 합성어로 다룰 것이냐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례에 따라 접미사(- 없다) 결합 형식으로 잡아 본 항에서 다루었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 | |
|------|------|------|------|
| 국말이 | 꺾꽃이 | 꽃잎 | 끝장 |
| 물난리 | 밑천 | 부엌일 | 싫증 |
| 옷안 | 옷웃 | 젓몸살 | 첫아들 |
| 칼날 | 팔알 | 헛웃음 | 홀아비 |
| 홀몸 | 훈내 | 값없다 | 겉늬다 |
| 꿇주리다 | 낮잡다 | 맞먹다 | 받내다 |
| 변놓다 | 빛나가다 | 빛나다 | 새파랗다 |
| 셋노랑다 | 시꺼멓다 | 싯누렇다 | 엷나가다 |
| 엷누르다 | 엷든다 | 웁오르다 | 짓이기다 |
| 헛되다 | | | |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골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𪚩]'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해설 예시한 단어들은

(1)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것(합성어)

| | | | | |
|------|------|-----|-----|-----|
| 꽃잎 | 물난리 | 부엌일 | 옷안 | 젓몸살 |
| 칼날 | 팔알 | 흙내 | 끝장 | 밑천 |
| 싫증 | 값없다 | 겉늬다 | 국말이 | 빛나다 |
| 옷오르다 | 굶주리다 | 꺾꽃이 | 낮잡다 | 반내다 |
| 변놓다 | 엎누르다 | | | |

(2) 접두사가 결합한 것(파생어)

| | | | | |
|------|------|------|------|---------|
| 웃웃 | 헛웃음 | 홀몸 | 홀아비 | 맞먹다 |
| 빋나가다 | 새파랗다 | 셋노랗다 | 시꺼멓다 | shit누렇다 |
| 엇나가다 | 엇든다 | 짓이기다 | 헛되다 | |

처럼 나누어진다.

(1)에서 보인 ‘끝장, 밑천, 싫증’이 합성어나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끝장’의 ‘장’을 ‘초장(初場), 파장(罷場)’의 ‘장(場)’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한자어) 형태소로 해석되므로, ‘끝장’을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리고 ‘밑천’의 ‘천’은 ‘전(錢)’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밑(←밑절미) - 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또, ‘싫증’의 ‘증(症)’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되기 때문에(그리하여 [실증]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둘 이상의 어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거나,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파생어를 이룰 때, 그 사이에서 발음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꺾꽃이’는 ‘꺾다, 꽃다’란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꺾꽃이, 꺾꽃이’로 적지 않고, ‘반내다’는 ‘받다, 내다’란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반내다, 밋내다’로 적지 않는 것이다.

접두사 ‘새 - /시 - , 셋 - /shit - ’의 구별은

| | |
|------------|------------|
| 새까맣다, 시꺼멓다 | 새빨갳다, 시빨갳다 |
| 새파랗다, 시퍼렇다 | 새하얗다, 시히얗다 |

처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새 - /시 - ’를 붙이되, 어간 첫 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일 때는 ‘새 -’, 음성 계열 모음일 때는 ‘시 - ’로 적으며,

셋노랗다, shit누렇다

처럼 울림소리 앞에는 ‘셋 - /shit - ’으로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새노랗다, 시누렇다’는 바른 표기 형태가 아닌 것이다.

[붙임 1] ‘할아버지, 할아범’은 ‘한아버지, 한아범’이 바뀐 형태다. 곧, 옛말에서 ‘큰’이란 뜻을 표시하는 ‘한’이 ‘아버지, 아범’에 결합한 형태가 바뀐 것이다.

이 규정은,

① 어원은 분명하나,

한 - 아버지 한 - 아범

②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한→할

③ 다만, 실질 형태소의 기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과 같이 해석된다.

〔붙임 2〕 ‘골병’은 사전에서 ‘속 깊이 든 병, 심한 타격을 받은 손해’, ‘골탕’은 ‘소의 등골이나 머릿골에 녹말을 묻히고 달걀을 씌워, 맑은장국이 끓을 때 넣어 익힌 국’이라고 풀이되어 있어서, 그 어원적 형태가 ‘골(골수) - 병(病), 골(골수) - 탕(湯)’인지, ‘끓 - 병(病), 끓 - 탕(湯)’인지, 혹은 ‘골병(骨病), 골탕(骨湯)’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골탕’(속을 끓이는 걱정)의 앞부분은 ‘끓 - ’로 분석되지만, 뒷부분은 ‘탕(湯)’인지 ‘당’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며칠’은 ‘몇 - 일(日)’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니,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日)’이 결합한 형태라면 [(몇날→)면날]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나 어미, 조사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ㄷ’ 받침이 내리이어져 [며칠]로 발음된다. ‘이틀[二日]’도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단어다. 이 단어를 ‘인흘’이나 ‘잇흘’로 적는다면, ‘흘’은 ‘사흘, 나흘’ 등의 ‘흘’과 공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 잇’은 무슨 뜻의 형태소인지 알 수가 없다. 한자어 ‘이(二)’와 결부시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아재비’는 그 옛 형태가 ‘아자비’였으므로, ‘아스[弟] - 아비→(앗아비)아사비→아자비→아재비’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어 ‘아재비’를 ‘앗아비’로 분석하여 적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라비’도 접두사 ‘올 - ’과 ‘아비’로 분석되지 않는다.

‘엷신여기다’(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다.)는 ‘엷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ㄴ’음이 첨가될 환경(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엷이 여기다→[엷 : 찌녀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부리나케’(급하고 빠르게)는 ‘화급(火急)하게’와 대응되는 말이므로 ‘불이 나게’가 바뀌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발음 형태 [부리나케]로 볼 때는 ‘불이 날게’와 결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들은, 그 원형을 밝히려 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한편, ‘선부르다’(숨씨가 설고 어설프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서뿌르다’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설다’(경험이 없어 서투르다.)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제29항 규정을 적용하여 ‘(설부르다→)선부르다’로 적기로 하였다.

〔붙임 3〕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의 단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의 경우는 예외로 다른 것이다. ‘이[齒]’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 덧이’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ㄴ’음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 항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됨으로써 [송고시, 아피]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 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떨어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나는 ‘이’는 ‘간니[代生齒], 덧니, 틀니, ……; 가랑니[幼虱], 머릿니[頭髮蟲], ……」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

| | |
|----------------|-------------|
| 다달이(달 - 달 - 이) | 따님(딸 - 님) |
| 마되(말 - 되) | 마소(말 - 소) |
| 무자위(물 - 자위) | 바느질(바늘 - 질) |
| 부나비(불 - 나비) | 부삽(불 - 삽) |
| 부손(불 - 손) | 소나무(솔 - 나무) |
| 싸전(쌀 - 전) | 여단이(열 - 단이) |
| 우짚다(울 - 짚다) | 화살(활 - 살) |

해설 합성어나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발음되지 않는 형태로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의 경우는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ㄹ’은 대체로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였다.

‘ㄹ’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 | | |
|-----------|-------------|-----------|
| (날날이) 나날이 | (물논) 무논 | (물수리) 무수리 |
| (밀단이) 미단이 | (불넘기) 부넘기 | (아들님) 아드님 |
| (줄납시) 주낙 | (찰돌) 차돌[石英] | (찰조) 차조 |
| (찰지다) 차지다 | (하늘님) 하느님 | |

따위도 있다. 그리고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ㄹ’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부단(不斷), 부당(不當), 부동(不同, 不凍, 不動), 부득이(不得已), 부등(不等), 부적(不適), 부정(不正, 不眞, 不定), 부조리(不條理), 부주의(不注意), ……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 | |
|-------------|-----------|-----------|
| 반진고리(바느질 ~) | 사흔날(사흘 ~) | 삼진날(삼질 ~) |
| 선달(설 ~) | 순가락(술 ~) | 이튿날(이틀 ~) |
| 잔주름(잘 ~) | 푼소(풀 ~) | 선부르다(설 ~) |
| 잔다듬다(잘 ~) | 잔다랗다(잘 ~) | |

해설 ‘ㄹ’ 받침을 가진 단어(나 어간)가 다른 단어(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이 경우 역시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히어 적

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의 대상은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므로, 제7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단어로는

(나흘날) 나흘날 (잘갈다) 잘갈다 (잘갈리다) 잘갈리다
(잘널다) 잘널다 (잘다랗다) 잘달다 (잘타다) 잘타다

따위도 있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 | |
|------|-----|------|------|
| 고랫재 | 꿇밥 | 나룻배 | 나룻가지 |
| 넋가 | 넋가지 | 뒷갈망 | 맷돌 |
| 머릿기름 | 모깃불 | 못자리 | 바닷가 |
| 뱃길 | 뱃가리 | 부싷돌 | 선짓국 |
| 씻조각 | 아랫집 | 우렁잇속 | 잇자국 |
| 젓더미 | 조갯살 | 찻집 | 젓바퀴 |
| 킷값 | 핏대 | 햇별 | 햇바늘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맷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껏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꺾얼 뒷웃 두렛일 뒷일 뒷입맛
배꺾잇 웃잇 꺾잎 나뭇잎 땃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 | | |
|----|-----|-----|-----|-----|
| 꿇병 | 머릿방 | 뱃병 | 붓독 | 사갓밥 |
| 셋강 | 아랫방 | 자릿세 | 전셋집 | 찻잔 |
| 찻종 | 춧국 | 콧병 | 땃줄 | 텃세 |
| 핏기 | 햇수 | 혓가루 | 혓배 |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젓날 제삿날 훗날 텃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 | | |
|--------|--------|--------|
| 곳간(庫間) | 셋방(貰房) | 숫자(數字) |
| 차간(車間) | 뒷간(退間) | 회수(回數) |

예시 (1) 고유어끼리 결합한 합성어(및 이에 준하는 구조)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 앞 단어의 끝 모음 뒤가 폐쇄되는 구조로서,

- ①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나는 것
- ② 폐쇄시키는 음([ㄷ])이 뒤의 ‘ㄴ, ㅁ’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것
- ③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2) 두 글자(한자어 형태소)로 된 한자어 중, 앞 글자의 모음 뒤에서 뒤 글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6개 단어에 사이시옷을 붙여 적기로 한 것이다.

사이시옷 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 - 구멍, 배 - 다리, 새 - 집[鳥巢], 머리 - 말[序言]
- ② 개 - 똥, 보리 - 쌀, 허리 - 띠, 개 - 펄, 배 - 탈, 허리 - 춤
- ③ 개 - 값, 내 - 가[川邊], 배 - 가죽[腹皮], 새(←사이) - 길[間路]
귀 - 병(病), 기(旗) - 대, 세(貰) - 돈, 화(火) - 김
- ④ 배 - 놀이[船遊], 코 - 날[鼻線], 비 - 물[雨水], 이 - 몸[齒齦]
무시(無市) - 날, 보(洑) - 물, 패(牌) - 말
- ⑤ 깨 - 잎, 나무 - 잎, 뒤 - 옷, 허드레 - 일
가외(加外) - 일, 보(洑) - 일
- ⑥ 고 - 간(庫間), 세 - 방(貰房), 수 - 자(數字), 차 - 간(車間), 퇴 - 간(退間), 회 - 수(回數)
에서 ①~⑤는 모두 합성어이며, ⑥은 이에 준하는 한자어다. 그런데
- ①의 경우는,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 ②의 경우는, 뒤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이므로, 역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 ③의 경우는,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면서 뒤 단어의 첫소리가 경음화하여 [깁 : 값, 냇 : 깨]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어

갯값, 냇가, 뱃가죽, 셋길 귓병, 깃대, 셋돈, 핫김
으로 적는다.

④의 경우는,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면서 자음 동화 현상(ㄷ+ㄴ→ㄴ+ㄴ, ㄷ+ㅁ→ㄴ+ㅁ)이 일어나 [뱃놀이, 빈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어

뱃놀이, 콧날, 빗물, 잇몸 무식날, 붓물, 팻말
로 적는다. ‘팻말, 풋말’은 한자어 ‘패(牌), 표(標)’에 ‘말(말뚝)’(옛말에서 ‘ㅎ’국용어)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팻말, 풋말’로 적는 것이다. 다만, 한자어 ‘牌木末, 標木末’은 ‘패말, 표말’로 적어야 한다.

⑤의 경우는, 앞 단어 끝이 폐쇄되면서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음이 첨가되고, 동시에 동화 현상이 일어나 [깁닙→깁닙, 나뭇닙→나뭇닙]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어

갯잎, 나뭇잎, 뒷옷, 허드렛일
가윗일, 붓일

로 적는다.

⑥의 경우는,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6개 단어만은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
로 적는다.

이 설명에 따르면, ‘내과(內科), 이과(理科), 총무과(總務課), 장미과(薔薇科)’ 등은 3에서 다루어진 6개 이외의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며, ‘나리 - 과(科), 말선두리 - 과(科)’ 등은 ‘과’가 비교적 독립성이 약한 형태소이긴 하지만 앞의 고유어와의 사이에 경계가 인식되는 구조이므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나릿과, 말선두릿과
로 적는 것이다.

한편, 2(1)의 예시어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 우리말이나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茶’자의 새김[訓]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茶)’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 | | |
|-----------|---------|---------|
| 덥싸리(대ㅂ싸리) | 몹쌀(메ㅂ쌀) | 몹씨(벼ㅂ씨) |
| 입때(이ㅂ때) | 입쌀(이ㅂ쌀) | 접때(저ㅂ때) |
| 좁쌀(조ㅂ쌀) | 햅쌀(해ㅂ쌀) | |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 | |
|-------------|-----------|
| 머리카락(머리ㅎ가락) | 살코기(살ㅎ고기) |
| 수캐(수ㅎ개) | 수컷(수ㅎ것) |
| 수탉(수ㅎ닭) | 안팍(안ㅎ밖) |
| 암캐(암ㅎ개) | 암컷(암ㅎ것) |
| 암탉(암ㅎ닭) | |

해설 1. ‘싸리[荊], 쌀[米], 씨[種], 때[時]’ 등은 단어 첫머리에 ‘ㅂ’음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다.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 또는 접두사와 결합하는 경우, 두 형태소 사이에서 ‘ㅂ’음이 발음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합성어나 파생어에 있어서는 뒤의 단어가 주장이 되는 것이므로, ‘싸리, 쌀, 씨, 때’ 따위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첨가되는 ‘ㅂ’을 앞 형태소의 받침으로 붙여 적는 것이다. 이런 단어로는

냅뜨다 부릅뜨다 칩떠보다 힙싸다 힙쓸다
등도 있다.

한편, ‘덥싸리’는 사전에서 ‘대싸리’로 다루어지던 단어인데 표준어 규정(제17항)에서 ‘덥싸리’로 정하였다.

2. 옛말에서 ‘ㅎ’공용어이었던 ‘머리[頭], 살[肌], 수[雄], 암[雌], 안[內]’ 등에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ㅎ]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나는 대로(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암-, 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제7항 다만)에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쩌귀, 암돼지, 암평아리
 를 예시하였다.

제5절 준 말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기러기야 | 기러아 | 가지고, 가지지 | 갓고, 갓지 |
| 어제그저께 | 엇그저께 | 디디고, 디디지 | 딛고, 딛지 |
| 어제저녁 | 엇저녁 | | |

해설 단어 또는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려붙여 적는다. 곧, 실질 형태소가 줄어진 경우에는 줄어진 형태를 밝히어 적는 것이니, ‘어제그저께’에서 ‘어제’의 ‘ㄱ’이 준 형태는 ‘엇’으로, ‘가지고’에서 ‘가지’의 ‘ㅣ’가 준 형태는 ‘갓’으로 적는 것이다.

그런데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올라붙지 않고 받침 소리가 올라붙는 형식도 있다.

바둑 - 장기→박장기 어긋 - 매끼다→엇매끼다

바깥 - 벽→발벽 바깥 - 사돈→발사돈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기야’에서 ‘아기’의 ‘ㅣ’가 줄면 ‘악아’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가, 이리 오너라.’처럼 표현되는 형식에서의 ‘아가’는 ‘아가야’에서의 ‘야’가 줄어진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그것은 | 그건 | 너는 | 넌 |
| 그것이 | 그게 | 너를 | 널 |
| 그것으로 | 그걸로 | 무엇을 | 뭇을/무얼/뭇 |
| 나는 | 난 | 무엇이 | 뭇이/무에 |
| 나를 | 날 | | |

해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어떤 음이 줄어들거나 음절의 수가 줄어지는 것은, 그 본모양을 밝히지 않고 준 대로 적는다.

(그 애→개) 그 애는→개는→겐, 그 애를→개를→겔

(이 애→예) 이 애는→예는→엔, 이 애를→예를→엘

(저 애→재) 저 애는→재는→젠, 저 애를→재를→젤
 그리로→글로, 이리로→일로, 저리로→절로, 조리로→줄로
 그것으로→그걸로, 이것으로→이걸로, 저것으로→저걸로
 처럼 줄어지기도 한다. 다만 ‘아래로→알로’는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표준어 규정 제15항 [붙임] 참조)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 -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가아 | 가 | 가았다 | 갔다 |
| 나아 | 나 | 나았다 | 났다 |
| 타아 | 타 | 타았다 | 탤다 |
| 서어 | 서 | 서었다 | 세다 |
| 켜어 | 켜 | 켜었다 | 켰다 |
| 펴어 | 펴 | 펴었다 | 폈다 |

[붙임 1]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개어 | 개 | 개었다 | 갸다 |
| 내어 | 내 | 내었다 | 넸다 |
| 베어 | 베 | 베었다 | 봌다 |
| 세어 | 세 | 세었다 | 세다 |

[붙임 2]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하어 | 해 | 하었다 | 했다 |
| 더하어 | 더해 | 더하였다 | 더했다 |
| 흔하어 | 흔해 | 흔하였다 | 흔했다 |

해설 모음 ‘ㅏ, ㅑ’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들며, ‘-았-/ -었’이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지고 ‘ㅏ’만 남는다.

따아→따 따아서→따서 따아도→따도
 따았다→땀다 건너어→건너 건너어서→건너서
 건너어도→건너도 건너었다→건넸다

다만, ‘ㅏ’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ㅏ’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넓다 : 나아, 나아서, 나아도, 나아야, 나았다
 젓다 : 저어, 저어서, 저어도, 저어야, 저었다

[붙임 1] 어간 끝 모음 ‘ㅐ, ㅑ’ 뒤에 ‘-어, -었’이 붙을 때 ‘어’가 줄어들지기도 한다.

매어→매 매어라→매라 매었다→땀다 매어 두다→매 두다
 떼어→떼 떼어라→떼라 떼었다→땀다 떼어 놓다→떼 놓다

다만, 어간 모음 ‘ㅏ’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ㅐ’로 줄어드는 경우는 ‘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빈틈없이 (짜이어→) 짜어 있다.

우묵우묵 (파이어→) 패어 있다.

[붙임 2] ‘하다’는 ‘여’ 불규칙 용언이므로, ‘하아’로 되지 않고 ‘하여’로 된다. 이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진 형태는 ‘해’로 적는다.

하여→해 하여라→해라 하여서→해서 하였다→했다

제35항 모음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았 - / -었 -’이 어울려 ‘ㅓ/ㅕ, ㅖ/ㅗ’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꼬아 | 꽂 | 꼬았다 | 꿰다 |
| 보아 | 봐 | 보았다 | 봤다 |
| 쏘아 | 쐈 | 쏘았다 | 쐈다 |
| 두어 | 뒤 | 두었다 | 뒀다 |
| 쑤어 | 쑤 | 쑤었다 | 쑤다 |
| 주어 | 쑤 | 주었다 | 쑤다 |

[붙임 1] ‘농아’가 ‘ㅖ’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ㅓ’ 뒤에 ‘-어, -었 -’이 어울려 ‘ㅖ, ㅗ’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괴어 | 괘 | 괴었다 | 괘다 |
| 되어 | 돼 | 되었다 | 뒀다 |
| 뵈어 | 뵘 | 뵈었다 | 뵘다 |
| 쇠어 | 썰 | 쇠었다 | 썰다 |
| 쑤어 | 쑤 | 쑤었다 | 쑤다 |

해설 모음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 -어’가 붙어서 ‘ㅓ/ㅕ’로 줄어드는 것은 ‘ㅓ/ㅕ’로 적는다.

오아→와 오아도→와도 오아서→와서 오았다→왔다

추어→쑤 추어서→쑤서 추어야→쑤야 추었다→쑤다

다만, 제18항 4에서 다루어진 ‘푸다’의 경우는 ‘푸어→퍼’처럼 어간 모음 ‘ㅕ’가 줄어들므로, ‘뽀’로 적지 않는다.

[붙임 1] 예컨대 ‘종다’의 어간 ‘종 -’에 어미 ‘-아’가 붙으면 ‘종아’가 되는데, 이 ‘종아’가 줄어들어서 ‘죤’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다’(규칙 동사)의 경우는

농아→(노아→)뵘

농아라→(노아라→)뵘라

놓았다→(노았다→)뒀다

처럼, 어간 받침 ‘ㅎ’이 줄면서 두 음절이 하나로 줄어진다. 그리하여 ‘놓다’의 경우는 예외적인 형식을 인정한 것이다.

[붙임 2] 어간 모음 ‘ㅛ’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지는 것은 ‘내’로 적는다.

되다 - 일이 뜻대로 (되어→)돼 간다.

만나게 (되어서→)돼서 기쁘다.

일이 잘 (되어야→)돼야 한다.

나도 가게 (되었다→)됐다.

와 같이 줄어지는 형식을 적용하면, 예컨대 ‘죄다, 쪼다’ 따위도

죄다 - 나사를 (죄어→)쥌 본다.

나사를 (죄어야→)쥌야 한다.

나사를 (죄었다→)쥌다.

쪼다 - 별을 (쪼어라→)쪼라.

별을 (쪼어야→)쪼야 한다.

별을 (쪼었다→)쪼다.

처럼 줄어진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ㅿ’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가지어 | 가져 | 가지었다 | 가졌다 |
| 견디어 | 견터 | 견디었다 | 견뎠다 |
| 다니어 | 다녀 | 다니었다 | 다녔다 |
| 막히어 | 막혀 | 막히었다 | 막혔다 |
| 버티어 | 버터 | 버티었다 | 버텼다 |
| 치이어 | 치여 | 치이었다 | 치였다 |

해설 접미사 ‘-이, -히, -기, -리, -으키, -이키’ 뒤에 ‘-어’가 붙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녹이어→녹여

먹이어서→먹여서

숙이었다→숙였다

업히어→업혀

입히어서→입혀서

잡히었다→잡혔다

끓기어→끓겨

남기어야→남겨야

옮기었다→옮겼다

굴리어→굴려

날리어야→날려야

돌리었다→돌렸다

일으키어→일으켜

돌이키어→돌이켜

제37항 ‘ㄱ, ㅋ, ㆁ, ㄷ, ㅌ’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개, 켜, 괴, 귀, 괴’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싸이다 | 쌌다 | 누이다 | 눅다 |
| 퍼이다 | 폈다 | 뜨이다 | 퓌다 |
| 보이다 | 봔다 | 쓰이다 | 썩다 |

해설 어간 끝 모음 ‘ㄱ, ㅋ, ㆁ, ㄷ, ㅌ’ 뒤에 ‘-이-’가 결합하여 ‘개, 켜, 괴, 귀, 괴’로 줄어지는 것은 ‘개, 켜, 괴, 귀, 괴’로 적는다.

까이다[被擧]→깨다 커이다[被鋸]→켜다 쏘이다→썩다

꾸이다[現夢]→꿔다 트이다→튀다

‘놓이다’가 ‘뇌다’로 줄어지는 경우도 ‘뇌다’로 적는다. 또, 형용사화 접미사 ‘-스럽(다)’에 ‘-이-’가 결합한 ‘스러이’가 ‘-스레’로 줄어지는 경우도 준 대로 적는다

새삼스러이→새삼스레 천연스러이→천연스레

제38항 ‘ㄱ, ㆁ, ㄷ, ㅌ’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싸이어 | 쌌어 싸여 | 뜨이어 | 퓌어 |
| 보이어 | 봔어 보여 | 쓰이어 | 썩어 쓰여 |
| 쏘이어 | 썩어 쏘여 | 트이어 | 튀어 트여 |
| 누이어 | 눅어 누여 | | |

해설 어간 끝 모음 ‘ㄱ, ㆁ, ㄷ, ㅌ’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줄어질 때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이’가 앞(어간) 음절에 올라붙으면서 줄어지기도 하고, 뒤(어미) 음절에 내리어지면서 줄어지기도 한다.

까이어→깨어/까여

꼬이어→퓌어/꼬여

누이어→눅어/누여

뜨이어→퓌어/(눈이)뜨여

쏘이어→썩어/쏘여

트이어→튀어/트여

‘놓이다’의 준말 ‘뇌다’의 경우는 ‘뇌어’로 적지만, ‘놓이어’가 줄어진 형태는 ‘놓여’로 적는다. 다만, ‘퓌어쓰기, 퓌어 쓰다, 퓌어 놓다’ 따위는 관용상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뜨이우다)퓌우다, (쓰이우다)썩우다, (트이우다)튀우다’처럼 ‘-이’ 뒤에 다시 ‘-우’가 붙는 형식에서는, ‘이’를 앞 음절에 올려붙여 적는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
| 적지 않은 | 적잖은 |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

해설 제36항 규정을 적용하면, ‘-지 않-’, ‘-치 않-’이 줄어지면 ‘잖, 찹’이 된다. 그러나 줄어진 형태가 하나의 단어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구태여 그 원형과 결부시켜 준 규정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서 소리나는 대로 ‘잖, 찹’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실상, 사전에서 준말로 다루어지고 있는

(깔밋하지 않다→) 깔밋잖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잖다
(남부럽지 않다→) 남부럽잖다 (의젓하지 않다→) 의젓잖다
(대단하지 않다→) 대단찮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시원하지 않다→) 시원찮다

따위와, 준말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지 않다→그렇잖다 적지 않다→적잖다
무심하지 않다→무심찮다 편안하지 않다→편안찮다

따위와의 구별은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되기 쉬운 것이며, 또 표기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지 않-’, ‘-치 않-’이 한 개 음절로 줄어지는 경우는 모두 ‘잖, 찹’으로 적도록 하였다.

두렵지 않다→두렵잖다 많지 않다→많잖다
예사롭지 않다→예사롭잖다 의롭지 않다→의롭잖다
성실하지 않다→성실찮다 심심하지 않다→심심찮다
평범하지 않다→평범찮다 허술하지 않다→허술찮다

‘귀찮-’, ‘점잖-’처럼 어간 끝소리가 ‘ㅎ’인 경우는, [찬]으로 소리나더라도 ‘귀찮지 않다→귀찮잖다, 점잖지 않다→점잖잖다’로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간편하게 | 간편케 | 다정하다 | 다정타 |
|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 정결하다 | 정결타 |
| 가하다 | 가타 | 흔하다 | 흔타 |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 | | | |
|------|------|------|-------|
| 그렇다 | 그렇고 | 그렇지 | 그렇든지 |
| 아무렇다 | 아무렇고 | 아무렇지 | 아무렇든지 |
| 어떻다 | 어떻고 | 어떻지 | 어떻든지 |
| 이렇다 | 이렇고 | 이렇지 | 이렇든지 |
| 저렇다 | 저렇고 | 저렇지 | 저렇든지 |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거북하지 | 거북지 |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 못하지 않다 | 못지않다 |
|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 섭섭하지 않다 | 섭섭지 않다 |
|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익숙하지 않다 | 익숙지 않다 |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 | | | | | |
|-----|-----|------|-----|-----|-----|
| 결단코 | 결코 | 기필코 | 무심코 | 아무튼 | 요컨대 |
| 정녕코 | 필연코 | 하마터면 | 하여튼 | 한사코 | |

해설 제15항에서는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일안(제56항)에서와 같이 ‘흔하다’가 준 형태는 ‘흔^ㅎ다’ 또는 ‘흙^ㅎ다’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 소리 ‘ㅎ’을 사이 글자로 적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한글 맞춤법의 체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형식이 된다. 곧, 한글 맞춤법의 체계는 말소리를 음절 단위로 적는 것인데, 다만 이 준 소리 ‘ㅎ’만은 한 개 자음이 독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기의 형식이나 인쇄물의 체재에서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다.

둘째는, 대중이 사이 글자 ‘ㅎ’의 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춤법은 교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는 게 통레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규정을 지향(指向)하는 것이므로, 대중이 이해하고 대중이 준용(準用)할 수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어간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남는 경우”를 이해하고 사이 글자 ‘ㅎ’을 쓰는 일은 아무래도 대중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통일안 제56항(준 소리 ‘ㅎ’ 관계)은 교과서 표기에서나 제대로 지켜졌을 뿐 유아무야(有耶無耶)한 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이 경우도 예외로 다루어, 소리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 | | |
|--------|--------|---------------|
| 가(可)하다 | 부(否)하다 | →가타 부타(→가타부타) |
| 무능하다 | →무능타 | 부지런하다→부지런타 |
| 아니하다 | →아니타 | 감탄하게→감탄케 |
| 달성하게 | →달성케 | 실망하게→실망케 |

| | |
|------------|------------|
| 당(當)하지→당치 | 무심하지→무심치 |
| 허송하지→허송치 | 분발하도록→분발토록 |
| 실천하도록→실천토록 | 추진하도록→추진토록 |
| 결근하고자→결근코자 | 달성하고자→달성코자 |
| 사임하고자→사임코자 | 청하건대→청건대 |
| 회상하건대→회상건대 | |

[붙임 1] 준말에 있어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받침으로 붙여 적는다. 이 경우 한 개 단어로 다루어지는 준말의 기준은 관용에 따르는데, 대체로 지시 형용사(指示形容詞)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진 형태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하다→) 이렇다, 이렇게, 이렇고, 이렇지, 이렇거나, ……

(아니하다→) 앓다, 앓게, 앓고, 앓지, 앓든지, 앓도록, ……

[붙임 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올림 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갑갑하지 앓다→갑갑지 앓다→갑갑잖다
 깨끗하지 앓다→깨끗지 앓다→깨끗잖다
 넉넉하지 앓다→넉넉지 앓다→넉넉잖다
 답답하지 앓다→답답지 앓다→답답잖다
 못하지 앓다→못지앓다(→못잖다)
 생각하다 못하여→생각다 못해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익숙하지 못하다→익숙지 못하다

[붙임 3] 어원적인 형태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사로 전성된 단어는 그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이들 단어는 용언적 기능(서술 기능)을 지니지 않을 뿐 아니라, 불변화사(不變化詞)인 부사는 활용의 형태와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19항 [붙임 2] (3)에서 다루어진 조사 ‘나마, 부터, 조차’의 경우와도 상통하는 규정이다. 이런 단어의 경우는 대개 원형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준말의 유형에서 제외할 만한 것이지만 그 표기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쉬운 것이어서 여기서 다루어 놓았다.

예시어 중, ‘아무튼, 하여튼’은 사전에서 ‘아뭇튼, 하엿튼(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바꾸었다. 그러나 ‘이렇튼(지), 그렇튼(지), 저렇튼(지), 아무렇튼(지), 어떻튼(지)’ 따위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지)’으로 적지 않는다. 이 경우, 부사 ‘어떻든’은 형용사 ‘어떻든(지)’이 부사로 전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하다’형 용언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 열흘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등도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 사

재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 | | |
|------|-------|-----|-------|
| 꽃이 | 꽃마지 | 꽃밖에 | 꽃에서부터 |
| 꽃으로만 | 꽃이나마 | 꽃이다 | 꽃입니다 |
| 꽃처럼 | 어디까지나 | 거기도 | 멀리는 |
| 웃고만 | | | |

해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從屬的)인 관계로 존재한다.

조사는 그것이 결합되는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 | |
|---------|----------|----------|
| 집에서처럼 | 학교에서만이라도 | 여기서부터입니다 |
| 어디까지입니까 | 나가면서까지도 | 들어가기는커녕 |
| 아시다시피 | 읍니다그러 | “알았다.”라고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재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 |
|---------------|---------------|
| 나는 것이 힘이다. | 나도 할 수 있다. |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이를 만났다. |
|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해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다.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너, 너, 너 등은 파열음이다.”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2)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 뜻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옷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3) ‘대로’가 ‘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이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4) ‘만큼’이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5)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 만에 떠나갔다.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6)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7) ‘차(次)’가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겹쳐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8)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한 **판** 두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 |
|--------|-------|-------|
| 한 개 | 차 한 대 | 금 서 돈 |
| 소 한 마리 | 옷 한 벌 | 열 살 |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복어 한 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는 그 앞의 수 관형사와 띄어 쓴다.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열 길 물 속
은 닢 냥(-쫼) 바느질 실 한 닢 엽전 두 닢
금 서 돈(-쫼)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실 한 바람
장작 한 바리 열 바퀴 새끼 두 발
국수 한 사리 벼 석 섬 밥 한 술
흙 한 줌 집 세 채 밤 한 톨
김 네 톨 풀 한 포기

다만, 수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제일편 제삼 장→제삼장 제칠 항→제칠항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이십칠대 (제)오십팔 회→오십팔회
(제)육십칠 번→육십칠번 (제)구십삼 차→구십삼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제)일 학년→일학년 (제)구 사단→구사단
(제)칠 연대→칠연대 (제)삼 층→삼층
(제)팔 단→팔단 (제)육 급→육급
(제)16 통→16통 (제)274 번지→274번지

제1 연구실→제1연구실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
→ 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

여덟 시 오십구 분 → 여덟시 오십구분
 다만,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35원 70관 42마일 26그램 3년 6개월 20일간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해설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너무 작게 갈라 놓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의미 파악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기할 때 십표를 치는 것처럼 세 자리 단위로 띄어서,

십 이억삼천사백 오십육만칠천 육백구십팔(1,234,567,698)

과 같이 띄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으나, ‘십’과 ‘이억’, ‘사백’과 ‘오십육만’이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형식이 되므로 ‘만, 억, 조, ……」 단위로 띄어 쓰기로 한 것이다.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일금 :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 일백칠십육만오천원임.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 |
|-----------|--------------|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 청군 대 백군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 이사장 및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

해설 (1)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 형태소다. ‘국장 겸 과장’ 같은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의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장관 겸 부총리 친구도 만날 겸 구경도 할 겸

(2) ‘청군 대 백군’의 경우도, 한문 구조에서는 ‘대(對)’가 뒤의 ‘백군’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지만, 예컨대 “윗마을 대 아랫마을, 다섯 대 셋”처럼 고유어 사이에서 ‘상대하는’, 또는 ‘짜이 되는, 비교되는’ 같은 뜻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 대 일본 남자 대 여자 5 대 3

그러나 “대(對)를 이룬다.”처럼 쓰이는 경우는 자립 명사이며, 또 ‘대미(對美) 수출, 대일(對日) 무역’과 같이, ‘대’가 앞뒤 두 단어에 관계되지 않는 구조일 때는, 뒤의 형태소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내지(乃至)’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그 중간을 줄일 때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나, 흔히 ‘혹은, 또는’ 같은 뜻을 표시하므로 접속 부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하나 내지 넷 열흘 내지 보름 경주 내지 포항

(4) ‘및’은 ‘그 밖에도 또, ……와 또’처럼 풀이되는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다.

위원장 및 위원들 사과 및 배, 복숭아

(5)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 따위는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ㄴ, ㄹ, ㅁ, ㅇ 등은 올림소리다.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사과, 배, 복숭아 등속을 사 왔다.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해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좀 더 큰 이 새 집

처럼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減退)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좀더 큰 이 새 집

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곳 저 곳→이곳 저곳 내 것 네 것→내것 네것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한 잔 술→한잔 술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훨씬 더 큰 새 집→(×)훨씬 더큰 새집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

처럼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더 못 간다(×더못 간다) 꽤 안 온다(×꽤안 온다)

늘 더 먹는다(×늘더 먹는다)

와 같이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ㄱ | ㄴ |
|--------------|-------------|
|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
|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
|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
|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
| 그 일은 할 만하다. | 그 일은 할만하다. |
| 일이 될 법하다. | 일이 될법하다. |
| 비가 올 성싶다. | 비가 올성싶다. |
| 잘 아는 척한다. | 잘 아는척한다.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보조 용언은 (1)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2)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을 가리킨다.

제15항 [붙임 1]에서 다루어진 ‘늘어나다, 돌아가다, 접어들다’처럼, ‘-아/-어’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된 단어의 예가 꽤 많다. 그리고 예컨대 ‘놀아나다, 늘어나다’에서의 ‘나다’와 ‘고난을 겪어 냈다.’에서의 ‘나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얼른 생각하기로는 양자의 구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어’ 뒤에 탄 단어가 연결되는 형식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 붙여 쓰고 어떤 경우에는 두 단어로 다루어 띄어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곤혹을 겪기가 쉽다. 그리하여 ‘-아/-어’ 뒤에 붙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일관성 있는 표기 체계를 유지하려는

뜻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 보조 용언 | 원 칙 | 허 용 |
|---------|------------------|-------------|
| 가다(진행) | 늘어 간다, 되어 간다 | 늘어간다, 되어간다 |
| 가지다(보유) | 알아 가지고 간다 | 알아가지고 간다 |
| 나다(종결) | 겪어 났다, 견뎌 났다 | 겪어났다, 견뎌났다 |
| 내다(종결) | 이겨 낸다, 참아 냈다 | 이겨낸다, 참아냈다 |
| 놓다(보유) | 열어 놓다, 적어 놓다 | 열어놓다, 적어놓다 |
| 대다(강제) | 떠들어 댄다 | 떠들어댄다 |
| 두다(보유) | 알아 둔다, 기억해 둔다 | 알아둔다, 기억해둔다 |
| 드리다(봉사) | 읽어 드린다 | 읽어드린다 |
| 버리다(종결) | 놓쳐 버렸다 | 놓쳐버렸다 |
| 보다(시행) | 뛰어 본다, 써 본다 | 뛰어본다, 써본다 |
| 쌍다(강제) | 울어 쌍는다 | 울어쌍는다 |
| 오다(진행) | 참아 온다, 견뎌 온다 | 참아온다, 견뎌온다 |
| 지다(피동) | 이루어진다, 써진다, 예뻐진다 | |

그러나 ‘-아/ -어’ 뒤에 ‘서’가 줄어진 형식에서는 뒤의 단어가 보조 용언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삼아) 고기를 잡아 본다→잡아본다. <허용>

고기를 잡아(서) 본다(×잡아본다).

(그분의) 사과를 깎아 드린다→깎아드린다. <허용>

사과를 깎아(서) 드린다(×깎아드린다).

한편,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도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다.

| 보조 용언 | 원 칙 | 허 용 |
|-------|----------|---------|
| 양하다 | 학자인 양한다. | 학자인양한다. |
| 체하다 | 모르는 체한다. | 모르는체한다. |
| 듯싶다 | 올 듯싶다. | 올듯싶다. |
| 뻔하다 | 놓칠 뻔하였다. | 놓칠뻔하였다. |

다만.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동사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조사가 개입되는 경우는, 두 단어(본 용언과 의존 명사) 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제42항 규정과도 연관되므로, 붙여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본 용언이 합성어인 경우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 쓰도록 한 것이다.

아는 체를 한다(×아는체를한다).

비가 올 듯도 한다(×올듯도하다).

값을 물어만 보고(×물어만보고).

믿을 만한 하다(×믿을만은하다).

밀어내 버렸다(×밀어내버렸다).

잡아매 둔다(×잡아매둔다).

매달아 놓는다(×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집어넣어둔다).

‘물고늘어져 본다, 파고들어 본다’ 같은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그런데 합성 동사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도록 한 것은, 그 표기 단위가 길어짐을 피하려는 것이므로, 예컨대

나 - 가 버렸다→나가버렸다 빛 - 나 보인다→빛나보인다

손 - 대 본다→손대본다 잡 - 매 준다→잡매준다

따위처럼,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 둘 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도와 줄 법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처럼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기억해둘 만하다 읽어볼 만하다

도와줄 법하다 되어가는 듯하다

와 같이,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해설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성은 혈통을 표시하며,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부호(識別符號)이므로, 순수한 고유 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붙여 쓰는 게 관용 형식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성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최학수(崔學洙) 김영애(金榮愛) 유버들(柳 -)

정송강(鄭松江) ('송강'은 호) 이태백(李太白) ('태백'은 자)

다만, 예컨대 '남궁수, 황보영' 같은 성명의 경우, '남/궁수, 황/보영'인지 '남궁/수, 황보/영'인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강인구 씨 강 선생 인구 군

총장 정영수 박사 백범 김구 선생 계 계장(桂係長)

사 사장(史社長) 여 여사(呂女史) 주 주사(朱主事)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의 경우도 본 항 규정이 적용된다.

소정방(蘇定方) 이세민(李世民) 장개석(莊介石)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ㄱ | ㄴ |
|--------------|------------|
| 대한 중학교 | 대한중학교 |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해설 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 / 인문 대학 / 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지고,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 / 재동 지점 / 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원칙) 서울 대공원 관리 사업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허용)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다만, ‘부속 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학교

(허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ㄱ | ㄴ |
|------------|----------|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만성골수성백혈병 |
| 중거리 탄도 유도탄 | 중거리탄도유도탄 |

예시 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원칙 | 허용 |
|--------------------|-----------|
| 만국 음성 기호(萬國音聲記號) | 만국음성기호 |
|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 | 긴급재정처분 |
| 무한 책임 사원(無限責任社員) | 무한책임사원 |
| 배당 준비 적립금(配當準備積立金) | 배당준비적립금 |
| 손해 배상 청구(損害賠償請求) | 손해배상청구 |
| 관상 동맥 경화증(冠狀動脈硬化症) | 관상동맥경화증 |
| 급성 복막염(急性腹膜炎) | 급성복막염 |
| 지구 중심설(地球中心說) | 지구중심설 |
| 탄소 동화 작용(炭素同化作用) | 탄소동화작용 |
| 해양성 기후(海洋性氣候) | 해양성기후 |
|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 두팔들어가슴벌리기 |
| 무릎 대어 돌리기 | 무릎대어돌리기 |
| 여름 채소 가꾸기 | 여름채소가꾸기 |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간단한 도면 그리기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제6장 그 밖의 것

제5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 | | | |
|-------|------|-------|-----|
| 가בות이 | 깨끗이 | 나בות이 | 느긋이 |
| 둥긋이 | 따뜻이 | 반듯이 | 버젓이 |
| 산뜻이 | 의젓이 | 가까이 | 고이 |
| 날카로이 | 대수로이 | 번거로이 | 많이 |
| 적이 | 헛되이 | 겉겹이 | 번번이 |
| 일일이 | 집집이 | 틈틈이 | |

2. ‘히’로만 나는 것

| | | | |
|-----|----|----|-----|
| 극히 | 급히 | 딱히 | 속히 |
| 작히 | 족히 | 특히 | 엄격히 |
| 정확히 | | | |

3. ‘이, 히’로 나는 것

| | | | |
|-----|-----|-----|-----|
| 솔직히 | 가만히 | 간편히 | 나른히 |
| 무단히 | 각별히 | 소홀히 | 쓸쓸히 |
| 정결히 | 과감히 | 꼼꼼히 | 심히 |
| 열심히 | 급급히 | 답답히 | 쉽쉽히 |
| 공평히 | 능히 | 당당히 | 분명히 |
| 상당히 | 조용히 | 간소히 | 고요히 |
| 도저히 | | | |

예시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는 규정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로만 나는 것, [히]로만 나는 것이란 실상 발음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따라서 예시된 단어 이외의 경우는 자칫 기록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성이 제시될 수 있다. 음운 형태는 발음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규칙성에 대해서도 이견(異見)이 없지 않으리라 생

각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이’로 적는 것

①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 | | | |
|-----|-----|-------|-----|
| 간간이 | 겹겹이 | 골골살살이 | 곳곳이 |
| 길길이 | 나날이 | 다달이 | 땀땀이 |
| 뭉뭉이 | 번번이 | 살살이 | 알알이 |
| 앞앞이 | 줄줄이 | 째째이 | 철철이 |

② ‘ㅅ’ 받침 뒤

| | | | |
|-----|-------|-----|-----|
| 기웃이 | 나긋나긋이 | 남짓이 | 뜨뜻이 |
| 버젓이 | 번듯이 | 빠듯이 | 지긋이 |

③ ‘ㄴ’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 | | | |
|------|-------|-----|------|
| 가벼이 | 괴로이 | 기꺼이 | 너그러이 |
| 부드러이 | 새로이 | 쉬이 | 외로이 |
| 즐거이 | - 스러이 | | |

④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 | | | |
|-----|----|-----|----|
| 같이 | 굳이 | 깊이 | 깊이 |
| 높이 | 많이 | 실없이 | 적어 |
| 헛되이 | | | |

⑤ 부사 뒤(제25항 2 참조)

| | | | |
|-----|-----|-----|-----|
| 곰곰이 | 더욱이 | 생긋이 | 오뎅이 |
| 일찍이 | 히죽이 | | |

(2) ‘히’로 적는 것

①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

| | | | |
|-----|-----|-----|-----|
| 극히 | 급히 | 딱히 | 속히 |
| 족히 | 엄격히 | 정확히 | 간편히 |
| 고요히 | 공평히 | 과감히 | 급급히 |
| 꼼꼼히 | 나른히 | 능히 | 답답히 |

예시된 단어 중, ‘도저히, 무단히, 열심히’ 등은, ‘-하다’가 결합한 형태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도저(到底)하다, 무단(無斷)하다, 열심(熱心)하다’ 등이 사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②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어진 형태

(익숙히→) 익히 (특별히→) 특히

③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와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는 익어진 발음 형태대로 ‘히’로 적는다.

작히(어찌 조그만큼만, 오죽이나)

부사와 접미사 ‘이/히’의 구별 문제는, 표준어 사정(‘표준어 모음’ 발간)에서 더 검토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 규칙성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 본음으로 나는 것 | 속음으로 나는 것 |
|-----------|----------------------------|
| 승낙(承諾) |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
| 만난(萬難) | 곤란(困難), 논란(論難) |
| 안녕(安寧) | 의령(宜寧), 회령(會寧) |
| 분노(忿怒) |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
| 토론(討論) | 의논(議論) |
| 오륙십(五六十) | 오뉴월, 유월(六月) |
| 목재(木材) | 모과(木瓜) |
| 십일(十日) |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
| 팔일(八日) | 초파일(初八日) |

해설 속음은 세속에서 널리 사용되는 익은소리(습관음)이므로, 속음으로 된 발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게 되며, 따라서 맞춤법에서도 속음에 따라 적게 된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하나하나가 어휘 형태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본음 형태와 속음 형태는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인 것이다.

이 밖에도, 불교 용어의

보 리(菩提)/제공(提供)

도 량(道場)(불도를 닦는 깨끗한 마당)/도장(道場)(무예를 닦는 곳)

보시(布施)/공포(公布)

따위라든가,

본 택(本宅), 시 택(媳宅), 택 내(宅內)/자택(自宅)

모 란(牧丹)/단심(丹心)

통 찰(洞察)/동굴(洞窟)

사 탕(砂糖), 설 탕(雪糖)/당분(糖分)

등과 같이, 속음으로 적는 단어가 많이 있다.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 (으)르거나 | - (으)르껴나 | - (으)르지니라 | - (으)르찌니라 |
| - (으)르길 | - (으)르꺄 | - (으)르지라도 | - (으)르찌라도 |
| - (으)르게 | - (으)르꺄 | - (으)르지어다 | - (으)르찌어다 |
| - (으)르세 | - (으)르꺄 | - (으)르지언정 | - (으)르찌언정 |
| - (으)르세라 | - (으)르꺄라 | - (으)르진대 | - (으)르꺄대 |
| - (으)르수록 | - (으)르꺄록 | - (으)르진저 | - (으)르꺄저 |
| - (으)르시 | - (으)르꺄 | - 올시다 | - 올꺄다 |
| - (으)르지 | - (으)르꺄 | | |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 (으)르까? - (으)르꺄? - (스)르니까?
- (으)리까? - (으)르꺄냐?

해설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경우, 규칙성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일 때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 르껴나, - 르꺄, - 르꺄, ……’처럼 적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 르까 - 르꺄 - 르꺄냐

(- 나이까 - 더이까 - 리까 - 르니까/ - 습니까 - 르디까/ - 습디까)

등은 된소리로 적는다. 이것은, 1957년 6월 30일 한글 학회 총회에서 결정한, 통일안 보유(補遺)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이미 널리 익어져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관용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 르꺄’는 ‘ㄹ꺄’로 적던 것인데,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예사소리 형태로 통일한다는 뜻에서 ‘ㄹ꺄’로 바꾼 것이다.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ㄱ | ㄴ |
|------|------|-------|-------|
| 심부름꾼 | 심부름꺄 | 귀때기 | 꺄대기 |
| 익살꾼 | 익살꺄 | 불때기 | 꺄대기 |
| 일꾼 | 일꺄 | 판자때기 | 꺄대기 |
| 장꾼 | 장꺄 | 뒤꺄치 | 꺄꺄치 |
| 장난꾼 | 장꺄꺄 | 팔꺄치 | 꺄꺄치 |
| 지꺄꾼 | 꺄꺄꺄 | 이꺄꺄기 | 꺄꺄꺄기 |
| 꺄꺄꺄 | 꺄꺄꺄 | 꺄꺄꺄기 | 꺄꺄꺄기 |
| 꺄꺄꺄 | 꺄꺄꺄 | 꺄꺄꺄다 | 꺄꺄꺄다 |
| 꺄꺄꺄 | 꺄꺄꺄 | 꺄꺄꺄꺄다 | 꺄꺄꺄꺄다 |

예시 (1) ‘- 군/ - 궂’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 | | | |
|------|------|-----|------|
| 개평꾼 | 거간꾼 | 결꾼 | 구경꾼 |
| 나무꾼 | 낙시꾼 | 난봉꾼 | 내왕꾼 |
| 노름꾼 | 농사꾼 | 도망꾼 | 땅꾼 |
| 막별이꾼 | 만석꾼 | 말쌍꾼 | 목도꾼 |
| 몰이꾼 | 봉 죽꾼 | 사기꾼 | 사냥꾼 |
| 소리꾼 | 술꾼 | 씨름꾼 | 장타령꾼 |
| 정탐꾼 | 주정꾼 | 짐꾼 | 투전꾼 |
| 해살꾼 | 협잡꾼 | 휘방꾼 | 흥정꾼 |

(2) ‘- 갈/ - 깔’은 ‘깎’로 통일하여 적는다.

맛깎 태깎(態-)

(3) ‘- 대기/ - 때기’는 ‘때기’로 적는다.

거적때기 나무때기 등때기 배때기
송판때기(松板-) -판때기(널-) 팔때기

(4) ‘- 굶치/ - 꼼치’는 ‘꿈치’로 적는다.

발꿈치 발뒤꿈치

(5) ‘- 배기/ -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고,

귀통배기 나이배기 대짜배기 육자배기(六字-)

주정배기(酒醒-) 포배기 혀짤배기

둘째, 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으며, (제5항 다만 참조)

뚝배기 학배기[蜻幼蟲]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빼기’로 적는다.

고들빼기 그루빼기 대갈빼기 머리빼기 재빼기[嶺頂]

곱 빼기 과녁 빼기 밥 빼기 악착 빼기 앞둑 빼기

앞작 빼기 억척 빼기 엷둑 빼기 엷 빼기 엷적 빼기

(6) ‘- 적다/ - 꺾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고,

괘다리적다 괘달머리적다 판기적다 열통적다

둘째, ‘적다[少]’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어의 경우는 ‘적다’로 적으며,

맛적다(맛이 적어 싱겁다)

셋째, ‘적다[少]’의 뜻이 없이, [꺾다]로 발음되는 경우는 ‘꺾다’로 적는다.

맥 꺾다 밋 꺾다 해망 꺾다 행망 꺾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
|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 마추다 |
| 뺨치다(다리를 뺨친다. 멀리 뺨친다.) | 빼치다 |

해설 ‘주문(注文)하다’란 뜻의 단어는 ‘마추다’로, ‘맞게 하다’란 뜻의 단어는 ‘맞추다’로 쓰던 것을, 두 가지 경우에 마찬가지로 ‘맞추다’로 적는다.

양복을 맞춘다. 구두를 맞춘다. 맞춤 와이셔츠

입을 맞춘다. 나사를 맞춘다. 차례를 맞춘다.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닿다, 멀리 연하다’란 뜻일 때는 ‘뺨치다’로, ‘뺨다, 뺨지르다’의 강세어는 ‘뺨치다’로 쓰던 것을, 구별 없이 ‘뺨치다’로 적는다.

세력이 남극까지 뺨 친다. 다리를 뺨친다.

제56항 ‘- 더라, - 던’과 ‘-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 더라, -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
|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
| 깊던 물이 얕아졌다. | 깊든 물이 얕아졌다. |
| 그렇게 좋던가? | 그렇게 좋든가? |
| 그 사람 말 잘하던데! | 그 사람 말 잘하든데! |
|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ㄱ | ㄴ |
|--------------------|--------------------|
|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
|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

해설 1. 지난 일을 말하는 형식에는 ‘- 더’가 결합한 형태를 쓴다.

그런 형태로는

- 더구나 - 더구 려 - 더구 헨 - 더군(←더구나, 더구먼)

- 더냐 - 더니 - 더니라 - 더니만(←더니마는)

- 더라 - 더라면 - 던 - 던가
- 던걸 - 던고 - 던데 - 던들 - 던지

등이 있고, 이 밖에 ‘더’형 어미로 ‘- 더라도’ 따위가 있다.

2. ‘-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내는 ‘더’에 관형사형 어미 ‘- ㄴ’이 붙어서 된 형태이며, ‘- 든’은 내용을 가리지 않는 뜻을 표시하는 연결 어미 ‘- 든지’가 줄어진 형태다.

어렸을 때 놀던 곳 아침에 먹던 밥
그 집이 크던지 작던지 생각이 안 난다.
그가 집에 있었던지 없었던지 알 수 없다.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다.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해설 제55항과는 반대로, 발음 형태는 같거나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적음으로써 달리 적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다루는 것이다.

‘가름’은 ‘가르다’의 어간에 ‘- ㄹ’이 붙은 형태이며, ‘갈음’은 ‘갈대[代替]’의 어간에 ‘- 음’이 붙은 형태다. ‘가름’은 나누는 것을, ‘갈음’은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가름 - 둘로 가름. 편을 가름. 판가름
갈음 - 연하장으로 세배를 갈음한다.
가죽 인사로 약혼식을 갈음한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해설 ‘거름’은 ‘(땅이) 걸다’의 어간 ‘걸-’에 ‘- 음’이 붙은 형태로, ‘걸음’은 ‘걷다’의 어간 ‘걷-’에 ‘- 음’이 붙은 형태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거름’은 ‘(땅이) 건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뜻하므로, 본뜻에서 떨어진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소리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어서, 시각적으로 ‘걸음’과 구별하는 것이다.(제19항 참조)

거름 - 밭에 거름을 준다. 밑거름, 거름기
걸음 - 걸음이 빠르다. 걸음걸이, 걸음마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해설 ‘거치다’는 ‘무엇에 걸려서 스치다, 경유하다’란 뜻을 나타내며, ‘견히다’는 ‘견다’의

피동사다.

거치다 - 대전을 거쳐서 논산으로 간다. 가로거치다

견히다 - 안개가 견힌다. 세금이 잘 견힌다.

| | |
|-----|--------------|
| 견잡다 | 견잡을 수 없는 상태 |
| 겉잡다 |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

해설 ‘견잡다’는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란 뜻을 나타내며, ‘겉잡다’는 ‘겉가량하여 먼저 어림치다’란 뜻을 나타낸다.

견잡다 - 견잡을 수 없게 악화한다.

견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겉잡다 - 겉잡아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

| | |
|---------------------|-----------------------------------|
| 그러므로(그러니까) |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
| 그럼으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

해설 ‘그러므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란 뜻을 나타내며, ‘그럼으로(써)’는 대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란 뜻을 나타낸다. 곧, ‘그러므로’는 ‘(그러하다→) 그러다’의 어간 ‘그렇→그러(‘ㅎ’ 불규칙)’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붙은 형태, 또는 ‘(그렇게 하다→) 그러다’의 어간 ‘그러-’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결합한 형태이며, ‘그럼으로’는 ‘(그렇게 하다→) 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조사 ‘-으로(써)’가 붙은 형태다.

그러므로 - ① (그러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

②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러므로, 만류하기가 어렵다.

③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학자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조사 ‘-(으)로써’가 이유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러므로(써)’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럼으로(써), 병세가 더 악화하였다.

| | |
|--------|------------|
| 노름 | 노름판이 벌어졌다. |
| 놀음(놀이) | 즐거운 놀음 |

해설 ‘노름[賭博]’도 어원적인 형태는 ‘놀-’에 ‘-음’이 붙어서 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제19항 다만 참조) 그리고 ‘놀음’은 ‘놀다’의 ‘놀-’에 ‘-음’이 붙은 형태인데,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제19항 2 참조)

노름 - 노름꾼, 노름빔, 노름판 (도박판)

놀음 - 놀음놀이, 놀음판 (←놀음놀이판)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해설 ‘느리다’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란 뜻을, ‘늘이다’는 ‘본디보다 길게 하다, 아래로 처지게 하다’란 뜻을, ‘늘리다’는 ‘크게 하거나 많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느리다 - 걸음이 느리다. 느리광이

늘이다 - 바지 길이를 늘인다.

(지붕 위에서 아래로) 빗줄을 늘어 놓는다.

늘리다 - 마당을 늘린다. 수효를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해설 ‘다리다’는 ‘다리미로 문지르다’란 뜻을, ‘달이다’는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제에 물을 부어 끓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다리다 - 양복을 다린다. 다리미질

달이다 - 간장을 달인다. 한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해설 ‘다치다’는 ‘부딪쳐서 상하다, 부상을 입다’란 뜻을 나타내며, ‘닫히다’는 ‘닫다[閉]’의 피동사이니, ‘닫아지다’와 대응하는 말이다.

다치다 - 발을 다쳤다. 허리를 다치었다.

닫히다 - 문이 닫힌다.

‘닫치다’는 ‘닫다’의 강세어이므로, ‘문을 닫치다(힘차게 닫다)’처럼 쓰인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해설 ‘마치다’는 ‘끝내다’란 뜻을, ‘맞히다’는 ‘표적(標的)에 맞게 하다, 맞는 답을 내놓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 눈바서리 따위를 맞게 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마치다 - 일과(日課)를 마친다. 끝마치다.
 맞히다 - 활로 과녁을 맞힌다. 답을 (알아)맞힌다.
 침을 맞힌다. 비를 맞힌다.

| | |
|-----|--------------|
| 목거리 | 목거리가 덧났다. |
| 목걸이 | 금 목걸이, 은 목걸이 |

해설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걸이’는 ‘목에 거는 물건(목도리 따위), 또는 여자들이 목에 거는 장식품’을 이른다.

목거리 - 목거리(병)가 잘 낫지 않는다.
 목걸이 - 그 여인은 늘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 | |
|-----|--------------------------|
| 바치다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
| 받치다 |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
| 받히다 | 쇠뿔에 받혔다. |
| 받치다 | 술을 체에 받친다. |

해설 ‘바치다’는 ‘신이나 옷어른께 드리다, 마음과 몸을 내놓다, 세금 따위를 내다’란 뜻을, ‘받치다’는 ‘밑을 괴다, 모음 글자 밑에 자음 글자를 붙여 적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아래에서 잡아 들다’ 등의 뜻을 나타내며, ‘받히다’는 ‘받다[觸]의 피동사, ‘받치다’는 ‘받다’(체 따위로 쳐서 액체만 받아 내다)의 강세어이다.

바치다 - 재물을 바친다. 정성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세금을 바친다.
 받치다 - 기둥 밑을 돌로 받친다.
 ‘소’ 아래 ‘ㄴ’을 받쳐 ‘손’이라 쓴다.
 우산을 받친다(‘받다’의 강세어). 받침, 밑받침
 받히다 - 소에게 받히었다.
 받치다 - 체로 받친다. 술을 받친다.

| | |
|-----|--------------|
| 반드시 |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
| 반듯이 |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

해설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란 뜻을,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란 뜻을 나타낸다.

반드시 - 그는 반드시 온다.
 성(盛)한 자는 반드시 쇠할 때가 있다.

반듯이 - 반듯이 서라. 신을 반듯이 그어라.
반듯이 <번듯이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해설 ‘부딪치다’는 ‘부딪다’(물건과 물건이 서로 힘 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

의 강세어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다.

부딪다 - 뒤의 차가 앞차에 부딪는다. 몸을 벽에 부딪는다.

부딪치다 - 자동차에 부딪친다. 몸을 벽에 부딪친다.

부딪히다(부딪음을 당하다) - 자전거에 부딪혔다.

부딪치이다(부딪침을 당하다) - 자동차에 부딪치이었다.

| | |
|-----|--|
| 부치다 |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발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
| 붙이다 |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홍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

해설 ‘부치다’는

- ① 힘이 미치지 못하다.
- ②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 ③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 ④ 논발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 ⑤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누름적, 저냐 따위를 익혀 만들다.

⑥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다.

⑦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⑧ 몸이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며, ‘붙이다’는

① 붙게 하다.

② 서로 맞당게 하다.

③ 두 편의 관계를 맺게 하다.

④ 암컷과 수컷을 교합(交合)시키다.

⑤ 붙이 옮겨서 타게 한다.

⑥ 노름이나 싸움 따위를 어울리게 만들다.

⑦ 팔려 붙게 하다.

⑧ 습관이나 취미 등이 익어지게 하다.

⑨ 이름을 가지게 하다.

⑩ 뺨이나 볼기를 손으로 때리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부치다 - 힘에 부치는 일. 부채로 부친다.

편지를 부친다. 책을 소포로 부친다.

남의 논을 부친다. 저냐를 부친다.

그 문제를 토의에 부친다.

원고를 인쇄에 부친다.

당숙 댁에 몸을 부치고 있다.

붙이다 - 포스터를 붙인다. 찬장을 벽에 붙인다.

홍정을 붙인다. 접을 붙인다(→접붙인다).

불을 붙인다. 싸움을 붙인다.

경호원을 붙인다. 단서(但書)를 붙인다.

습관을 붙인다. 이름(호, 별명)을 붙인다.

한 대 올려붙인다.

부치이다 (‘부치다’의 피동사, 곧 ‘부치어지다’) - 바람에 부치이다. 풍구로 부치이다.
‘부치다’ ⑧은 ‘붙이다’로 적던 것을 바꾸었다. 이 단어는 ‘기숙(寄宿)’(남의 집에 몸을 부쳐 있음.), ‘기식(寄食)’(밥을 남의 집에 부쳐 먹음.)과 상통하는 말이다. 그리고 ‘붙이다’가 ‘부치다’로 바뀐에 따라 ‘붙여 - 지내다’도 ‘부쳐 - 지내다’로 적게 된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해설 ‘시키다’는 ‘하게 하다’란 뜻을 나타내며, ‘식히다’는 ‘식다’의 사동사(식게 하다)다.

시키다 - 공부를 시킨다. 청소를 시킨다.

다만, ‘공부 - 시키다, 청소 - 시키다’처럼 쓰일 경우는, ‘시키다’를 사동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쓴다.

식히다 - 뜨거운 물을 식힌다.

| | |
|----|---------------|
| 아름 | 세 아름 되는 둘레 |
| 알음 |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
| 얹 | 얹어 힘이다. |

해설 ‘아름’은 ‘두 팔을 벌려서 껴안은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며, ‘알음’은 ‘아는 것’이란 뜻을 나타낸다. ‘알음’은 ‘알다’의 어간 ‘알-’에 ‘-음’이 붙은 형태인데, 그것이 한 음절로 줄어지면 ‘얹’이 된다.(살음→얹)

아름 - 둘레가 한 아름 되는 나무.

밤, 상수리 따위가 저절로 충분히 익은 상태를 이르는 ‘아람’과 구별된다.(아람 - 별다)

알음 - 서로 알음이 있는 사이. 알음알음, 알음알이

얹 - 바로 얹어 중요하다. 얹어 힘으로 문화를 창조한다.

| | |
|-----|-----------|
| 안치다 | 밥을 안친다. |
| 얹히다 | 윗자리에 얹힌다. |

해설 ‘안치다’는 ‘끓이거나 찢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란 뜻을 나타내며, ‘얹히다’는 ‘얹다’의 사동사(얹게 하다)다. ‘얹히다’는 또 ‘버릇을 가르치다, 문서에 무슨 줄거리를 따로 잡아 기록하다’란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안치다 - 밥을 안친다. 떡을 안친다.

얹히다 - 자리에 얹힌다. 끓여얹히다. 버릇을 얹히다.

| | |
|----|-------------------|
| 어름 |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
| 얼음 | 얼음이 얼었다. |

해설 ‘어름’은 ‘두 물건의 끝이 닿는 데’를 뜻하며,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을 뜻한다.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제19항 2 참조)

어름 - 바다와 하늘이 닿은 어름이 수평선이다.

왼쪽 산과 오른쪽 산 어름에 솟막(-幕)들이 있었다.

얼음 - 얼음이 얼다. 얼음과자, 얼음물, 얼음장, 얼음주머니, 얼음지치기

| | |
|-----|-------------|
| 이따가 | 이따가 오너라. |
| 있다가 | 돈은 있다가도 없다. |

해설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란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이따가 - 이따가 가겠다. 이따가 만나세.

있다가 - 여기에 있다가 갔다. 며칠 더 있다가 가마.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해설 ‘저리다’는 ‘살이나 뼈마디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돌지 못해서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하다’처럼 풀이되며,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염분을 먹여서 절게 하다.)다.

저리다 - 발이 저리다. 손이 저리다.

절이다 - 배추를 절인다. 생선을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해설 ‘조리다’는 ‘어육(魚肉)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바득하게 바짝 끓이다’란 뜻을, ‘줄이다’는 ‘속을 태우다시피 마음을 초조하게 먹다’란 뜻을 나타낸다.

조리다 - 생선을 조린다. 장조림, 통조림

줄이다 - 마음을 줄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해설 ‘주리다’는 ‘먹을 만큼 먹지 못하여 배곯다’란 뜻을 나타내며,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줄게 하다.)다.

주리다 - 오래 주리며 살았다. 주리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는단 말인가? 굶주리다.

줄이다 - 양을 줄인다. 수효를 줄인다. 줄임표(생략부)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해설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

고’는 ‘하는 일로 인하여’란 뜻을 표시한다.

- 노라고 - 하노라고 하였다.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 느라고 -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자느라고 못 갔다.

-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해설 현행 문법에서는 어미 ‘- 느니보다’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 는 이보다’로 적어야 할 것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 ‘이’가 사람을 뜻할 뿐 사물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것을 어미로 처리하여 ‘- 느니보다’로 적기로 하였다.

- 느니보다 - 마지못해 하느니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당치 않게 떠드느니보다 잠자코 있어라.

- 는 이보다(세 개 단어) -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바른말 하는 이보다 아첨 하는 이를 가까이한다.

-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나 많을 것이다.

해설 ‘- (으)ㄹ 이만큼’으로 적던 것을 ‘- (으)리만큼’으로 바꾸었다. 사람을 뜻하는 경우에만 의존 명사 ‘이’를 밝히어 적도록 한 것이다. ‘- (으)리만큼’은 ‘- ㄹ 정도만큼’이란 뜻을 표시하는 어미로 다루어지며, ‘- ㄹ 이만큼(세 개 단어)’은 ‘- ㄹ 사람만큼’이란 뜻을 표시한다.

- (으)리만큼 - 싫증이 나리만큼 잔소리를 들었다.

배가 터지리만큼 많이 먹었다.

- (으)ㄹ 이만큼 - 반대할 이는 찬성할 이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 (으)러 (목적) 공부하러 간다.

- (으)려 (의도) 서울 가려 한다.

해설 ‘- (으)러’는 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표시하는 어미이고, ‘- (으)려(고)’는 그 동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표시하는 어미다.

- (으)러 - 친구를 만나러 간다. 책을 사러 간다.

- (으)려 -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 (으)로서 (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으)로써 (수단) 답으로써 핑을 대신했다.

해설 ‘- (으)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란 뜻을 나타내며, ‘- (으)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다.

- (으)로서 - ① (…가 되어서) 교육자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사람의 자식으로서, 인륜을 어길 수는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학자로서의 임무
 ② (…의 입장에서) 사장으로서 하는 말이다.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피해자로서 항의한다.
 ③ (…의 자격으로) 주민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다.
 ④ (…로 인정하고) 그를 친구로서 대하였다. 그분을 선배로서 예우(禮遇)하였다.
- (으)로써 - ① (…를 가지고) 톱으로(써) 나무를 자른다. 피로(써) 이긴다.
 동지애로(써) 결속(結束)한다.
 ② (…때문에) 병으로(써) 결근하였다.

- (으)므로 (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 (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해설 ‘- (으)므로’는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 (으)므로(써)’는 명사형 어미 또는 명사화 접미사 ‘- (으)ㅁ’에 조사 ‘- 으로(써)’가 붙은 형태다. 어미 ‘- (으)므로’에 ‘써’가 붙는 형식은 없다.

- (으)므로 - 날씨가 차므로, 나다니는 사람이 적다.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책이 없으므로, 공부를 못 한다.
- (으)ㅁ으로(써) - 그는 늘 웃음으로(써) 대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시름을 잊는다.
 담배를 끊음으로(써) 용돈을 줄인다.

부 록 문장부호

문장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마침표[終止符]

1. 온점(.), 고리점(。)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항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 년 3 월 1 일)

-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

2.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이름이 뭐지?

-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남북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붙임 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쩔단 말이나.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3.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지금 즉시 대답해!

부디 몸조심하도록!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춘향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붙임]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II. 쉼표[休止符]

1. 반점(.), 모점(、)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얘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니님.
다시 보자, 한강수야.

-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아, 깜빡 잊었구나.

-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 (10) 문장 중간에 끼여든 구절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 (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1, 2, 3, 4
-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5, 6 세기 6, 7 개
-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14,314

2.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1)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가·명태·고등어를 샀다.
-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 쌍점(：)

-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문장 부호：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사우：붓, 먹, 벼루, 종이
-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일시：1984년 10월 15일 10시
마침표：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정약용：목민심서, 경세유표
주시경：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
-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요한 3：16(요한복음 3장 16절)
대비 65：60(65 대 60)

4. 빗금(/)

-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 (2)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3/4 분기 3/20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작은따옴표(‘ ’), 낫표(「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짐작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IV.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 (1)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 (2)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1) 주어 (ㄱ)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
- (3) 빈 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2. 중괄호({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 | | | |
|---------|-----|------------|------|
| | | | { 국토 |
| | { 이 | | |
| 주격 조사 { | | 국가의 3 요소 { | 국민 |
| | { 가 | | |
| | | | { 주민 |

3. 대괄호([])

-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
-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V. 이음표[連結符]

1. 줄표(—)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 (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여들 때 쓴다.

그 신동은 네 살에—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벌써 시를 지었다.

- (2) 앞의 말을 정정하거나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이건 내 것이니까—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2. 붙임표(-)

-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겨울 - 나그네

불 - 구경

손-발

휘 - 날리다

슬기 - 롭다

- (으)르걸

-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나일론 - 실

다 - 장조

빛 - 에너지

염화 - 칼륨

3. 물결표(~)

-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9월 15일 ~ 9월 25일

-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새마을 : ~ 운동 ~ 노래

-가(家) : 음악~ 미술~

VI.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 , ˚)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 ☐ ☐ ☐ ☐ ☐ ☐ ☐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을 치기도 한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VII. 안드러냄표[潛在符]

1.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육군 ○○부대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 빠짐표(□)

글자의 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옛 비문)

-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 (1) 할 말을 줄였을 때에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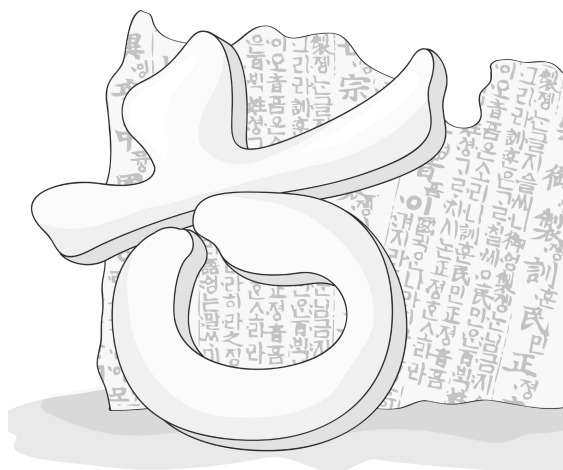
“빨리 말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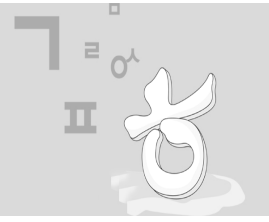


떡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 하 라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왜 하는 것일까?

- (1) ㄱ. 한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1ㄱ)과 띄어쓰기를 한 (1ㄴ)을 비교해 보자. 띄어쓰기를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간혹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 (2) ㄱ. 어제 산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ㄴ. 어제 산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2ㄱ)과 (2ㄴ)은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판 토끼의 종류가 달라진다. (2ㄱ)은 산에 사는 토끼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고, (2ㄴ)은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토끼나 살아 있는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 (3) ㄱ. 큰집으로 이사를 갔다.
 ㄴ.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3)의 예 역시 비슷하다. 띄어쓰기를 안 한 ‘큰집’은 큰아버지 댁을 의미하지만, 띄어쓰기를 한 ‘큰 집’은 크기가 큰 집을 의미한다. 가령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큰어머니께

서 우리를 반겨 주셨다.”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 ‘(크기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큰 어머니가 왜 반겨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큰집’을 ‘큰 집’으로 쓴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띄어쓰기의 원리

2.1. 자립성과 의존성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있고 항상 다른 말의 앞이나 뒤에 붙어 쓰이는 말이 있다.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4)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5)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6) ㄱ. 무얼 보니?
 - 하늘.
 ㄴ. 어딜 가니?
 - 바다.

(6)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

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지는 않는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붙어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 (7) ㄱ. 학교를
- ㄴ. 먹-습니다
- ㄷ. 가-겠-다

(7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붙어 쓰이고 (7ㄴ)의 ‘-습니다’는 ‘먹-’에, (7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붙어 쓰인다.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의존적인 말들은 다음과 같다.

- (8) ㄱ. 조사: 이/가(친구가), 을/를(친구를), 에게(친구에게), 도(친구도) 등
- ㄴ. 접사: 덧-(덧버선), 최-(최첨단), -질(도둑질), -님(선생님) 등
- ㄷ. 어간: 먹-(먹다), 하-(하다), 예쁘-(예쁘다), 좋-(좋다) 등
- ㄹ. 어미: -는다(먹는다), -습니다(먹습니다), -겠-(먹겠다), -었-(먹었다) 등

[연습 1]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 ① 가야하겠습니다./가야겠습니다.
- ② 해야하지만/해야지만

2.2. 단어의 판별 기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단어란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가리키지만 ‘밤낮, 국밥, 돌아가다’ 등과 같이 두

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것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의미이다. 즉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 (9)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단어의 긴밀성이다. 즉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가져가다’는 ‘가져’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 (10) ㄱ.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가져서 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가져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연습 2] 한번/한√번

- ① · 한번에하나씩만처리하자.
 ② · 언제한번술이나마시자.

[연습 3] 안되다/안√되다

- ① · 합격이안되어서기분이별로야.
 ② · 열심히공부했는데시험에떨어졌다니안됐네.

[연습 4] 못쓰다/못√쓰다

- ① · 너무낡아서이젠못쓰게되었다.
 ② · 무엇이든지나치면못쓴다.

3. 띄어쓰기의 실제

3.1.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다, 부터, 까지, 는커녕, 조차, 보다’ 등을 앞말과 띄어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조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11) ㄱ.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국립국어원V입니다}.
- ㄴ. {5시부터/*5시V부터} {7시까지/*7시V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 ㄷ. {노래는커녕/*노래는 커녕/*노래 는커녕} {말하기조차/*말하기V조차} 어렵다.
- ㄹ. 다른 {회사보다/*회사V보다}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12) ㄱ. {학교에서처럼만/*학교에서V처럼만/*학교에서처럼V만} 행동하면 된다.
- ㄴ.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V만이라도/*집에서만V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었다.
- ㄷ. {언제인지부터는/*언제인지V부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다. ‘같이, 밖에, 하고’ 등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에 따라 조사로 다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1) 같이

‘당신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때의 ‘같이’는 ‘처럼’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단 ‘친구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 ‘같이’는 ‘함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참고로 ‘당신 같은’의 ‘같

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 (13) ㄱ.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ㄴ. 친구와같이 오세요.
 ㄷ. 당신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2) 밖에

‘밖에’는 ‘밖’이라는 명사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의 ‘밖’은 ‘안’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14) ㄱ. 학교밖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
 ㄴ. 이밖에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밖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밖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로 다룬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다.

- (15)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3) 하고

‘하고’는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와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로 나뉜다.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는 ‘와/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로 다루며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는 조사가 아닌 동사 ‘하다’의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라고’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16) ㄱ.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연습 5] 같이

- ① · 세월이물과같이흐른다.
- ② · 당신같이세상물정모르는사람도없을거다.

[연습 6] 대로

- ① · 하자는대로하는게어때?
- ② · 네말대로하기로했어.

[조심해야 할 조사]

- ① · 소주는키녕맥주도못마신다.
- ② · 학교에서부터집까지의거리가총10km이다.
- ③ · 조사결과에대해서조차의견이상이하다.
- ④ · 누구를위해서라기보다스스로를위해서입니다.

3.2. 의존 명사

명사 중에는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가 있는데, 이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인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단어로 다루어진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17) ㄱ. 할√순√없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 ㄴ. 일을 제시간에 끝내야 할√텐데.
- ㄷ. 부재√신 관리실에 맡겨 주세요.
- ㄹ. 회의√중이오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 ㅁ. 기간√내에 제출할 것

‘수, 터, 시, 중, 내’ 등은 모두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 외에도 ‘것, 나, 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뽀, 적, 줄, 즈음, 지, 터, 겹,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등도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과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 있다. 의존 명사는 앞서 살펴본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어미의 일부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접미사와 비슷한 경우도 있다.

1) 대로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며, ‘좋으실 대로, 아는 대로’처럼 용언의 관형형¹⁾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

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대로’는 명사 뒤에 올 때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띄어 쓴다.

(18) ㄱ.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마음대로 해라. (조사)

ㄴ. 당신 좋으실대로 하세요./아는대로 말해라./지칠대로 지친 몸 (의존 명사)

2) 뿐

‘뿐’ 역시 ‘당신뿐, 공부뿐’처럼 명사 뒤에 붙을 때는 조사이고 ‘말할 뿐, 먹을 뿐’처럼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의존 명사이다. 간혹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있으나,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로 쓰는 것이 옳다.²⁾

(19) ㄱ.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조용히 들을뿐 뭐라고 하지 않는다./열심히 노력할뿐이다. (의존 명사)

3) 만

‘만’은 명사 뒤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에서 ‘혼자만’의 ‘만’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쓰인 ‘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다.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만에’, ‘만의’, ‘만이다’의 꼴로 쓰이며,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20) ㄱ.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밥만 먹는다. (조사)

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십 년 만의 귀향/이게 얼마 만이야.
(의존 명사)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데, 이것은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만’이 있다.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

1) 용언의 관형형이란 용언(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 ‘-ㄴ, -는, -르’ 등이 결합한 것으로, 이들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어 ‘먹은 음식, 먹는 음식, 먹을 음식’의 ‘먹은, 먹는, 먹을’을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한다.

2) 요즈음 ‘뿐만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과 띄어 쓴다.

(21) 지낼V만하다./먹을V만은 한테 좀 비싸다. (의존 명사)

참고로 ‘만’과 ‘하다’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성이 있는데, 이때의 ‘만’도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르다.

(2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V하다.

ㄴ. 음악이 {들을V만하다/들을만하다}.

(22ㄱ)의 ‘송아지만V하다’의 ‘만’과 ‘하다’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³⁾ 이때의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22ㄴ)의 ‘들을V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은 의존 명사이며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만’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⁴⁾

4) 데

‘데’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는데’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는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⁵⁾ (23ㄱ)의 ‘하는 데’ 뒤에는 ‘하는 데에’처럼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으나 (23ㄴ)의 ‘가는 데’ 뒤에는 조사가 결합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렇지 못한 ‘-는데’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23) ㄱ. 이 일을 하는V데 며칠이 걸렸다.

ㄴ.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24) ㄱ. 이 일을 하는V데에…… (결합 가능)

ㄴ. *학교에 가는데에 …… (결합 불가능)

3) ‘만하다’를 접미사로 보기도 하지만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 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4) 의존 명사 ‘만, 양, 법’ 등 뒤에 ‘하다’나 ‘싶다’가 붙은 보조 용언 구성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3.5. 보조 용언’ 참조.

5)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다음도 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데’를 앞말과 띄어 쓴다.

(25)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5) 바

‘바’도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바’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이 역시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6)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

(26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6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

6) 지

‘지’ 역시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 ‘-는지, -ㄴ지’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지’가 어미의 일부로 쓰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다른 어미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ㄴ지’가 ‘-ㄴ까’와 띄어쓰기가 같고 ‘-는지’가 ‘-는가’와 띄어쓰기가 같다.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도착할까’를 ‘도착할 까’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할까’와 ‘도착할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할지’로 붙여 쓴다고 이해하는 것이 ‘-ㄴ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했는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했는가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8) ㄱ.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이와는 달리 다음의 예들은 다른 어미와 바꾸기 어렵다.

- (29) ㄱ. 고향을 떠난ㄹ지 십 년 만에 돌아왔다.
 ㄴ. 친구를 만난ㄹ지 한참 되었다.

(29ㄱ)의 ‘떠난ㄹ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 없으며 (29ㄴ)의 ‘만난ㄹ지’ 역시 ‘만난가’로 바꿀 수 없다. 이때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형과 띄어 쓴다.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7) 것(거)

‘ㄹ것’의 띄어쓰기는 ‘ㄹ 것’으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30) ㄱ. 나중에 후회할것.
 ㄴ. 후회할ㄹ것 왜 그랬어?

(30ㄱ)의 ‘후회할것’은 ‘-ㄹ것’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으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0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후회할 것’으로 풀 수 있으므로 ‘후회할ㄹ것’로 띄어 쓴다.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ㄹ게’도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ㄹㄹ게(것이)’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 쓴다.

- (31) ㄱ. 나 먼저 할ㄹ게.(←갈 것이야)
 ㄴ. 집에 가서 할ㄹ게(할ㄹ것이) 아주 많아.

8) 간

‘간’은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이때의 ‘간’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거리’나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32) ㄱ. 삼 분간 기다려 주십시오.
 ㄴ. 서울 부산ㄹ간 급행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ㄷ.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ㄹ간에 좀 움직여라.

나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한미간, *한일간’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의 ‘간’ 역시 ‘사이, 관계’를 나타내므로 ‘한미ㄹ간, 한일ㄹ간’으로 써야 한다. 다만 (33ㄴ)과 같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 (33) ㄱ. 국가V간, 가족V간, 친구V간, 동료V간
 ㄴ. 부자간, 모자간, 부녀간, 모녀간, 형제간, 자매간……
 다자간

※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연습 7] 지

- ① · 떠난지3년만에고향에돌아왔다.
 ② · 내기분이어떨지생각은해봤어?
 ③ · 버스가언제도착하는지를알수있을까요?

[연습 8] 짓/거

- ① · 그렇게말하면화낼걸.
 ② · 화낼걸알면서왜그렇게했어?
 ③ · 네가가기싫으면내가갈게.
 ④ · 그사람이갈게확실하다.

[기타] 열거하는 말과 이어 주는 말

열거할 때에 쓰이는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굴, 사과 등’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이는 ‘겸’ 역시 ‘시인 겸 소설가’와 같이 띄어 쓴다.

- (34) ㄱ. 굴, 사과V등이 있다.
 ㄴ. 시인V겸V소설가

열거할 때 쓰이는 말에는 ‘등’ 이외에 ‘등등, 등속, 등지’가 있으며,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에는 ‘겸’ 이외에 ‘내지, 대, 및’ 등이 있다.

- (35) ㄱ. 교실에는 책상, 결상V등이 있다.
 ㄴ. 사진, 그림, 영화V등등 볼 것이 많다.
 ㄷ. 사과, 배, 복숭아, 감V등속을 샀다.
 ㄹ. 충주, 청주, 대전V등지로 돌아다녔다.

- (36) ㄱ. 국장V겸V과장
 ㄴ. 열V내지V스물
 ㄷ. 청군V대V백군, 삼V대V일

르. 기간V뿔V경비

3.3. 수 표현

1) 숫자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V삼천사백오십육만V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 억, 조, 경’ 등을 단위로 띄어 쓴다는 뜻이지만,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도 포함한다.

(37) ㄱ. 스물여섯

ㄴ. 십이억V삼천사백오십육만V칠천팔백구십팔

2) 숫자와 단위 명사

숫자 뒤에 쓰인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그 수를 조금 넘음’을 나타내는 ‘-여’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8) ㄱ. 금 서V돈, 바둑 한V판, 버선 한V줄, 신 두V켤레, 북어 한V궤

ㄴ. 십여만V명, 십만여V명, 십V년여, 십여V년, 삼십여V년간,
두V시간여, 삼백오십여V명

3.4. 관형사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관형사라 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쓴다. 문제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사와 접두사는 뒤에 오는 명사가 한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나뉜다.

예를 들어 관형사인 ‘전’은 ‘전V국민, 전V가족, 전V식당’ 등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접두사인 ‘범-’은 ‘범국민(적), 범세계(적)’는 가능하나 ‘*범학생(적), *범단체(적)’ 등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형사는 ‘전’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으나 접두사는 ‘범-’과 같이 뒤에 오는 말이 일부 명사로 한정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쓰고 접두사는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쓴다.

- (39) ㄱ. 전V국민, 전V세계, 전V학교, 전V학년, 전V가족, 전V식당
 ㄴ. 범국민적, 범세계적

그런데 관형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말이 한 단어로 굳어지면 붙여 쓴다. (39ㄱ)에서 ‘전’은 관형사이지만 ‘전국, 전군, 전일’ 등은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붙여 쓴다.

아래의 관형사들은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40) ㄱ. 각(各)V가정, 각V개인, 각V학교, 각V부처, 각V지방[비교] 각처, 각계각층
 ㄴ. 고(故)V홍길동 [비교] 고인(故人)
 ㄷ. 귀(貴)V회사, 귀V학교, 귀V연구원 [비교] 귀사(貴社)
 ㄹ. 동(同)V회사, 동V학급, 동V부서 [비교] 동년
 ㅁ. 매(每)V경기, 매V회계 연도[비교] 매년, 매회
 ㅂ. 별(別)V사이, 별V부담 없이[비교] 별일

[연습 9]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 · ① 내일까지각학교에통보할것.
- · ② 각계각층에서열심히일하는사람들.
- · ③ 각부처에비치해둘것.
- · ④ 각처에서비슷한현상이나타남.
- · ⑤ 각호에안내문을전달했다.
- · ⑥ 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함.

3.5. 보조 용언

다른 용언 뒤에서 앞에 오는 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고 싶다’의 ‘싶다’, ‘-지 않다’의 ‘않다’, ‘-지 말다’의 ‘말다’ 등은 보조 용언이다.

- (41) ㄱ.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
 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않았다.
 ㄷ.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마세요.
 ㄹ. 물건이 좋기는▽한테 좀 비싸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은 아니다. 보조 용언 중에서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 (42) ㄱ. 말도 없이 {서▽있었다/서있었다}.
 ㄴ.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싶다/올듯싶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존 명사와 ‘-하다’나 ‘-싶다’ 사이에 조사가 붙을 때도 붙여 쓰지 않는다.

- (43) ㄱ. {올어도▽보고/*올어도보고} 매달려도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ㄴ. 너무 바빠다 보니 약속을 {잊어먹어▽버렸다/*잊어먹어버렸다}.
 ㄷ. 비가 {올▽듯도 하다/*올듯도하다}.

참고로 ‘-어 지다’와 ‘-어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는 하지만, 용언의 종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 (44) ㄱ.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만들어▽졌다}.
 ㄴ. 그는 아이를 {예뻐▽한다/*예뻐▽한다}.

간혹 어떤 말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의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 (45) 서류를 {찢어▽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6)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V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습 10] · 띄어 써야 할 곳에 √ 표시를 하세요.

- ① · 떨어진나뭇잎을쓸어버릴곳이없다.
- ② · 태풍이마을을통째로쓸어버렸다.

3.6. 전문 용어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항).

- (47)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ㄴ. 금동V미륵보살V반가V사유상

(47ㄱ)과 (47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8) 연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3.7.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항).

- (50) ㄱ. 서울V대학교V의과V대학V부속V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V의과대학V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50ㄱ)보다 (50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울대학교’가 한 단위이고, ‘의과대학’이 한 단위이고, ‘부속병원’이 한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⁶⁾

다만 기관명에 ‘직속, 산하, 부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속, 산하, 부설’은 앞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 한 단위로 묶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49) ㄱ. 대통령V직속V국가V안전V보장V회의

ㄴ. 대통령V직속V국가안전보장회의

3.8. 성과 이름, 호칭어

성과 이름, 성과 호, 성과 자는 붙여 쓴다. 다만 호나 자가 성명 앞에 놓일 때는 띄어 쓴다.

(51) ㄱ. 김철수, 정송강, 이충무공

ㄴ. 송강 정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52) ㄱ. 홍 씨, 홍길동 씨, 길동 씨(군, 웅, 양, 님)

ㄴ. 홍 과장, 홍길동 과장(차장, 부장, 이사, 회장)

호칭어로 쓰이는 ‘씨’는 앞에 오는 성이나 이름과 띄어 쓴다. 그러나 (53ㄴ)처럼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53) ㄱ. 그 일은 김 씨가 맡기로 했네.

ㄴ.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일 큰 성이다.

6)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V현대V미술관’, ‘국립V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V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

3.9. 단음절어의 연속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일일이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읽기에도 불편하므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된다.

- (54) ㄱ. 한 잎 두 잎/한잎 두잎
 ㄴ.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그러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 (55) ㄱ. 더 큰 이 새집/*더큰 이새집
 ㄴ. 좀 더 큰 집/*좀더 큰집

3.10. 외래어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준말로 굳어져 쓰이는 말은 붙여 쓴다.

- (56) ㄱ. 덩크 슈트, 퍼스널 컴퓨터, 아이스 댄스, 로드 쇼, 백 스텝, 팝 아트,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페이퍼
 ㄴ.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인, 홈런, 핫케
 이크, 핫도그, 핫라인, 립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위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ㄷ. 에어컨, 리모콘, 오토바이, 아이큐, 오피스텔

외래어 인명 역시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우리나라의 인명과 달리 원어의 띄어쓰기대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일본인 역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57) ㄱ. 헤르만V해세, 마이클V잭슨

ㄴ. 도요토미V히데요시

ㄷ. 마오쩌둥/모택동

그리고 외래어 지명 뒤에 ‘산, 강, 호, 해’ 등이 올 때에는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쓰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외국 지명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는 띄어 쓰지 않는다.

(58) ㄱ. 알프스 산, 양쯔 강, 미시간 호, 오희츠크 해

ㄴ. 계족산, 양자강, 송화호, 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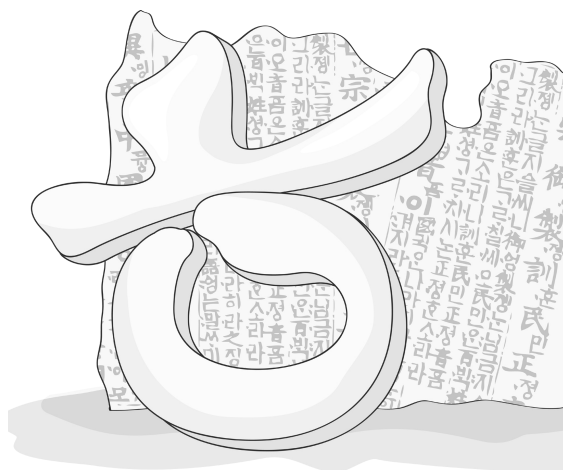
[연습 답]

- [연습 1] ① 가야√ 하겠습니다./가야겠습니다.
② 해야√ 하지만/해야지만
- [연습 2] ① ·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자.
② · 언제√ 한번√ 술이나√ 마시자.
- [연습 3] ① · 합격이√ 안√ 되어서√ 기분이√ 별로야.
② ·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니√ 안됐네.
- [연습 4] ① · 너무√ 낡아서√ 이젠√ 못√ 쓰게√ 되었다.
② · 무엇이든√ 지나치면√ 못쓴다.
- [연습 5] ① ·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② · 당신같이√ 세상√ 물질√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다.
- [연습 6] ① ·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어때? ② · 네√ 말대로√ 하기로√ 했어.
- [조심해야 할 조사] ① · 소주는커녕√ 맥주도√ 못√ 마신다.
② · 학교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총√ 10km이다.
③ · 조사√ 결과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상이다.
④ ·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 [연습 7] ① · 떠난√ 지√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② ·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은√ 해√ 봤어?
③ ·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 [연습 8] ① · 그렇게√ 말하면√ 화낼걸.
② · 화낼√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했어?
③ · 네가√ 가기√ 싫으면√ 내가√ 갈게.
④ · 그√ 사람이√ 같√ 게√ 확실하다.
- [연습 9] ① 내일까지√ 각√ 학교에√ 통보할√ 것.
· · · ②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 · · ③ 각√ 부처에√ 비치해√ 둘√ 것.
· · · ④ 각처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남.
· · · ⑤ 각호에√ 안내문을√ 전달했다.
· · · ⑥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함.
- [연습 10] ① · 떨어진√ 나뭇잎을√ 쓸어√ 버릴√ 곳이√ 없다.
② · 태풍이√ 마을을√ 통째로√ 쓸어√ 버렸다(쓸어버렸다).



표준어 규정 해설

이 선 웅 (경희대학교 교수)



표준어 규정 해설



1. 표준어에 관한 몇 가지 물음

(1) 표준어 규정은 맞춤법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

표준어 규정은 같은 언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여러 어휘 중 가장 표준적인 어휘를 하나 혹은 둘로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음성 언어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집에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갈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때, 표준어 규정은 [가려고]만을 표준적인 음성형으로 제한한다. 다시 말하면 표준어 규정은 [가려고]로 발음이 되는 말과 [갈려고]로 발음이 되는 말 중 [가려고]로 발음이 되는 말만이 표준어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맞춤법 규정은 표준어를 글자로 어떻게 적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문자 언어의 문제이다. 표준어 [가려고]에서 이를 ‘갈여고’ 따위로 적지 않고 ‘가려고’로 적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맞춤법 규정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 예컨대 ‘천둥’을 뜻하는 고유어로서 [우레]라고 말하는 것이 표준적이고 [우뢰]라고 말하면 비표준적이라고 정하는 것도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다. 이 경우 [우레]가 표준어라면 글로 쓸 때 ‘울에’로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결국은 같은 발음이 나기 때문이다. 이때 맞춤법 규정은 ‘우레’라고 적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표준어 규정은 다른 발음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말 중 어느 것이 표준적인 것인가를 결정해 주고, 맞춤법은 그 표준어를 어떻게 적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한두 가지 예를 더 들어 보자. ‘등잔의 심지를 돋우는 쇠꼬챙이’를 [불도두개]라고 할지 [심도두개]라고 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표준어 규정의 몫이다. 현행 표준어 규정 제22항에 따르면 [심도두개]가 맞는 말인데, 이 표준어를 ‘심도두개’로 적지 않고 ‘심돋우개’로 적도록 유도하는 일은 맞춤법 규정의 몫이다. 또 ‘윗사람’을 뜻하는 말을 [위더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더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표준어 규정은 [우더른]이 맞는 말임을 가르쳐 준다. 이를 ‘우더른, 우어른’ 따위로 적지 않고 ‘웃어른’으로 적을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맞춤법 규정의 일이다.

여기서 맞춤법은 ‘표준어’를 적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답장’의 방

언형으로 [달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춤법 규정은 이를 ‘달구장’으로 적을지 ‘달우장’으로 적을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달구장’으로 적고 있기는 하다). 맞춤법 규정은 ‘표준어’를 적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표준어 규정과 맞춤법 규정이 언제나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그 둘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일도 있다. 또 현행 어문 규범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맞춤법 규정’에 표준어 문제가 일부 들어간 경우도 있고 ‘표준어 규정’에 맞춤법 문제가 일부 들어간 경우도 있다. 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을 사정한 위원들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 단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범을 제공하고자 하여 일정 정도는 이론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감수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원칙은 표준어와 맞춤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다.

(2) 표준어는 현실적인 언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을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 어떤 사람도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만 적절히 받으면 표준 어휘의 구사는 거의 완전해질 수 있으나 구어에서 표준 발음을 완전히 지키며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어떤 교양 있는 서울 사람이 “어떤 거지라도 동냥 냄비 정도는 다 갖고 있다.”라는 말을 [어떤 그:지라도 동냥 냄비 정도는 다 간꾸 인따]라고 발음했을 때, 여기서 그는 ‘남비’라는 비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냄비’라는 표준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거지]를 [그:지]로, [라도]를 [라두]로, [간꾸]를 [간꾸]로 발음하여 표준 발음법을 어기고 있다. 말하자면 현대의 교양 있는 서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말에서도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표준어는 현실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i) 발음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많이 쓰이던 [A]보다 현재 [B]가 더 많이 쓰일 경우, (ii)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많이 쓰이던 ‘A’보다 현재 ‘B’가 더 많이 쓰일 경우, (iii) 방언형 선택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표준어이던 ‘A’보다 방언형 ‘B’가 현재 더 많이 쓰일 경우에 모두 ‘B’를 표준어로 정한다는 원칙이 표준어 규정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위 (i)-(iii)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씩만 들면 다음과 같다.

- (i) 원래 [미루나무]로 발음했던 것을 현재에는 주로 [미루나무]로 발음하므로 ‘미루나무’만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
- (ii) 이전에 많이 쓰이던 ‘애닭다’는 현재 거의 안 쓰이고 ‘애달프다’만 주로 쓰이므로 후자만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
- (iii) 표준어이던 ‘빈자떡’보다 방언형 ‘빈대떡’이 현재 더 많이 쓰이므로 ‘빈대떡’만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

둘째, 실제로는 완벽히 지킬 수 없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법칙을 가 정할 수 있다는 점은 표준어 규정이 사람들에게 보편타당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구어에서 표준 발음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기도 싫고 생선도 싫 고’를 [고기두 실꾸 생선두 실꾸]라고 발음하는 것이 틀리고 [고기도 실꼬 생선도 실꼬]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한다. 사실 표준어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 울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위와 같은 논리적인 틀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도, 고’로 쓰는 글자를 [두, 구]라고 읽게 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표준어는 인위적으로 제정한 인공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어 현실 과 언어의 논리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언어처럼 쓰도록 노력하는 일이 결코 쓸모 없는 것은 아니다.

(3) 표준어의 위상

표준어를 잘 사용하면 올바른 언어-문자 생활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가) 대학 교양 과정에서의 국어 교육은 모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

(나) 우리 마누라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나) 아버님 이빨이 안 좋으세요.

우선 표준어 사용 문제는 같은 뜻을 가진 둘 이상의 어휘에서 어느 한두 개를 고르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자. (가)에서 쓰인 접속 부사 ‘그래서’는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만 문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다. 여기에서처럼 대학의 ‘국어’ 과목을 소개하 는 개요 글에 쓰인 상황에서는 ‘그러므로’ 내지는 ‘따라서’라는 접속 부사가 더 잘 어울 린다. 같은 뜻의 같은 표준어라도 글쓰기에서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 이다. (나)에서 ‘우리 마누라’는 완전히 표준어이지만 ‘표준 화법’에 어긋나는 말이다. ‘제 집사람, 제 아내’와 같은 말로 써야 언어생활에서 교양 있는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표준어를 사용하고도 교양 없는 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나)의 예는 크게 보면 (나)와 비슷한 문제이다. ‘이빨’이라는 말은 동물에게 주로 쓰는 것이고 사람에게 쓰 면 비어가 된다. 비어나 속어도 표준어이기는 하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

요컨대 표준어의 사용은 올바른 언어-문자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그 이 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2. 표준어의 기능

(1) 통일의 기능(unifying function)

한 나라에서 방언의 차이가 심하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에서야 그런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전국의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의사소통에 큰 장애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암암리에 한국어가 TV나 라디오, 활자 매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우리와 단절된 북한의 방송이나 연예인단의 말투를 들으면 얼마나 큰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또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방언 차도 그리 작은 것은 아니어서 특정 문맥에서는 다른 방언을 쓰는 상대방의 말의 요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때 모든 사람이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이해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물론 같은 방언 화자끼리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고향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

(2) 우월의 기능(prestige function)

표준어는 주로 학교 교육이나 좋은 책을 통해 습득되므로 표준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스스로 지식인층임을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곧 표준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어는 국민의 언어생활을 세련되고 품위 있게 이끌어 주는 것으로서 그것을 잘 구사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격보다 높은 것임을 보여 주는 표지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준거의 기능(frame-of-reference function)

표준어는 일종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준법정신과 관계가 있다. 언어를 골라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격의 품위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 예절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모든 면에 조심스럽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어문 규정은 법령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한국문화예술진흥법’ 속에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소한 규정이라도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느 사이에 준법정신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3. 표준어 사정의 원칙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표준어 익히기

(1) 바람/*바람

☞ ‘바라다[望]’에서 온 말이므로 “네가 잘되기를 바라(바라+-아).”, “돈을 바라서(바라+-아서) 한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바라+-았다).”, “연내에 유학을 가고자 하는 바람(바라+-ㅁ)입니다.”로 써야 한다. *바래, *바래서, *바랬다, *바램 따위는 옳지 않다.

참1 같다: 같아/*갈애, 많다: 많아/*말애, 나무라다: 나무라/*나무래

참2 놀라다: “그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놀랬다}.”에서 보듯이 자동사로 쓸 경우에는 ‘놀라다’만이 표준어이다. ‘놀래다’는 남을 놀라게 한다는 뜻의 사동사로서만 인정된다.

(2) 깨다/*개이다

☞ ‘깨다’를 ‘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표준적이다. 곧 ‘내일은 날씨가 개겠습니다’, ‘맑게 개었다’, ‘2000년 5월 19일: 갸’ 등으로 써야 한다.

참 ‘헤매다/*헤매이다’, ‘목매다/*목매이다’, ‘설레다/*설레이다’, ‘되뇌다/*되뇌이다’ 따위도 마찬가지로 찬가지이다.

(3) 거친/*거칠은

☞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줄어들는 것이 원칙이다.

참1 하늘을 나는(날+-는) 비행기, 땀에 전(절+-ㄴ) 옷, 녹슨(녹슬+-ㄴ) 철로, 햇빛에 그은(그을+-ㄴ) 얼굴, 물에 만(말+-ㄴ) 밥, 작은 그릇에 던(덜+-ㄴ) 밥

참2 그러나 예컨대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ㄹㅎ’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끓은 말’이 *‘온 말’이라고 줄지 않는 것과 같은 예이다.

(4) 연거푸/*연거퍼

☞ *‘연거퍼’와 ‘연거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술을 거푸 석 잔을 마셨다’와 같이 ‘거푸’가 쓰이므로 ‘연거푸’가 옳다.

(5) 예스럽다/*옛스럽다

- ☞ ‘-스럽다’는 ‘바보스럽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따위의 예에서 보듯이 명사에 붙는다. ‘예’는 제한적이거나 명사적으로 쓰이지만, ‘옛’은 관형사이므로(옛 고향) ‘예스럽다’가 옳다. ‘예’가 명사이므로 ‘*옛부터(관형사+조사)’는 틀린 말이고 ‘예(로)부터’가 맞는 말이다.

(6) -르는지/*-르런지

- ☞ ‘그 일을 {할는지/*할런지} 모르겠어’에서처럼 ‘-르는지’가 표준어이고 ‘*-르런지’는 비표준어이다. [르런지]로 소리가 나는 것을 ‘*-르런지’로 적지 않고 ‘-르는지’로 적은 것은 맞춤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7) 마/마라/*말아라

- ☞ ‘말다’에 ‘-아라, -아’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 *말아’는 ‘마라, 마’로 줄어든 형태만이 표준어이다. 한편 인용 형식 등에서 쓰이는 어미인 ‘-(으)라’가 결합한 경우에는 ‘말라’가 된다. ‘하지 마라(←*말아라), 하지 마(←*말아)’, ‘하지 말라고 말했다’.

(8) -면/*-ㅁ

- ☞ “그게 {사실이면/*사실임} 얼마나 좋을까?”, “해가 서쪽에서 { 뜬다면/*뜬담} 넌 믿겠니?”와 같이 ‘-면’을 ‘-ㅁ’으로 줄여 쓰는 것은 잘못이다.
- ☞ “어쩜 그가 나를 사랑할지도 몰라.”나 “어쩜, 그렇게 멋있니?”에서의 ‘어쩜’은 ‘어쩌면’의 준말로 인정된다.

(9) 살코기/*살고기

- ☞ ‘살코기’가 옳은 표기이다. ‘살코기’는 ‘살’과 ‘고기’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살고기’로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옛말 ‘살ㅎ’이 말음으로 ‘ㅎ’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발음에 반영된 ‘살코기’가 옳은 말이다.

☞ 머리카락, 수캐, 암컷

(10) 삼가다/*삼가하다

- ☞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흔히 ‘*삼가하다’로 많이 쓰지만 원래의 기본형은 ‘삼가다’이므로 “흡연을 삼가(삼가-+-아) 주시기 바랍니다.”로 써야 옳다.

(11) 생각건대/*생각컨대

☞ ‘생각하건대’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이 ‘ㄱ, ㄷ, ㅂ, ㅅ’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ㄱ’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 청하건대→*청ㅎ건대→청컨대, 무심하지→*무심ㅎ지→무심치, 섭섭하지→섭섭지

㉡ 서슴다: 서슴지/*서슴치 말고

(12) 아니꼬워/*아니꼬와

☞ ‘ㅂ’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곱다’, ‘똥다’만 ‘고와’, ‘도와’로 활용하고, ‘부끄럽다, 가깝다, 아름답다’ 따위의 다른 모든 ‘ㅂ’ 불규칙 용언들은 ‘부끄러워, 가까워, 아름다워’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13) 알맞은/*알맞는

☞ ‘-는’은 동사와, ‘-은’은 형용사와 결합한다.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이 일에 알맞은 사람’처럼 써야 한다. ‘걸맞은/*걸맞는’은 더욱 자주 틀리는 예이다.

(14) 웬지/*웬지

☞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에서 ‘웬지’는 ‘왜인지’에서 온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 ‘웬일이니?’, ‘웬만하면’이라고 할 때에는 ‘웬’이다.

(15) 자랑스러운/*자랑스런

☞ ‘ㅂ’ 불규칙 용언의 받침 ‘ㅂ’과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운’이 된다. 따라서 ‘자랑스럽다, 부끄럽다, 자연스럽다’ 따위는 ‘자랑스러운’, ‘부끄러운, 자연스러운’으로 써야 한다. 다시 말해 ‘깁다, 늙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 등에서 온 ‘기운, 누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 따위는 ‘*긴, *눈, *가깐, *무건, *쉬’로 줄지 않는 데, 위의 예들에서도 ‘자랑스러운, 부끄러운, 자연스러운’이 ‘*자랑스런, *부끄런, *자연스런’으로 줄어들 이유가 없다.

(16) 주웠다/*줏었다

☞ ‘휴지를 주웠다’, ‘휴지를 주워라’에서의 ‘주웠다, 주워라’는 ‘줍다’의 활용형이다. ‘*줏었다[주셨다], *줏어라[주서라]’ 따위의 말은 옳지 않다.

㉔ 꽃다/*꼭다: 꽃아라, 꽃아요, 꽃았다, 꽃으면, 꽃지, 꽃고, ……

(17) 조그마하다/*조그만하다

㉔ ‘호랑이만 하다’, ‘집채만 하다’에서 보듯이 ‘-만 하다’ 앞에는 명사류가 오므로 ‘*조그만하다’는 옳지 않다. ‘*조그’라는 명사는 없기 때문이다.

㉔ 이 경우 ‘-만’은 접미사이고 ‘하다’는 용언이므로 만약 ‘*조그만하다’가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조그만 하다’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18) 차이다/채다/*채이다

㉔ ‘애인에게 차였다(차이+-+었다)’에서의 ‘차였다’는 ‘차다’의 피동사인 ‘차이다’의 활용형이다. ‘차이다’를 줄여 ‘채다’로 쓰는 일도 있는데, ‘채다’가 이미 피동사이므로 ‘*채이다’가 될 이유가 없다. ‘파이다/패다/*패이다’도 마찬가지로 예이다.

(19) 퍼레지다/*퍼래지다

㉔ ‘퍼령+-+어지다’는 모음조화에 따라 ‘퍼레지다’가 된다.

㉔1 뿌예지다(뿌영+-+어지다), 하얘지다(하얇+-+아지다), 노래지다(노랑+-+아지다)

㉔2 예외: 이래요(이래+-+요), 저래요, 그래요, 이랬다(이렇+-+었다), 저랬다, 그랬다

(20) 흐리멍덩하다/*흐리멍텅하다

㉔ ‘흐리멍덩하다’는 ‘하리망당하다’의 큰말이다. ‘*흐리멍텅하다’는 ‘멍텅구리’에서 잘못 유추된 말로서 ‘*멍텅하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쓸 수 없다.

(21) 부나비/*불나비

㉔ 이 경우 ‘부나비’는 ‘불+나비’라는 구조를 가진 합성어이나 ‘ㄹ’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표준어이다. 맞춤법 역시 소리나는 대로 ‘부나비’로 적어야 한다.

㉔ 소나무/*솔나무, 아드님/*아들님, 달달이/*달달이, 무논/*물논, 부삽/*불삽, 차지다/*찰지다

(22) (예의가) 발라서/*바라서

㉔ ‘르’ 불규칙 용언에서의 ‘르’가 ‘ㄴ/ㄷ’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ㄹ라/ㄹ러’로 변한다. 따라서 ‘르’ 불규칙 용언의 하나인 ‘바르다’는 ‘발라, 발라서, 발라요, 발랐다’ 따위로 활용한다.

㉔1 ‘르’ 불규칙 동사: 흐르다(flow), 부르다(call), 가르다(divide), 고르다(choose), 빠르다(fast), 가파르다(steep), 이르다(early), 다르다(different), 서투르다(clumsy), 머무르다

(stay), ……

- ㉔2 이 ‘르’ 불규칙 용언의 경우 ‘ㄹ르’로 될 때가 있어서인지 ‘ㄹ르’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서도 ‘ㄹ르’로 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예컨대 ‘부르고, 부르니까, 부르면서, 불러서, 불렀다’ 등으로 써야 맞는 것인데, 앞의 세 말도 ‘*불르고, *불르니까, *불르면서’로 쓰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예로 “*산이 가팔르니까 조심해서 가자.”는 틀리고, “산이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가자.”가 맞는 말이다.

(23) (타이어를) 값/*감/*갈음

- ☞ 우선 표준어 규정이 해결할 일은 음성 언어로 어느 것이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타이어를 감:]이라는 발음이 표준어이고 [타이어를 가름:]이라는 발음은 비표준어인데, 그 표준어 [감:]을 ‘값’이라고 적고 ‘*감’이라고 적지 않는 것은 맞춤법 규정에 의한다.

- ㉔ (은혜를) 베풀/*베품/*베풀음, (부산에서) 삶/*삼/*살음, (한 바퀴) 둥/*돔/*돌음, (한 시간 동안) 줌/*좀/*줄음

(24) 칸/*간

- ☞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말로 ‘칸’만을 표준어로 삼고 ‘간’은 비표준어로 본다. 따라서 ‘칸막이, 빈칸, 다섯 칸짜리 집, 이 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일 등칸, 한 칸 벌리다’ 따위로 써야 한다.

- ㉔ ‘간’은 ‘초가삼간, 대하천간, 윗간, 뒷간, 외양간, 마굿간’ 따위의 굳어진 말에서만 인정한다.

(25) 사글세/*삭월세/*샷월세

- ☞ ‘매달 내는 세’라는 뜻으로서의 ‘*삭월세(朔月貫)’라는 한자어의 음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한편 ‘임금, 요금’이라는 뜻의 ‘샷’을 연상하여 ‘*샷월세’로 잘못 쓰는 일도 있다.

(26) 적이/*저으기

- ☞ ‘적잖이 놀랐다’에서의 ‘적잖이’와 같은 뜻으로는 ‘적이’가 맞고 ‘*저으기’가 틀리다. ‘적이나, 적이나하면’ 따위를 보면 ‘적이’가 옳음을 알 수 있다.

(27) 빌리다/*빌다

- ☞ 종전에는 영어의 borrow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빌다’가 맞고 ‘빌리다’를 틀리다고 했지만, 이번 규정에서는 ‘빌리다’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그러므로 ‘책을 빌리다’,

“이 자리를 빌려/*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처럼 써야 한다. 한편 ‘빌려 오다’는 ‘빌리다’에 방향성을 표시한 말이고 ‘빌려 주다’는 ‘빌리다’의 반의어로서 영어의 lend에 해당한다.

㉠ ‘용서를 빌다, 하느님께 빌다와 같은 말에서는 ‘빌다’가 표준어이다.

(28) 둘째/*두째

㉡ 종전에는 기수로는 ‘둘째’를 서수로는 ‘두째’를 썼지만, 이번 규정에서는 ‘둘째’로 통일하였다. 그런데 수가 10 이상이 되면 서수 ‘둘째’의 ‘ㄹ’은 확실히 탈락하기 때문에 ‘열두째로 도착했다’처럼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과를 열둘째 먹었다’에서 보듯이 기수는 ‘둘째’라는 형태가 유지된다.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 스물둘째(기수)/스물두째(서수), 스물셋째

(29) 수돼지/*수돼지/*숫돼지

㉣ ‘돼지의 수컷’을 이룰 때, [수돼지]처럼 거센소리가 나는 말을 표준어로 삼았다. 그러나 거센소리가 나는 말을 표준어로 삼은 것은 아래 ㉠의 예들로 제한되어 있다.

㉠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 숫양[(숫양→)순냥], 숫염소[(숫염소→)순념소], 숫쥐[숫쥐]

㉢ 위의 예들 이외에는 모두 ‘수’가 붙는다.

(30) 쌍둥이/*쌍둥이

㉣ 현대 국어에서는 ‘ㄱ, ㄷ, ㄴ, ㄹ, ㄲ’ 따위의 음성 모음의 힘이 ‘ㄱ, ㄷ, ㄴ, ㄹ, ㄲ’ 따위의 양성 모음의 힘보다 현저하게 우세하므로 대체로 음성 모음 쪽을 표준어로 삼는다.

㉠ 강충강충, 귀둥이, 막둥이, 검둥이, 흰둥이, 발가숭이, 보통이, 뽕정다리, 아서, 아서라, 오뚝이, 오순도순, 주추[柱礎], 단출하다

㉡ 한자어의 뜻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은 음성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성 모음 쪽을 표준어로 삼는다. - 부조(扶助)/부주, 사둔(査頓)/사둔, 삼촌(三寸)/삼촌

(31) 툇내기/*툇나기

㉣ 현대 국어에서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말들은 방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모음 역행 동화란 뒤의 ‘이’ 모음 혹은 ‘이’ 모음

을 갖고 있는 이중 모음(야, 여, 요, 유)의 영향을 받아서 앞의 ‘아, 어, 오, 우’가 각각 ‘애, 에, 외, 위’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다리미, 손잡이, 아기, 학교, 아지랑이, 창피하다’ 따위를 ‘*대리미, *손잡이, *애기, *핵교, *아지랭이, *창피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푹내기’를 비롯한 몇몇 단어들에서는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다.

㉠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 ‘-장이’와 ‘-쟁이’는 의미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기술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장이’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쟁이’를 쓴다. - 미장이, 유기장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점쟁이, 양복장이/양복쟁이

(32) 가는구면/*가는구면

㉢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이다.

㉣ 괴팍하다/*괴팍하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여느/*여늬, 으레/*으레/*의례(依例), 케케묵다/*케케묵다, 허우대/*허위대, 허우적허우적/*허위적허위적

(33) 먹는구려/*먹는구료

㉤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음의 발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 경우 바뀐 말을 표준어로 인정한 예가 있다.

㉥ 각쟁이/*각정이, 미숫가루/*미숫가루, 상추/*상치, 주책/*주착, 지루하다/*지리하다, 튀기/*트기, 허드레/*허드래, 호루라기/*호루루기

(34) 윗도리/*웃도리

㉦ ‘웃-’과 ‘윗-’이 함께 쓰이는 말들은 ‘윗-’의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윗눈썹, 윗니, 윗목, 윗사랑, 윗입술, 윗자리

㉨ ‘아래’라는 말이 짝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위’라는 뜻이 살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웃-’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웃돈, 웃어른, 웃웃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윗-’을 ‘위-’로 적는 것이 올바른 맞춤법이다. - 위쪽, 위층, 위턱, 위팔

(35) 구절/*귀절

㉪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결구(結句), 경구(警句), 난구(難句), 단구(短句), 대구(對句), 문구(文句), 시구(詩句), 어구(語句)

㉬ 예외: 글귀, 귀글

참3 ‘말귀’는 ‘말을 알아듣는 귀’라는 뜻이므로 위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36) 뻘/*배암

☞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참 김/*기름, 따리/*또아리, 무/*무우, 생쥐/*새앙쥐, 술개/*소리개, 온갖/*온가지, 장사치/*장사아치

(37) 경황없다/*경없다

☞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참1 궁상떨다/*궁떨다, 귀이개/*귀개(cf. *귀후비개), 김새/*김, 내왕꾼/*냉꾼, 돛자리/*돛, 부스럼/*부름, 퇴박맞다/*퇴맞다, 어음/*엄

(38) 거짓부리/거짓불

☞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참 노을/놀, 막대기/막대, 망태기/망태, 시누이/시누/시누, 오누이/오누/오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꺼기/찌끼

(39) 머물리(요)/*머물어(요)

☞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머무르다/머물다’를 모두 표준어로 삼지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준말 ‘머물다’는 비표준어이다. 이 경우는 ‘머무르--+어’이므로 ‘*머물--+어’의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머물고(머물--+고), 머물지(머물--+지)’는 맞는 말이지만 ‘*머물며(머물--+으며), *머물면(머물--+으면), *머무므로(머물--+으므로), *머무니(머물--+으니), *머물어서(머물--+어서), *머물었다(머물--+었다), *머무십니다(머물--+으십니다), *머무셨습니다(머물--+으시었습니다), *머무세요(머물--+으세요)’로 쓰면 옳지 않다.

참1 활용형의 예: 머무르고/머물고, 머무르지/머물지, 머무르며/*머물며, 머무르면(서)/*머물면(서), 머무르므로/*머무므로, 머무르니(까)/*머무니(까), 머물러서/*머물어서, 머무르십니다/*머무십니다, 머무르세요/*머무세요

참2 ‘가지다/갖다, 디디다/딛다,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의 짝도 역시 위의 원칙에 따라 활용한다.

(40) 귀고리/*귀엣고리

☞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귀엣고리’라는 말은 현

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귀고리’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한편 ‘귀걸이’라는 말 역시 표준어이다.

- Ⓢ1 귀지/*귀에지, 까딱하면/*까딱하면, 꼭두각시/*꼭둑각시, 남남거리다/*암남거리다, 봉송아/봉선화(鳳仙花)/*봉송화, 뽕따귀/*뽕따귀/*뽕따구니, 상판대기/*쌍판대기, 아궁이/*아궁지, 잠투정/*잠투새/*잠주정, 짓무르다/*짓물다, 천장/*천정

- Ⓢ2 귀걸이/귀고리, 목걸이, 코걸이

(41) 먹습니다/*먹읍니다

☞ (40)의 원칙에 따라 ‘-습니다’만을 표준어로 삼은 예이다. 이에 따라 맞춤법도 ‘먹었습니다, 먹겠습니다’가 옳고 ‘*먹었습니다, *먹겠습니다’는 옳지 않다.

- Ⓢ1 홍길동을시다/*홍길동을읍니다, 가려고/*갈려고/*갈라고, 가려면/*갈려면/*갈라면, 가려야/*갈려야/*갈래야

- Ⓢ2 맞춤법: 먹었음/*먹었슴 (cf. 먹음/*먹슴)

(42) 금 서 돈/*금 세 돈

☞ ‘서-, 너-’ 혹은 ‘석-, 녀-’와 ‘세-, 네-’가 혼동될 만한 것은 ‘서/너 돈, 서/너 말, 서/너 밭, 서/너 푼’, ‘석/녀 냥, 석/녀 되, 석/녀 섬, 석/녀 자’로 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세-/네-’를 쓰지 않는다.

- Ⓢ “지금 세/네 시이다.” 따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네’가 옳다.

(43) 네/예

☞ 같은 의미의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면 둘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종전에는 ‘예’만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둘 모두를 인정한다.

- Ⓢ 쇠고기/소고기, 괴다/고이다, 꾀다/꼬이다, 씌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쪼다/쪼이다,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린네/코린네, 꺼림하다/껴름하다, 나부랭이/너부렁이

(44) 설거지하다/*설겅다

☞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설겅다’라는 동사를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뜻을 지닌 명사도 ‘*설겅이’가 아니라 ‘설거지’로 적어야 올바른 맞춤법이 된다. 맞춤법의 원리상 ‘설겅-’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으려면 사람들이 ‘*설겅다’라는 동사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 난봉/*봉, 낭떠러지/*낭, 애달프다/*애앓다, 오동나무/*머귀나무, 자두/*오얏

(45) 외지다/*벽지다

☞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은 경우에는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까막눈/*맹(盲)눈, 마른빨래/*건(乾)빨래, 떡암죽/*병(餅)암죽, 사례논/*사례담(沓), 솟을무늬/*솟을문(紋), 잔돈/*잔전(錢)

(46) 총각무/*알무/*알타리무

☞ (45)와는 반대로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겸상(兼床)/*맞상, 고봉(高峰)밥/*높은밥, 단(單)벌/*홀벌, 산(山)누에/*멧누에, 산(山)줄기/*멧줄기, 수삼(水蓼)/*무삼, 양(洋)파/*둥근파, 윤(閏)달/*군달, 칫(齒)솔/*잇솔

(47) 명계/우렁쟁이

☞ 방언이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방언형을 표준어로 삼되 기존의 표준어도 그대로 인정한다.

Ⓢ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참치/다랑어

(48) 코주부/*코보

☞ (47)과는 달리 표준어형이 더 이상 쓰이지 않으면 방언형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귀밑머리/*귓머리, 까뭉개다/*까무느다, 빈대떡/*빈자떡, 생인손/생손(준말)/*생안손

(49) 부끄럽게/*부끄럽게서리/*부끄럽게시리

☞ ‘-시리, -서리’와 같이 정체도 잘 알 수 없고 방언적인 성격이 강한 말들은 비표준어이다.

Ⓢ 갈 수 있게끔/*갈 수 있게시리, 갔지만/*갔지만서도

(50) 까다롭다/*까탈스럽다

☞ 의미가 똑같은 몇 가지 형태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길잡이/길라잡이/*길앞잡이, 고치다/*낫우다[나수다], 광주리/*광우리, 담배꽂초/*담배꽂추/*담배꽂치, 목메다/*목맷하다, 부스리기/*부스럭지,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 쥐락펴락/*펴락쥐락, 먼발치/*먼발치기, 술고래/*술꾸러기/*술보/*술배대, 아주/*엠파, 안절부절

못하다/*안절부절하다, 앞지르다/*따라먹다, 애벌레/*어린벌레, 열심히/*열심으로, 입담/*말담, 전봇대/*전보산대/*전선대, 주책없다/*주책이다, 침범/*갈범

(51) 가엸어라[가엸씨라]/가여워라[가여워라]

☞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엸다/가엸다’ 모두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1 가는허리/잔허리, 가뭄/가물, 개숫물/설거지물, 고깃간/푸줏간, 관계없다/상관없다, 녀굴/덩굴(cf.*덩쿨),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뒷말/뒷소리, 탄전/탄청, 말동무/말벗, 벌레/버러지, 변덕스럽다/변덕맞다, 뽀두라지/뽀루지, 서럽다/앓다, 시늉말/흥내말, 신/신발,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어림잡다/어림치다,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책씻이/책거리

Ⓜ2 -거리다/-대다: 거들먹거리다/거들먹대다

Ⓜ3 -뜨리다/-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4 -(으)세요/-(으)셔요: 가세요/가셔요, 읽으세요/읽으셔요

(52) 장남이에요/장남이에요

☞ 위의 복수 표준어와 그 원칙을 같이한다.

Ⓜ ‘-이에요/-이에요’는 맞춤법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 장남이에요/장남이에요, 손자예요/손자여요, 영숙이에요/영숙이여요(‘-이’를 붙이는 인명), 철수예요/철수여요, 아니예요/*아니예요/아니여요/*아니여요, 아녜요/아녀요

(53)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틀레}.

☞ ‘다르다’는 ‘틀리다’와 다르다. 영어의 different와 wrong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쓰이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4) {머지않아/*멀지 않아} 그가 올 것이다.

☞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부터 따져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뜻으로는 ‘머지않다’가 옳다.(이 말은 한 단어로 굳어졌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한편 ‘멀지 않다’는 “여기에서 시청은 별로 멀지 않아.”에서처럼 거리 개념을 말할 때 혹은 “그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에서처럼 과거 시간의 개념에서만 쓴다.

(55) {내로라하는/*내노라하는} 학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 이 말 속에는 자기임을 내세우는 ‘나’가 화석처럼 들어 있다. 동사 ‘내놓다’와는 아

무 상관이 없는 말이다.

(56) 읽을까?/*읽으까?

☞ 어미 ‘-ㄴ까’에서 ‘ㄴ’을 떼어내 발음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비표준적인 용법이다.

㉠ 떡 {줄까/*주까}?, 떡 {먹을까/*먹으까}?

(57) 집에 {간다니까/*간대니까}!

☞ 이 말은 “집에 간다고 하니까”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 하-’가 줄어 없어진 경우에 그 앞의 모음 [ㅏ]는 [ㅓ]로 바뀌어 발음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만약 [ㅏ] 발음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ㅓ] 발음은 비표준적인 것으로 본다.

㉡1 “외국에 {가자며/*가재며/*가재매}?”, “일요일은 {신단다/*신댄다}.”, “바쁜 일이 {있다면/*있대면서} 나갔다.”, “오늘은 어디로 {가신답니까/*가신답니까}?”

㉡2 [ㅏ]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ㅓ] 발음이 자연스러우면 [ㅓ]가 표준어이다. - “철수가 {가재요/*가자요}.”, “네가 {온대서/*온다서} 기뻐다.”, “늦으면 {큰일난대도/*큰일난다도} 서두르질 않아요.”

㉡3 ‘하다’의 ‘하-’ 자체도 부당하게 ‘해-’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하+-어서), 해요(하+-어요), 했다(하+-었다)’ 따위에서는 ‘하-’가 모음 ‘ㅏ’와 결합하여 ‘해-’로 변하는 것이 옳지만, ‘*해고, *해지, *해며, *해니까’ 따위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드시 ‘하고, 하지, 하며, 하니까’ 따위로 말해야 한다.

(58) 우체국에 {들렀다/*들렀다}.

☞ 지나가는 길에 잠깐 거친다는 뜻의 단어로는 ‘들르다’가 옳고 ‘*들리다’는 틀린 말이다.

㉢ 들르고, 들르지, 들르니, 들르면, 들러서(들르+-어서), 들러요(들르+-어요), 들렀다(들르+-었다)

(59) {푸른/*푸르른} 별판

☞ ‘*푸르른’은 ‘*푸르르다’의 활용형이라고 할 만한데, 이 말은 ‘러’ 불규칙 형용사인 ‘푸르다’가 ‘푸르러(푸르+-어), 푸르렀다(푸르+-었다)’로 활용하는 데서 잘못 유추된 것이다. ‘푸르다’의 활용형인 ‘푸른’으로 써야 한다.

(60) 짜깁기/*짜집기

☞ 옷을 짜고 깎듯이 여기저기서 필요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짜깁기’

이다.

- ㉔ 삼수갑산(三水甲山)/*산수갑산, 육개장/*육계장, 가르마/*가리마, 두루뭇술하다/*두리뭇술하다, 통털어/*통털어, 으스대다/*으시대다, 실랑이/승강이/*실랭이/*실갱이, 청천벽력(靑天霹靂)/*청천벼락, 야반도주(夜半逃走)/*야밤도주, 포복절도(抱腹絶倒)/*포복졸도, 절체절명(絶體絶命)/*절대절명, 풍비박산(風飛雹散)/*풍지박산/*풍지박살, 성대모사(聲帶模寫)/*성대모사, 애먼/*에먼/*엄한, 우연히/*우연찮게

5. 새 복수 표준어

2011년에 새로 사정된 복수 표준어가 공표되었다. 대체로 언어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규범의 융통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㉕ 공표된 복수 표준어를 보고 미래에 표준어로 인정될 만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 기존 표준어 | 추가된 표준어 | 의미 혹은 어감 | 비고 |
|--------|---------|----------|-------|
| 태견 | 택견 | 같음 | |
| 품세 | 품새 | 같음 | |
| 자장면 | 짜장면 | 같음 | |
| 간질이다 | 간지럽히다 | 같음 | |
| 남우세스럽다 | 남사스럽다 | 같음 | |
| 목물 | 등물 | 같음 | |
| 만날 | 맨날 | 같음 | |
| 뭇자리 | 못자리 | 같음 | |
| 복사뼈 | 복숭아뼈 | 같음 | |
| 세간 | 세간살이 | 같음 | |
| 쌈싸래하다 | 쌈싸름하다 | 같음 | |
| 고운대 | 토란대 | 같음 | |
| 허접쓰레기 | 허접쓰레기 | 같음 | *허접하다 |
| 토담 | 흙담 | 같음 | |
| -기에 | -길래 | 다름 | |
| 괴발개발 | 개발새발 | 다름 | |
| 날개 | 나래 | 다름 | |
| 냄새 | 내음 | 다름 | |
| 눈초리 | 눈꼬리 | 다름 | |
| 떨어뜨리다 | 떨구다 | 다름 | |
| 뜰 | 뜨락 | 다름 | |
| 먹을거리 | 먹거리 | 다름 | |

| 기존 표준어 | 추가된 표준어 | 의미 혹은 어감 | 비고 |
|--------|-----------|----------|----|
| 메우다 | 매꾸다 | 다름 | |
| 손자 | 손주 | 다름 | |
| 어수룩하다 | 어리숙하다 | 다름 | |
| 연방 | 연신 | 다름 | |
| 횡허께 | 횡하니 | 다름 | |
| 거치적거리다 | 걸리적거리다 | 다름 | |
| 끼적거리다 | 끄적거리다 | 다름 | |
| 두루뭉술하다 | 두리뭉실하다 | 다름 | |
| 맨송맨송 | 맨송맨송/맹송맹송 | 다름 | |
| 바동바동 | 바둥바둥 | 다름 | |
| 새치름하다 | 새조름하다 | 다름 | |
| 아웅다웅 | 아웅다웅 | 다름 | |
| 야멸치다 | 야멸차다 | 다름 | |
| 오손도손 | 오손도손 | 다름 | |
| 찌뿌듯하다 | 찌뿌둥하다 | 다름 | |
| 치근거리다 | 추근거리다 | 다름 | |

6. 표준 발음법

(1) ㅓ [:] / ㅓ []

‘ㅓ’는 ‘ㅏ’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낮아진다. 혀의 뒷부분이 ‘ㅏ’보다는 낮고 ‘ㅓ’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발음하면 ‘ㅓ’를 제대로 발음한 것이 된다. ‘언제나 눈에 선한’에서 ‘언:’과 ‘선:’의 ‘ㅓ’ 발음은 ‘머리가 무겁다’에서 ‘머’와 ‘겁’의 ‘ㅓ’ 발음과 다르게 난다. 짧게 소리 나는 ‘ㅓ’와 길게 발음되는 ‘ㅓ’는 말소리의 길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리는 정도도 다르다. ‘ㅓ’를 짧게 발음할 때에는 길게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장모음 ‘ㅓ[ə:]’는 단모음의 ‘ㅓ[ɐ]’보다 혀의 조음 위치가 높아져서 ‘ㅡ’의 장모음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 어:른, 간:강, 선:수 , 열:다, 거:짓말 너, 어깨, 절 , 버릇, 서리, 먹었다

(2) ㅓ [j]

낱말의 처음에 오는 ‘의’는 언제나 ‘ㅡ + ㅣ’로 발음하고 ‘ㅡ’나 ‘ㅣ’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ㅡ’ 소리에서 시작하여 재빨리 ‘ㅣ’ 소리로 옮겨 소리 내야 하지만, 자음

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내야 한다.

예) 의논, 의리, 의문, 의롭다, 의심, 의젓하다 닝큼, 무늬, 희망, 유희, 날리리, 희끗희끗, 띠엄띠엄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의’는 제 음가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라도 방언에서 ‘의사(義士)’를 ‘으사’로, 경상도 방언에서 ‘의대(醫大)’를 ‘이대’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다. 제2음절 이하에서 ‘의’를 제 음가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의’가 단어의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이]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예)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허비] 나의[나의/나에] 고향, 민주주의의 의의

그렇다면 ‘무늬’와 ‘문의(問議)’의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늬’의 경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ㄴ’에 해당되므로 항상 [무니]로 발음하여야 하나, ‘문의’의 경우는 [무: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니]로도 발음할 수 있다.

(3) 겹받침의 발음

국어에는 11개의 겹받침—ㄲ, ㄴ,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이 있다.

예) 갑-값, 막다-맡다, 안다-앉다

위의 각 쌍들은 같은 발음이 나는 것들로서 겹받침을 갖는 단어들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으며, 두 모음 사이에서는 두 개까지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겹받침을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어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겹받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겹받침 ‘ㄲ’, ‘ㄴ’, ‘ㄷ, ㄹ, ㄾ’, ‘ㅀ’의 경우 둘째 소리는 탈락하고 첫소리만 발음된다. (‘표준 발음법’ 제10항) 이와 달리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일정하게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고 두 번째 받침이 발음된다. (‘표준 발음법’ 제11항)

예) 녀[녀], 앓다[안따], 외곶[외곶], 넓다[널따], 값[갑], 닭[닥], 젊다[점:따], 읊다[읍따],
 한다[할따]

겹받침 ‘ㅃ’의 경우 ‘ㅃ’을 탈락시키고 ‘ㄹ’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인데, ‘뵈다’와 ‘넓둥글다, 넓죽하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ㄹ’을 탈락시키고 ‘ㅃ’만 발음한다.

예)1 여뵈[여덜], 짹다[짹따], 넓다[널따]

예)2 뵈다[뵈:따], 뵈지[뵈:찌], 뵈고[뵈:꼬],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퐁글다]

또한, 겹받침 ‘ㄹ’이 용언의 어간 말음으로 쓰일 때, ‘ㄹ’ 뒤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둘째 자음을 탈락시키고 첫 자음 ‘ㄹ’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예) 맑게[말께], 물고[물꼬], 얼거내[얼거내]

(4) 받침 ‘ㅎ’의 발음

받침 ‘ㅎ’은 뒤따르는 ‘ㄱ, ㄷ, ㅈ’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2항)

예) 농고[노코], 많고[만:코], 좋다[조:타], 읊다[읊타], 닭지[달치], 하얗지요[하:야치요]

그러나 ‘ㅎ’ 받침 뒤에 ‘ㅅ’이 오면 그 ‘ㅅ’과 결합하여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종소[조:쏘], 싫소[실쏘]) 그 밖에 ‘ㅎ’ 받침 뒤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그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오면 ‘ㅎ’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예) 농는[논는], 낱니[난니], 놓으니[노으니], 쌓여[싸여]

이러한 받침 ‘ㅎ’의 특성은 겹받침 ‘ㅃ’과 ‘ㅃ’이 뒤에 오는 자음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보인다.

예) 끊고[곤코], 끊는[곤는], 앓지[알치], 앓소[알쏘], 많아[마:나], 싫어[시러], 뚫어[뚜러]
 많으니[마:느니], 싫으니[시르니], 뚫으니[뚜르니]

(5) ㄴ-덧소리/ㄹ-덧소리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9항)

예) 담-요[담:뇨], 숨-이불[숨:니불], 콩-엿[콩녘], 색-연필[생년필], 논-일[논닐], 한-여름[한너름], 꽃-잎[꼴닙], 앞-이마[암니마], 맨-입[맨닙], 생-이별[생니별], 눈-약[눈냐], 식용-유[시공뉴], 눈-요기[눈노기], 내복-약[내:봉냐], 막-일[망닐]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예) 들-일[들: 릴], 설-익다[설릭따], 솔-잎[솔립] 물-약[물랴],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려] 물-엿[물려],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다음과 같은 의성의태어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예)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율랑-율랑[율랑놀랑/율랑율랑]

‘검열’이나 ‘금융’과 같은 단어는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ㄴ’ 첨가 없이도 발음할 수 있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기차를 타 본 일[닐]이 있습니까?”에서와 같이 ‘ㄴ’ 소리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서 덧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히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예) 6·25[유기오], 3·1절[사밀쩔],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월요일[워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절약[저략]

7. 정확한 어휘 사용

어휘의 정확한 사용도 중요하다.

예)1 국립국어원에 자문을 구하다/요청하다 → 조언을 구하다, 자문하다

예)2 양해 말씀을 올리다/드리다 → 양해를 구하다

- 예3 지원서를 접수하고 오는 길이다 → 지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길이다
 예4 대금 결제(決濟), 사장님의 결재(決裁)
 예5 고향으로 가던 외중(渦中)에 친구를 만나다 → 고향으로 가던 중에
 예6 한 발자국만 더 걸어 보세요 → 한 걸음/발짝
 예7 선생은 국어 연구에 큰 행보를 남기셨다 → 발자취를/족적을 남기다
 예8 행여나 늦을세라 → 혹시나 늦을세라
 예9 중복 표현: 외교 현안(懸案) 문제(問題), 자리에 착석(着席)하다
 예10 김밥을 팔아 모은 10억을 기부한 미담의 장본인 → 주인공
 예11 작열하는 무더위 → 찌는 듯한 무더위, 작열하는 태양/햇빛
 예12 그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신세가 됐다 → 토사구팽(兔死
 狗烹)의 신세

8.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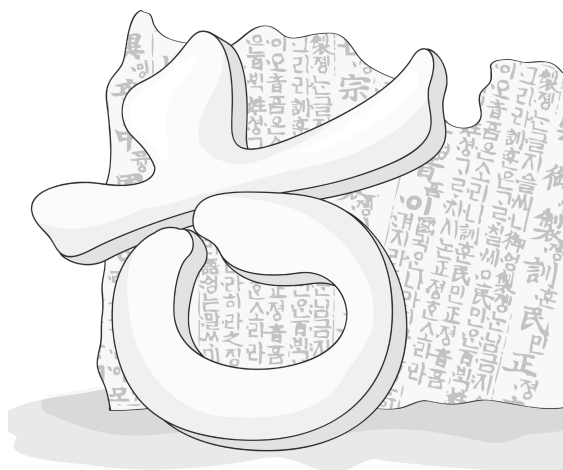
지금까지 표준어 규정 및 그와 관련한 여러 지식을 살펴보았다. 표준어 사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중요한 어문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가에서 아무리 다듬어진 말과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로 정해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표준어 규정이 발표된 지 25년이 되었다. 아직까지 표준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 부족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성인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사전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간혹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표준어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

정 희 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말소리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들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 적도록 놓아둔다면 언어생활이 혼란해질 것이다. internet이란 낱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인터넛, 인터넬’ 등으로 달리 표기하게 될 것이고,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말이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라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어에 대해 표준어를 정해 주기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간혹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발음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p]와 [f] 소리를 똑같이 ‘ㅍ’으로 적거나, [l]과 [r] 소리를 똑같이 ‘ㄹ’로 적도록 하는 외래어 표기법 탓에 한국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개 한글 자모를 변형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f] 소리는 ‘ㅍㅎ’이나 ‘퐁’, [l] 소리는 ‘ㄹㄹ’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에서 [kʰ:fɪ]로 발음되는 단어를 ‘커피’, ‘코피’, ‘코오휘’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커피’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하여 적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말을 적을 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과정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고시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후, 외래어 표기법은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로 다시 고시되었으며, 2005년 12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로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에 대한 표기 규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이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1930년 12월 30일 조선어학회 총회 결의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편으로 ‘들온말 적기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외래어 표기에 대해 조선어학회에서는 1931년부터 9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계속 연구와 심의를 병행하였으며, 다시 2년의 시험 적용 기간을 거쳐 1940년 6월 총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1948년에 ‘들온말 적기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1956년 국어심위원회의 외래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로마자 한글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58년 10월 20일에 문교부에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공표하였다. 그 뒤 문교부는 외래어 표기의 세칙을 마련하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편수 자료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외래어 표기법의 표준이 된 것은 1958년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었다. 이리고 이를 보완하여 1986년 1월 7일 문교부가 고시한 것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이 된 것이다.

3.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제1장 제1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제1장 제2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제1장 제3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제4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제1장 제5항)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음에 충실하게 적기 위하여 국어의 현용 24자모 외의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모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자모 아닌 기호를 도입하거나,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퐁, 빙’을 사용하거나 ‘애, ㅑ’와 같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2항은 외래어의 음운과 국어의 자모를 일대일 대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 대 이 대응, 이 대 일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는 ‘퍼센트, 수프, 솥’과 같이 ‘ㅍ, 프, ㅅ’로 다양하게 적고, [r], [l]은 ‘리본, 레이스’와 같이 모두 ‘ㄹ’로 똑같이 적는다.

제3항은 국어의 표기 방법과 달리 7개의 받침으로만 표기한다는 뜻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coffee shop’은 ‘커피숍’으로, ‘internet’은 ‘인터넷’으로, ‘stick’은 ‘스틱’으로 적는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서 파열음 된소리인 ‘ㅃ, ㅆ, 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보다 거센소리에 가깝고 프랑스어나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보다 된소리에 가깝지만,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 전사는 불가능하므로 일관성과 간결성을 살려서 거센소리로 통일하여 적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영어의 ‘game, dam, bus’는 ‘게임, 댐, 버스’가 아니라 ‘게임, 댐, 버스’로, 프랑스어의 ‘café, latte, Paris’는 ‘까페, 라떼, 파리’가 아니라 ‘카페, 라테, 파리’로 적는다.

제5항은 이미 언중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굳어진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지 않아도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한다는 뜻이다. ‘camera[kæməɾə]를 ‘캐머리’가 아니라 ‘카메라’로, ‘radio[reidiou]를 ‘레이디오’가 아니라 ‘라디오’로, ‘system[sistəm]을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4. 외래어 익히기

4.1. 자음의 표기

- (1) ㄱ. 카페/*까페, 파리/*빠리, 버스/*빠스
 ㄴ. 시스템/*씨스템, 센터/*쎄터, 취리히/*쥘리히
 ㄷ. 마오쩌둥, 쑨원
 ㄹ. 빵, 껌, 히로뽕, 빠라
 ㄴ. 빠따니(타이 지명), 푸껏(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우리말의 파열음은 소리 특징에 따라 예사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ㅃ, ㅆ, ㅍ)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 두 가지 구분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각각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어의 [k, t, p] 소리는 ‘ㅋ, ㅌ, ㅍ’으로, [g, d, b] 소리는 ‘ㄱ, ㄷ, ㅂ’으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 ‘*까페, *빠리, *빠스’와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카페, 파리, 버스’ 등이 바른 표기이다.

파열음뿐만 아니라 마찰음(ㄴ, ㄷ)과 파찰음(ㅈ, ㅊ, ㅌ) 표기를 할 때에도 된소리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ㄴ)에서 ‘*씨스템, *쎄터, *쥘리히’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시스템, 센터, 취리히’ 등이 바른 표기이다.

그렇지만, (ㄷ)에서 보듯이, 중국어 표기에는 ‘ㄴ’과 ‘ㄷ’을 사용한다. 또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ㄷ)에서처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 그리고 자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타이 어와 베트남 어에는, (ㄷ)에서처럼,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

- (2)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 글자로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의 일곱 가지만 쓸 수 있다.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 표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잎, 꽃, 밭, 값’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에 대해서는 겹자음을 포함한 모든 자음들이 받침으로 사용된다. 고유어를 표기할 때 ‘ㄷ, ㅌ, ㅍ,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그것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더라도 모음 앞에 올 때에는 그 음가(音價)대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잎’을 ‘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잎이[이피]’, ‘잎을[이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ㅍ’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커피쇼피], [디스케

티], [코너키키]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쇼비], [디스케시], [코너키기]로 발음하므로 ‘커피쑈, 디스켈, 코너킥’으로 표기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커피쑈, 디스켓, 코너킥’이 바른 표기이다.

(3) ㄱ.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넷

ㄴ. 테이프/*테입/*테옌,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ㄷ.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ㄹ. 넷/*넷, 세트/*셋/*셀, 매트/*맷

ㅁ.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벡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ㄱ)에서처럼, 어말이나 자음 앞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고, (ㄴ)에서처럼,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 그리고 (ㄷ)에서처럼, 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 그러나 (ㄹ)에서처럼,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 한편, (ㅁ)에서처럼,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로봇, 카펫, 인터넷,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넷, 세트, 매트,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가 맞는 표기이다.

(4) ㄱ. 허브/*헵, 개그/*객

ㄴ. 핸드백/*핸드배그, 웹/*웹브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항상 ‘으’를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에서는 ‘허브, 개그’가 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ㄴ)에서 맞는 표기는 ‘핸드백, 웹’이다.

(5) 파이팅/*화이팅, 패밀리/*웨미리, 프라이/*후라이

[f] 소리는 항상 ‘ㅍ’으로 적는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f]를 ‘후’나 ‘호’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f]와 [p]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두 ‘ㅍ’으로 적으므로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가 맞는 표기이다.

(6) ㄱ. 슈미트/*시미트/*쉬미트

ㄴ. 대시/*대쉬, 플래시(flash)/*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ㄷ. 패션/*패손,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섹스피어

ㄹ.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아인쉬타인, 타슈켄트/*타시켄트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는 ‘슈미트’가 맞는 표기이고, (ㄴ)에서는 ‘대시, 잉글리시, 플래시, 리더쉽’이 맞는 표기이다.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ㄷ)의 ‘fashion[fæʃən]’, ‘shopping[ʃɒpiŋ]’, ‘Shakespeare[ʃeɪkspiə]’ 등의 [ʃ]는 뒤의 모음과 합쳐져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로 적어야 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 따라서 (ㄹ)에서 독일 사람인 ‘Einstein’은 ‘아인슈타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Tashkent’는 ‘타슈켄트’로 적는 것이 맞다.

(7)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잡

[dʒ, tʃ]는 모음 앞에서는 ‘즈, 츠’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앞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소리들이 올 때에 흔히 앞에 ‘스’ 받침을 넣어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케첩’이 바른 표기이다.

(8)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르’로 적는다. 다만 낱말 중간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바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르’를 겹쳐 ‘르르’로 적는다. 예컨대,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이 맞는 표기이다.

4.2. 모음의 표기

(1)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털/*디지틀, 터미널/*터미날

[ə]는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center[sɛntə]는 ‘센터’로, digital[dɪdʒɪtəl], terminal[tɜːminəl]은 각각 ‘디지털’과 ‘터미널’로 적어야 한다. 특히 digital, terminal 표기에서 철

자 a에 이끌려 ‘*디지털, *터미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다.

- (2) ㄱ.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ㄴ.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ㄷ. 톱/*탑, 솥/*삽, 보디/*바디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오’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려 ‘어’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라서 사람에 따라 ‘오’로 적기도 하고 ‘어’로 적기도 하나 ‘오’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의 예들은 [kɔn]으로 소리 나니까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로 적어야 한다.

(ㄴ)에 있는 예들은 발음이 [kən]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로 적어야 한다. 흔히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발음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ㄷ)은 [ɔ]로 소리가 나는 것들이므로 ‘아’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탑, *삽, *바디’가 아닌, ‘톱, 솥, 보디’로 적어야 한다.

- (3) 켈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위의 예들은 [ɹ] 소리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ɹ]는 듣기에 따라 ‘야’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칼라, *카바, *하니’ 등의 표기가 더러 눈에 띄는데, ‘켈러, 커버, 허니’로 적어야 맞다.

- (4) ㄱ.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윈도/*윈도우
 ㄴ.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음가가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이들은 ‘오우’나 ‘아우어’로 적을 경우에 원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 ‘아워’로 적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boat[bout], coat[cout], bonus[bóunəs]는 ‘*보우트, *코우트, *보우너스’로 적지 않고, ‘보트, 코트, 보너스’로 적어야 하며, yellow[jélou]나 window[wíndou] 같은 경우도 ‘옐로, 윈도’로 적어야 한다.

(ㄴ)은 [auə]로 소리 나는 것들이므로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로 적어야 맞다.

(5) ㄱ.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ㄴ.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오사카’, ‘*뉴우욕’ 등 모음을 겹쳐 쓴 표기는 틀린 형태이며 각각 ‘오사카’, ‘뉴욕’으로 적어야 옳다. 고유어나 한자어 중에도 ‘밤:[粟] 대 밤[夜]’, ‘눈[眼] 대 눈:[雪]’ 등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 쌍들이 있으나 이들을 ‘*바암, *누운’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래어에서도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ㄴ)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따위 용어들과 관련성을 밝혀 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명칭도 ‘락타아제, 말타아제’ 등 다른 효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모음의 겹침을 허용한 것이다. ‘알마아타’의 경우는 원어가 Alma Ata이므로 ‘*알마타’가 아니라, ‘알마아타’로 적게 된다.

(6) 주니어/*주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 ‘ㅈ’이나 ‘ㅊ’ 뒤에 이중 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ㅈ, ㅊ’ 같은 경구개음은 그 뒤에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잠자다’를 [잠자다]로 발음하거나 ‘전화’를 [전화]로 말해도 뜻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로 쓰는 것이 맞다.

4.3. 그 밖의 표기 세칙

(1) 로그인/*로긴, 아울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원어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log in’이란 말은 ‘로그’와 ‘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로그인’으로 적는다. 원어의 발음이 ‘*로긴’, ‘*로가웃’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는다. ‘아울렛,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이다.

- (2) ㄱ. Charles: 찰스(영), 샤를(불)
 ㄴ.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어 철자가 같은 말들이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영어권 사람의 이름이라면 ‘찰스’라고 해야 하지만 프랑스 어 사용 지역의 사람 이름이라면 ‘샤를’이라고 적는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도에 보면 San Jose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철자를 쓰지만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글로는 전혀 다르게 적힌다.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그 수도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라 ‘산호세’라고 적어야 하며, 미국 도시는 영어 발음 [sænəˈdʒeɪ]에 따라 ‘새너제이’로 적는다.

- (3) ㄱ. 라디오/*레이디오, 시보레/*세브렐레이
 ㄴ. 컷/커트, 타입/타이프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 radio는 발음이 [réidiðu]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레이디오’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말이므로 ‘라디오’를 옳은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인 Chevrolet는 프랑스 어에서 온 말로 [ʃevrəlɛi]라는 발음에 따르면 ‘*세브렐레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어를 통해서 ‘시보레’로 들여와 오랫동안 쓰여 왔던 관용을 인정해 ‘시보레’로 적도록 한다. (ㄴ)의 예들은 관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들이다. 같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한 예들이다. ‘컷’은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깎아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 (4) ㄱ. 鹿兒島: 가고시마/*녹아도,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ㄴ. 杭州: 항저우/*항주
 孔子: 공자/*콩쯔, 孟子: 맹자/*멍쯔
 張國榮: 장귀룽/*장국영, 張藝謀: 장이머우/*장예모
 ㄷ. 北京: 북경/베이징, 東京: 동경/도쿄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鹿兒島(かごしま)’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코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이등박문’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현대인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서 표기한다. 따라서 ‘張國榮(Zhāng Guó róng)’은 ‘장국영’이 아니라 ‘장 귀룽’으로, ‘張藝謀(Zhāng Yì móu)’는 ‘장예모’가 아니라 ‘장이머우’로 표기해야 한다. 중국 인명을 표기할 때 고대인과 현대인의 구분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長安: 장안/*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ㄷ)의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부록>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 자 음 | | | 반모음 | | 모 음 | |
|--------|-------|---------------|--------|-------|--------|-----|
| 국제음성기호 | 한 글 | | 국제음성기호 | 한 글 | 국제음성기호 | 한 글 |
| | 모음 앞 | 자음 앞 또는 어말 | | | | |
| p | ㅍ | ㅍ, 프 | | | | |
| b | ㅂ | 브 | | | | |
| t | ㅌ | ㅌ, 트 | | | | |
| d | ㄷ | 드 | | | | |
| k | ㅋ | ㄱ, 크 | | | i | 이 |
| g | ㄱ | 그 | | | y | 이 위 |
| f | ㅍ | 프 | | | e | 에 |
| v | ㅂ | 브 | | | ø | 외 |
| θ | ㅌ | 스 | | | ɛ | 에 |
| ð | ㄷ | 드 | | | ɛ̃ | 앵 |
| s | ㅌ | 스 | | | œ | 외 |
| z | ㅌ | 즈 | | | œ̃ | 외 왕 |
| ʃ | 시 | 슈, 시 | j | 이* | æ | 애 |
| ʒ | ㅌ | 지 | ɥ | 위 | a | 아 |
| ts | ㅌ | 츠 | w | 오, 우* | ã | 아 양 |
| dz | ㅌ | 즈 | | | ʌ | 어 |
| tʃ | ㅌ | 치 | | | ɔ | 오 |
| dʒ | ㅌ | 지 | | | ɔ̃ | 옹 |
| m | ㅁ | ㅁ | | | o | 오 |
| n | ㄴ | ㄴ | | | u | 우 |
| ɲ | 니* | 뉴 | | | ə** | 어 |
| ŋ | ㅇ | ㅇ | | | ə̃ | 어 |
| l | ㄹ, ㄹㄹ | ㄹ | | | | |
| r | ㄹ | ㄹ | | | | |
| h | ㅎ | ㅎ | | | | |
| ç | ㅎ | 히 | | | | |
| x | ㅎ | 흐 | | | | |

<참고>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 원어 | 맞는 표기 | 틀린 표기 |
|------------|-------|--------------------|
| accessory | 액세서리 | 악세사리 |
| ad lib | 애드리브 | 에드립 |
| barbecue | 바비큐 | 바베큐 |
| battery | 배터리 | 빠떼리, 뽏테리, 밧테리 |
| biscuit | 비스킷 | 비스켓 |
| blind | 블라인드 | 브라인드 |
| body | 보디 | 바디 |
| buffet(프) | 뷔페 | 부페 |
| business | 비즈니스 | 비지니스 |
| cake | 케이크 | 케익, 케익 |
| cardigan | 카디건 | 가디건 |
| catalog | 카탈로그 | 카다로그, 가다록 |
| centimeter | 센티미터 | 센치미터 |
| chocolate | 초콜릿 | 초코렛, 초콜렛, 초컬릿, 초코렛 |
| collection | 컬렉션 | 콜렉션 |
| color | 컬러 | 칼라 |
| cover | 커버 | 카바 |
| cunning | 커닝 | 컨닝 |
| contents | 콘텐츠 | 컨텐츠 |
| curtain | 커튼 | 커텐 |
| data | 데이터 | 데이타 |
| digital | 디지털 | 디지탈, 디지틀 |
| encore(프) | 앙코르 | 앵콜 |
| enquête(프) | 앙케트 | 앙케이트 |
| fighting | 파이팅 | 화이팅 |
| flash | 플래시 | 후레시, 후레쉬 |
| flute | 플루트 | 플룻, 플룻 |
| fresh | 프레시 | 프레쉬, 후레쉬, 후레시 |
| frypan | 프라이팬 | 후라이판, 후라이팬 |
| gas range | 가스레인지 | 가스렌지 |
| giant | 자이언트 | 자이안트, 자이언트 |
| Hollywood | 할리우드 | 할리웃, 헐리우트, 헐리웃 |

| | | |
|-------------|--------|------------------|
| juice | 주스 | 쥬스 |
| 원어 | 맞는 표기 | 틀린 표기 |
| Las Vegas | 라스베이거스 | 라스베가스 |
| makeup | 메이크업 | 메이컵 |
| mania | 마니아 | 매니아 |
| massage | 마사지 | 맛사지 |
| motor | 모터 | 모타 |
| network | 네트워크 | 네트웍, 네트월 |
| nonsense | 난센스 | 넌센스 |
| nylon | 나일론 | 나이론 |
| pamphlet | 팸플릿 | 팜플렛 |
| panda | 판다 | 팬더 |
| panel | 패널 | 판넬 |
| placard | 플레카드 | 프레카드, 플랭카드 |
| plaza | 플라자 | 프라자 |
| radar | 레이더 | 레이다 |
| royal | 로열 | 로얄 |
| sash | 새시 | 샤시, 샷슈, 샷시 |
| sausage | 소시지 | 소세지 |
| set | 세트 | 셋, 셋트, 셀 |
| shutter | 셔터 | 샷다, 샷따, 샷타 |
| sofa | 소파 | 쇼파 |
| soup | 수프 | 스프, 슌 |
| special | 스페셜 | 스페샬 |
| staff | 스태프 | 스텝, 스탠 |
| sunglass | 선글라스 | 썬그라스 |
| supermarket | 슈퍼마켓 | 수퍼마켓, 수퍼마켈, 슈퍼마켈 |
| symbol | 심볼 | 심볼 |
| talent | 탤런트 | 탈렌트 |
| tape | 테이프 | 테프, 테입, 테요 |
| total | 토틸 | 토탈 |
| workshop | 워크숍 | 워크샵 |

5. 연습 문제

※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에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 [01] 카페/까페, 파리/빠리, 버스/빠스
- [02] 시스템/씨스템, 센터/쎄터, 취리히/쥘리히
- [03]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 [04]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네트
- [05] 테이프/테입/테요,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 [06]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 [07] 넷/넛, 세트/셋/셀, 매트/멧
- [08]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벡
- [09] 허브/헝, 개그/객
- [10]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훼미리, 프라이/후라이
- [11] 슈미트/시미트/쉬미트
- [12] 대시/대쉬, 플래시/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 [13] 패션/패순,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섹스피어
- [14]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잡
- [15]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 [16]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 [17]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 [18]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 [19] 톱/탐, 솜/샵, 보디/바디
- [20]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 [21]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 [22]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 [23]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 [24]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 [25]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져, 찬스/찬스, 벤처/벤처
- [26] 로그인/로긴, 아울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 [27] 가고시마/녹아도
- [28]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 [29] 향저우/향주
- [30] 공자/콩쯔, 맹자/멍쯔

♠ 정답 ♠

- [01] 카페, 파리, 버스
- [02] 시스템, 센터, 취리히
- [03] 커피숍, 디스켓, 코너킥
- [04] 로봇, 카펫, 인터넷
- [05]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 [06]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 [07] 넷, 세트, 매트
- [08]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
- [09] 허브, 개그
- [10]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
- [11] 슈미트
- [12] 대시, 플래시, 잉글리시, 리더십
- [13]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
- [14]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캐첩
- [15]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
- [16] 센터, 디지털, 터미널
- [17]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
- [18]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
- [19] 톱, 솥, 보디
- [20] 컬러, 커버, 허니
- [21] 보트, 코트, 보너스, 옐로
- [22]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
- [23] 오사카, 뉴욕
- [24] 알코올, 아밀라아제, 알마아타
- [25]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
- [26] 로그인, 아웃렛, 메이크업
- [27] 가고시마
- [28] 이토 히로부미
- [29] 항저우
- [30] 공자, 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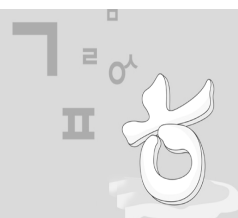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정 희 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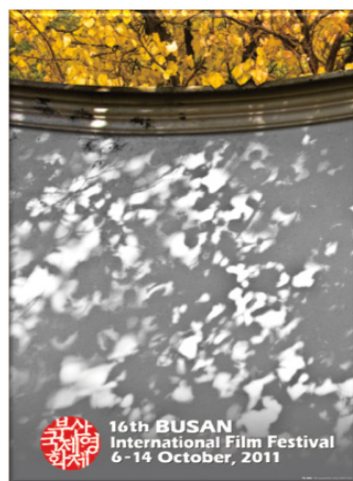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을 말한다.¹⁾ 그런데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보면 로마자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외국인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한국에 왔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에는 ‘PUSAN’으로 쓰여 있었는데 터미널 사이트에는 아무리 찾아도 ‘PUSAN’이라는 행선지가 없는 것이었다. 친구에게 물어 보니 ‘Busan’으로 가라고 한다. 예매한 표에는 ‘Busan’이라고 찍혀 있다.



1) 흔히 a, b, c, d, ……를 ‘영문자’라고 부르고 ‘영문 표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로마자’로 하는 것이 옳다. a, b, c, d, ……는 영어의 표기 문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알바니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가 a, b, c, d, ……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a, b, c, d, ……라는 문자의 이름인 ‘로마자’로 쓴 것이다.

이 외국인은 부산에 가는 내내 자신이 정말 부산국제영화제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부산’과 ‘부산시’를 다른 곳이라고 오해하는 외국인도 있다.²⁾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어를 적는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하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 경위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 1939년에 미국인 매큐와 라이샤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그런데 이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영어 사용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표기법으로서 영어 사용자에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따르기에는 매우 불편한 표기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음운 대립을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달/탈/딸’은 다른 단어인데, ‘ㄷ/ㅌ/ㄸ’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이 세 가지 대립을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다달’은 ‘tadal’로 표기하면서 ‘달’은 ‘tal’, ‘탈’은 ‘tal’로 표기해야 한다. 즉, ‘ㄷ’은 어두에서는 ‘t’로,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는 ‘d’로 구분하면서 ‘ㄷ’과 ‘ㅌ’은 똑같은 ‘t’로 하되 ‘ㅌ’에 어긋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은 반드시 구별해야 할 ‘ㄷ’과 ‘ㅌ’의 구별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다달’의 두 ‘ㄷ’(무성음과 유성음)에는 완전히 다른 기호를 부여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에 한차례 개정되었으나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을 근간으로 한 것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1984년에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은 특히 다음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특수 부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반달표(˘: ð, ù)와 어긋점(: t', p', k', ch') 같은 특수 부호는 컴퓨터에서 입력하거나 검색하기가 불편하여 사람들이 사용을 꺼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특수 부호를 생략하고 나면 우리말의 중요한 대립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말에서 구분되지 않는 자음의 유무성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동’을 ‘Todong’으로 적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무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므로 같은 ‘ㄷ’을 t와 d로 달리 적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로마자 표기를 2011년 2월 24일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다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자음을 국어의 언어 체계를 반영하여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구분하여 적으며, 표기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반달표나 어긋점과 같은 특수 부호를 쓰지 않는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3.1. 기본 원칙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라’는 [신라]로 소리 나지 않고 [실라]로 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Silla’로 적는다. ‘왕십리’ 역시 [왕십니]로 소리 나므로 발음대로 ‘Wangsimni’로 적어야 한다.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Wangsipri’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발음할 것이고, 그 발음은 우리가 알아듣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기본 원칙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2000년 7월 개정되기 전 사용되던 ‘맥클라이샤워 표기법’에는 반달표(˘)와 어긋점(ˊ) 등의 특수 부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반달표(˘)는 ‘ㄷ(δ)’와 ‘ㅡ(ü)’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부호가 포함된 표기는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하여 오히려 잘못된 표기를 양산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영’은 맥클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yǒng’으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반달표를 입력하기 어려워 반달표를 입력하지 않고 ‘yong’으로 적기도 하였다. ‘yong’이란 표기는 ‘용’으로 읽혀 ‘영’과 ‘용’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을왕’도 마찬가지이다. 맥클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을왕’은 ‘ŭlwang’으로 적어야 하는데 반달점을 표기하지 않은 ‘Ulwang’이 쓰이게 되면서 ‘을왕’과 ‘울왕’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2000년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맥클라이샤워 표기법에서는 어긋점(ˊ)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ㅍ’은 ‘p’으로, ‘ㅌ’은 ‘t’으로, ‘ㅋ’은 ‘k’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ㅂ, ㄷ, ㄱ’은 음절의 첫소리로 올 때는 ‘p,

t, k'로 모음 사이에서는 'b, d, g'로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인의 언어 의식과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가구'라는 단어는 개정되기 전의 로마자 표기에 따르면 'kagu'로 써야 했다. 같은 자음인 'ㄱ'을 환경에 따라(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따라) 'k'와 'g'로 구별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ㄱ'과 다른 음소인 'ㅋ'은 'k'에 어랫점(.)만 더하여 'k'와 같이 표기하였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ㅍ, ㅌ, ㅋ'에 사용되던 어랫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ㅍ, ㅌ, ㅋ'는 'p, t, k'로, 'ㅂ, ㄷ, ㄱ'는 'b, d, g'로 표기한다.

그런데 위의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는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이름의 표기,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표기 일람: 모음과 자음의 표기

4.1. 모음

국어 모음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한다.

| 단모음 | ㅏ | ㅑ | ㅓ | ㅕ | ㅡ | ㅣ | ㅞ | ㅟ | ㅛ | ㅜ |
|-----|---|----|---|---|----|---|----|---|----|----|
|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 이중모음 | ㅟ | ㅠ | ㅡ | ㅢ | ㅤ | ㅥ | ㅦ | ㅧ | ㅨ | ㅩ | ㅪ |
|------|----|-----|----|----|-----|----|----|-----|----|----|----|
|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이중모음은 단모음 표기에 'y'나 'w'를 결합하여 만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ㅛ'를 'weo'가 아닌 'wo'로 적는다는 것이다. 다른 표기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wo'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의 단위인 '원'은 'weon'으로 적지 않고 'won'으로 적는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ㅟ'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희망'의 표준 발음은 [히망]이지만, 'himang'으로 적지 않고 'huimang'으로 적는다. 모음 'ㅟ'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데, 그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ui'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1) ㄱ. 강원 Gangwon, 원주 Wonju, 춘권 chungwon
 ㄴ. 의성 Uiseong, 신의주 Sinuiju, 구의 Guui, 동의보감 Donguibogam

4.2. 자음

국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 파열음 |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ㅂ | ㅃ | ㅍ |
|-----|------|----|---|------|----|---|------|----|---|
|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 파찰음 | ㅈ | ㅉ | ㅊ |
|-----|---|----|----|
| | j | jj | ch |

| 마찰음 | ㅅ | ㅆ | ㅎ |
|-----|---|----|---|
| | s | ss | h |

| 비음 | ㄴ | ㅁ | ㅇ |
|----|---|---|----|
| | n | m | ng |

| 유음 | ㄹ |
|----|------|
| | r, l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모음 앞’과 ‘자음 앞이나 어말’에 관한 규정이 ‘ㄱ, ㄷ, ㅂ’에만 있는 것은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일곱 가지,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며, 이외의 다른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위의 7자음 가운데 하나인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보복’은 ‘bobok’으로, ‘도덕’은 ‘dodeok’으로 적는다. 그리고 ‘부엌’의 어말 표기는 ‘ㄱ’이지만 발음이 [부억]이므로 ‘bueok’으로 적는다.

- (2) ㄱ. 보복 bobok, 도덕 dodeok
 부엌 bueok, 동녘 dongnyeok
 밖 bak
 ㄴ. 밥 bap, 법 beop
 앞 ip

‘남, 낫, 낫, 낫’은 모두 [남]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nat’이 된다. ‘벚꽃’은 [번꼇]으로 소리 나므로 ‘boejkkoch’이 아니라 ‘beotkkot’으로 적는다. ‘있다’도 표기대로 적으면 ‘issda’로 적겠지만, ‘있’이 [임]으로 소리 나므로 ‘itda’로 적는다.

- (3) ㄱ. 남 nat, 걷기 geotgi
 ㄴ. 낫 nat, 못 mot, 송곳산 Songgotsan
 ㄷ. 낫 nat, 벚꽃 beotkkot
 ㄹ. 낫 nat, 좇다 jotda
 ㅁ. 낫 nat, 있다 itda

유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이 겹쳐서 소리 나는 경우, 즉 앞 음절의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모두 ‘ㄹ’이면 ‘ll’로 적는다. 따라서 ‘나라’는 ‘nara’로 적으나, ‘달라’는 ‘dalla’로 적는다. ‘달나라’는 [달라라]로 소리 나므로 ‘dallara’로 적는다.

- (4) ㄱ. 나라 nara
 ㄴ. 달라 dalla
 ㄷ. 달나라 dallara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실제

5.1. 음운 변화

5.1.1. 자음 동화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이 또는 두 음운 모두가 바뀌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우리말을 발음할 때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바뀐다.

| | |
|----------|----------------------|
| 국민[궁민] | gungmin/*gukmin |
| 백마[뱅마] | Baengma/*Baekma |
| 닫는다[단는다] | danneunda/*datneunda |
| 갑문[감문] | Gammun/*Gapmun |

- ② ‘ㄹ’은 ‘ㄹ,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 | |
|--------|----------------|
| 종로[종노] | Jongno/*Jongro |
| 삼례[삼례] | Samnye/*Samrye |

- ③ ‘ㄱ, ㅂ’ 뒤에 ‘ㄹ’이 오면 ‘ㄱ, ㅂ’은 ‘ㅇ, ㄹ’으로, ‘ㄹ’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 | |
|----------|----------------------|
| 속리산[송니산] | Songnisan/*Sokrisan |
| 곡릉[궁릉] | Gongneung/*Gokreung |
| 왕십리[왕십니] | Wangsimni/*Wangsipri |

- ④ ‘ㄴ’ 다음에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뀔 수도 있고, ‘ㄹ’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다.³⁾

| | |
|----------|------------------------------|
| 신라[실라] | Silla/*Sinra |
| 대관령[대괭령] | Daegwallyeong/*Daegwanryeong |
| 이원론[이원논] | iwonnon/*iwollon |

- ⑤ ‘ㄹ’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 | |
|--------|----------------------|
| 선릉[설릉] | Seolleung/*Seonneung |
| 별내[별래] | Byeollae/*Byeolnae |

3) 이원론, 임진란, 동원령, 생산량 등과 같이 한자어 뒤에 일음절의 한자어가 결합할 때 ‘ㄹ’이 ‘ㄴ’으로 소리가 바뀐다.

5.1.2. 음의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 소리는 위의 자음 동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이렇게 첨가되는 ‘ㄴ’이나 ‘ㄹ’ 음은 표기에 반영한다.

| | |
|-----------------|--|
| (5) ㄱ.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Hagyeoul, *Hakyeoul |
| 색연필[생년필] | saengnyeonpil/*saegyeonpil, *saekyeonpil |
| ㄴ. 알약[알략] | allyak/*aryak, *alyak |
| 솔잎[솔립] | sollip/*sorip, *solip |

5.1.3. 구개음화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ㅈ’이나 ‘ㅊ’으로 바뀐다. 이 구개음화 현상도 우리말의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 |
|---------------|------------------|
| (6) ㄱ. 같이[가치] | gachi/*gati |
| ㄴ. 해돋이[해도지] | haedoji/*haedodi |

5.1.4. 거센소리화

‘ㄱ, ㄷ, ㅂ, ㅅ’가 ‘ㅎ’와 만나면 거센소리 ‘ㅋ, ㅌ, ㅍ, ㅈ’로 소리 나는데, 이 역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좋다’는 ‘jota’로 표기한다. 다만 명사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목호’는 ‘Muko’가 아닌 ‘Mukho’로 표기한다.

| | |
|-----------|--------------------------|
| (7) ㄱ. 좋다 | jota/*johda |
| ㄴ. 목호 | Mukho/*Muko |
| 집현전 | Jiphyeonjeon/*Jipyenjeon |

5.1.5. 된소리화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령, ‘애국가’는 [애국까]로 소리

나는데, ‘가’가 [ㄱ]로 소리 나는 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불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애국가’는 ‘Aegukkka’라고 적지 않고 ‘Aegukga’라고 적어야 한다.

- | | |
|-----------|-----------------------|
| (7) ㄱ. 울산 | Ulsan/*Ulssan |
| ㄴ. 압구정 | Apgujeong/*Apkkujeong |

5.2. 붙임표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스’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붙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 | |
|-----------|------------------|
| (8) ㄱ. 세운 | Seun/Se-un |
| ㄴ. 중앙 | Jungang/Jung-ang |

5.3. 소문자와 대문자

고유 명사는 첫 글자만을 대문자로 적는 것(부산 Busan)이 원칙이다.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BUSAN) 음절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쓰거나(BuSan) 혹은 모두 소문자로 쓰는 것(busan)은 잘못이다. 고유 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적는다.

- | | |
|-----------|-------------------------|
| (9) ㄱ. 부산 | Busan/*BUSAN, *BuSan |
| ㄴ. 전주 | Jeonju/*JEONJU, *JeonJu |

5.4. 인명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며,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한국 사람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므로 굳이 서양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쓸 필요가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마자로 성명을 적을 때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나리 Na-ri)도 허용하고 있다.

- (10) ㄱ. 송나리 Song Nari(Song Na-ri)/*Nari Song, *SongNari
 ㄴ. 홍길동 Hong Gildong(Hong Gil-dong)/*Hong Gil Dong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사람의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복남’은 [한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Han Boknam’으로 적는다. 이름은 음절 각각을 따로 읽었을 때의 소리대로 적는다.

- (11) ㄱ. 한복남 Han Boknam(Han Bok-nam)/*Han Bongnam
 ㄴ. 유빛나 Yu Bitna(Yu Bit-na)/*Yu Binna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사람들은 ‘성’의 표기를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가 ‘i’인데도, 성씨 ‘이’를 ‘I’로 표기하지 않고 ‘Lee’로 표기하거나 ‘Yi’로 적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책에서 ‘이순신’ 장군을 ‘Yi Sunsin’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5.5. 행정 구역명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단위(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와 ‘가’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Chungcheongbuk-do’로 적는다. 이를 ‘Chungcheongbukdo’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Chungcheong-bukdo’, ‘Chungcheongbuk Province’라고 표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 (12) ㄱ.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Chungcheongbukdo
 ㄴ. 의정부시 Uiyeongbu-si/*Uiyeongbusi
 ㄷ. 도봉구 Dobong-gu/*Dobonggu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왕리’는 [인왕니]로 발음되지만 ‘Inwangni’ 혹은 ‘Inwang-ni’라고 적지 않고 ‘Inwang-ri’라고 표기한다.

- (13) ㄱ. 인왕리 Inwang-ri/*Inwangni, *Inwang-ni
 ㄴ. 삼죽면 Samjuk-myeon/*Samjukmyeon, *Samjungmyeon

참고로 행정 구역 단위인 ‘도’와 섬을 의미하는 ‘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울릉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닌 ‘섬’을 뜻하므로, ‘울릉도’를 표기할 때에는 붙임표를 쓰지 않아야 한다. 즉, ‘Ulleung-do’로 표기하지 않고 ‘Ulleungdo’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Jeju-do’로 적는다.

- (14) ㄱ. 울릉도 Ulleungdo/*Ulleung-do
 ㄴ. 제주도 Jeju-do/*Jejudo

그리고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는 ‘Cheongju-si’로 표기하지만 ‘Cheongju’라고 써도 된다. ‘함평군’은 ‘Hampyeong’으로, 순창읍 ‘Sunchang’으로 쓸 수 있다.

5.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자연 지물명인 ‘남산’, ‘금강’ 등을 ‘Mt. Nam’, ‘Geum River’로 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Namsan’, ‘Geumgang’이라고 쓰면 ‘산’과 ‘강’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Mt.’와 ‘River’ 등을 통해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 명사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표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산’은 ‘남’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남산’ 전체가 고유 명사이고, ‘금강’은 ‘금’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금강’ 전체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산’과 ‘금강’은 각각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서도 안 된다.

- (15) ㄱ. 남산 Namsan/*Mt. Nam, *Nam-san
 ㄴ. 금강 Geumgang/*Geum River, *Geum-gang

이것은 문화재인 ‘경복궁, 안압지, 불국사, 독립문, 다보탑’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은 ‘경복, 안압, 불국, 독립, 다보’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름 전체가 고유 명사이므로,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 등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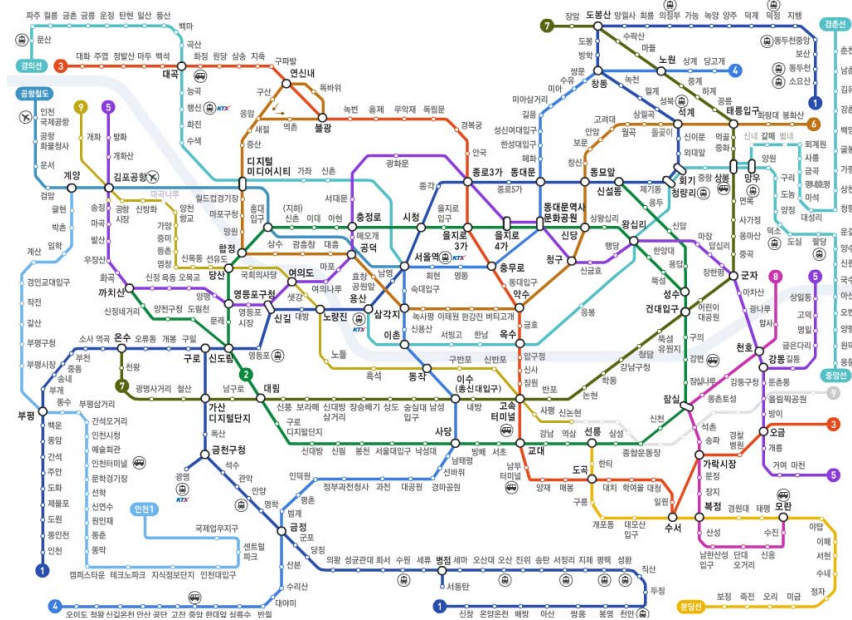
| | |
|-------------|-------------------------------|
| (16) ㄱ. 경복궁 | Gyeongbokgung/*Gyeongbok-gung |
| ㄴ. 안압지 | Anapji/*Anap-ji |
| ㄷ. 불국사 | Bulguksa/*Bulguk-sa |
| ㄹ. 독립문 | Dongnimmun/*Dongnim-mun |
| ㅁ. 다보탑 | Dabotap/*Dabo-tap |

5.7. 인명, 회사명, 단체명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회사명과 단체명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표기를 수정할 경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은 회사명을 각각 ‘Samsung, Hyundai’로 표기한다. 이를 규정에 맞게 표기하면 ‘Samseong, Hyeondae’가 될 것이다. 하지만 회사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바꾸면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그동안 써 온 로마자 표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익혀 올바른 표기로 써야 할 것이다.

[연습 문제]

1. 다음은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다음 역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 보세요.



- | | | |
|-----------|---------|----------|
| 1) 의정부 | 2) 여의도 | 3) 백석 |
| 4) 독섬 | 5) 답십리 | 6) 신림 |
| 7) 학여울 | 8) 선릉 | 9) 태릉 |
| 10) 일원 | 11) 둔촌동 | 12) 목동 |
| 13) 종로 3가 | 14) 을지로 | 15) 몽촌토성 |
| 16) 광화문 | | |

2. 다음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로마자로 표기해 보세요.

- | | | |
|---------|---------|---------|
| 1) 한글 | 2) 한복 | 3) 태권도 |
| 4) 아리랑 | 5) 제주도 | 6) 독도 |
| 7) 한라산 | 8) 속리산 | 9) 무량수전 |
| 10) 석굴암 | 11) 동대문 | 12) 광화문 |
| 13) 경복궁 | 14) 창덕궁 | 15) 불국사 |
| 16) 화엄사 | 17) 김치 | 18) 비빔밥 |
| 19) 불고기 | 20) 떡볶이 | |

[연습 문제 답]

1.

- | | |
|--------------------------|-------------------------|
| 1) 의정부 Uijeongbu | 2) 여의도 Yeouido |
| 3) 백석 Baekseok | 4) 푼섬 Ttukseom |
| 5) 답십리 Dapsimni | 6) 신림 Sillim |
| 7) 학여울 Hangnyeoul | 8) 선릉 Seolleung |
| 9) 태릉 Taereung | 10) 일원 Irwon |
| 11) 둔촌동 Dunchon-dong | 12) 목동 Mok-dong |
| 13) 종로 3가 Jongno 3-ga | 14) 을지로 Euljiro |
| 15) 몽촌토성 Mongchontoseong | 16) 광흥창 Gwangheungcha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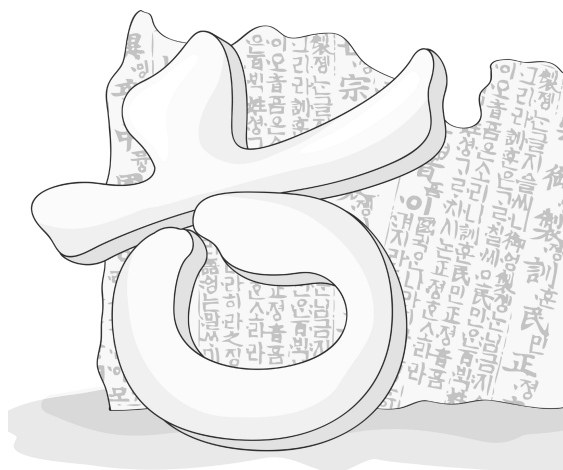
2.

- | | |
|----------------------------|-----------------------|
| 1) 한글 Hangeul | 2) 한복 hanbok |
| 3) 태권도 taegwondo/taekwondo | 4) 아리랑 arirang |
| 5) 제주도 Jeju-do | 6) 독도 Dokdo |
| 7) 한라산 Hallasan | 8) 속리산 Songnisan |
| 9) 무량수전 Muryangsujeon | 10) 석굴암 Seokguram |
| 11) 동대문 Dongdaemun | 12) 광화문 Gwanghwamun |
| 13) 경복궁 Gyeongbokgung | 14) 창덕궁 Changdeokgung |
| 15) 불국사 Bulguksa | 16) 화엄사 Hwaelemsa |
| 17) 김치 gimchi/kimchi | 18) 비빔밥 bibimbap |
| 19) 불고기 bulgogi | 20) 떡볶이 tteokbokki |

※ ‘태권도’와 ‘김치’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taegwondo’와 ‘gimchi’로 적는 것이 맞으나, ‘taekwondo’, ‘kimchi’로 많이 쓰이므로 이를 인정한다.

대학 교양 국어와 어문 규정 교육 구성

이 재 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대학 교양 국어와 어문 규정 교육 구성



1. 대학 교양 국어에 국어 어문 규정 교육 연계 방안

1.1 글쓰기 교육에서 어문 규정 교육의 위치

1) 글쓰기 교육에서 계류과 같은 존재

- ① 전통적으로 글쓰기 교육의 한 영역임
 - 표기의 규범으로 글말 의사소통의 기본
- ② 어문 규정 교육 자체는 글쓰기 능력 향상과 무관함
 - 문장: 글쓰기 교육의 최소 단위
 - 어휘: 의미적 측면에서 유효

2) 글쓰기 교육에서 평가의 심리적 척도

- ① 글에 대한 부가가치 생산
- ② 객관적인 평가 요소
- ③ 글쓰기 능력 향상에 간접적인 기여
 - 글쓰기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 형성

1.2 말하기 교육에서 어문 규정 교육의 위치

1) 표준 발음으로 말하기의 도구

- ① 가려고 → [가려고]
*[갈려고] → *갈려고
- ② 단모음 / 이중모음
(예) 위 / 외
- ③ 허용 발음

(예) 민주주의의 의의 → [민주주의의 의의/민주주의에 의의]

2) 표준 발음으로 읽기의 도구

- ① 익숙하지 → 익숙지 [익숙찌]
편안하지 → 편안치 [편안치]
- ② 갈게 → [갈께]
- ③ *뵈, 선릉, 인류, *몇요일, 띄어쓰기
- ④ 서울에서는[서울에서는] / *서울에선[서울에선] : 나는[나는] / 난[난]

2. 대학 글쓰기에서 국어 어문 규정 교수·학습 구성 방안

2.1 국어 어문 규정 교수 방안

1) 강의 목표 설정

- ① 어문 규정의 필요성 인식
- ② 어문 규정에 대한 오해 불식
- ③ 실용도 높은 것 중심으로, 90%만이라도 제대로
- ④ 시험을 위한 교육 지양

2) 강의 시간 및 강의 내용 선정

- ① 6주~~7주차에 강의 배정
- ② 바른 문장 쓰기 바로 다음에 강의
- ③ 2~3시간에 교육할 수 있는 내용 선정

| 글쓰기 학점 시수 | 어문 규정 강의 시수 |
|------------|-------------|
| 3학점 3(4)시간 | 2시간~3시간 |
| 2학점 2시간 | 최대 2시간 |

3) 교수 방법

- ①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 정하기
 -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표기 우선
(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1~4년 간 데이터를 축적해야 함)
 - 현재 방송, 광고 등에서 잘못 사용하는 표기 우선

- (예) 정부에선, 어떻게 할 지, 뽕뽕 얼은 인도(얼음이 얼으니까)
- 빈도수와 활용도 높은 규정 우선
- (예) 장맛비/위층, 결석률/결사율
- ② 올바른 표기 제시하기
 - 틀린 것 고치기는 오히려 표기의 혼란 가중
- ③ 혼동되는 표기를 대비시켜서 문장으로 제시하기
 - (예) 전셋집은 커녕 전세방도 구하기 어려워. 내가 셋방 하나만 구해줄래?
- ④ 문법 설명 절대하지 않기
 - 일상적인 예를 들어
 - 논리적으로
 - 단순화하여
 - (예) 몇 월 며칠, 일찍이/지붕, 띄어쓰기, 되/돼
- ⑤ 통용 규정(?)으로 숨통 열기

2.2 국어 어문 규정 학습 방안

- 글쓰기와 연계하여 과제 제시

1) 책 읽고 서평 쓰기

- (조건: ① 최근 출판된 것 ② 유명 출판사의 책 ③ 한 학기 동안 읽을 분량)
- (목적: 바른 표기에 자꾸 노출시키기 + 읽기 습관 키우기)

2) 잘못된 광고 표기가 있는 업체의 홍보부에 수정 건의문 쓰기

- (조건: ① 유명 회사나 관공서의 광고, 또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홍보 잡지
- ② 과제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회신을 첨부할 것)
- (목적: 표기 현실 인식하기 + 표기와 관련된 현실 참여)

3.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국어 어문 규정 학습안 예시

바른 표기

(1) 소리대로 쓰기와 모양 맞춰 적기

- ① 밤이 가까워오자 점점 추워졌다.
- ② 영희는 마음씨가 고와서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난다.
- ③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일찍이 라디오를 켜다.
- ④ 우리 반은 지난 주 수업 결석률과 이번 주 중간시험 결시율이 모두 높았다.
- 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 ⑥ 껌을 뱉어라.
- ⑦ 이 일은 생각처럼 만만찮다.
- ⑧ 너, 깍두기 먹는 오뎅이를 본 적이 있니?
- ⑨ 전셋집은커녕 전세방도 구하기 어려워. 네가 셋방 하나만 구해줄래?
- ⑩ 우리 위층은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 지경인데, 너희 윗집은 어때니?
- ⑪ 하루 동안 해야 할 일과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구분해라.
- ⑫ 중간시험 없음.

(2) 많이 틀리는 표기

- ① 하면 안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다.
- ② 영희는 집에 가도 되지만, 철수는 집에 가면 안 돼요.
- ③ 그 곳은 몹시 출더라. 그러니 외투를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 ④ 어제 철수가 칭찬을 받네. 무슨 일이야? 아, 글썄, 철수가 우등상을 받았대요.
- 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 ⑥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지? 오늘 콘서트는 웬지 기대되는 걸.
- ⑦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 ⑧ 예부터 우리 마을에 전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 ⑨ 여기저기서 술잔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3) 표준어

- ① 우리 모임 회칙의 셋째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 ② 웃어른을 공경합니다.
- ③ 흠뻑도 아니면서 배가 남산만 해 가지고 일을 나가다니.
- ④ 그녀는 항상 옷매무시하는 시간이 길었다.
- ⑤ 선생님께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 ⑥ 이제 막 가려고 일어서는 중입니다.
- ⑦ 하늘을 나는 기러기.

(4) 외래어 표기법

- ①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러 왔습니다.
- ② 텔레비전을 켜다.
- ③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소설의 플롯입니다.
- ④ 저는 대학에서 플루트를 전공했습니다.
- 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케이크를 먹었다.
- ⑥ 나는 초콜릿을 제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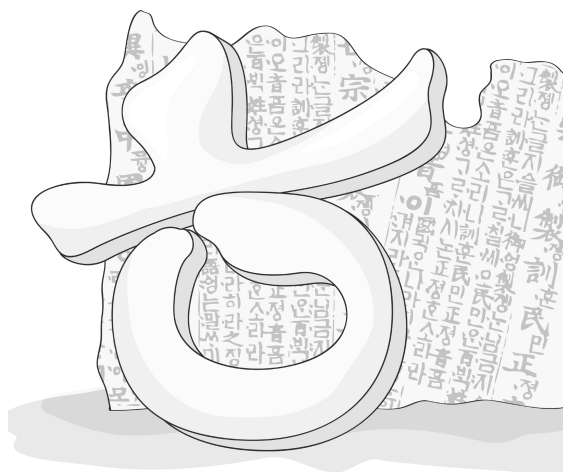
(5) 띄어쓰기

- 1) 우리는 만난 지 3년 만에, 서로 간의 약간의 오해 때문에 생긴 불신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갔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치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지니게 됐다.
- 2) 열 내지 열한 명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는 듯하다.
- 3) 너 없는 빈 교실에서는 너의 쓸쓸한 웃음소리만 내 귀에 울릴 뿐이었다.
- 4) 비는 오는데 갈 데도 없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걷다 보니 무려 세 시간이 지나 버렸다.
- 5) 먹고 싶은 만큼 계획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6) 머리 좋은 게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 7) 세 시에서부터 일곱 시까지 공부해야겠다.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김 한 샘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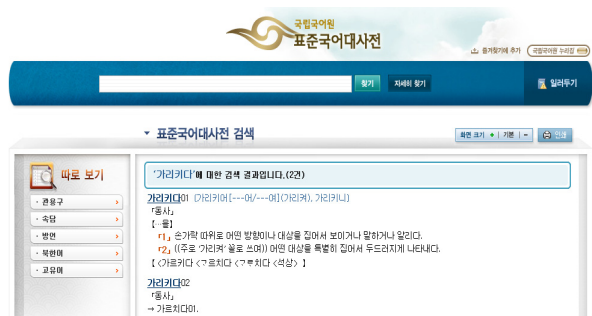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된 정보를 소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오면 정면에 국어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에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적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총 3권의 종이 사전으로 출간되었으며 2001년에는 컴퓨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사전(CD 형태)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 사전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되고 있는 사전이다.

1.1 사전 정보

사전에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실려 있다. ‘가리키다’를 예로 들어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검색 칸에 ‘가리키다’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가리키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다’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와 관련이 있다. 이 둘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01과 02로 나뉜 것이다.



‘가리키다02’는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다01.”로 되어 있다. 이는 ‘가리키다02’는 ‘가르치다01’로 가라는 뜻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같이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가르치다01’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자.

가리키다01 발음 듣기

발음

활용 정보: [가리키어[---어/---여]](가리켜), 가리키니

활용

[동사]

품사

뜻풀이

[...을]

문형

용례

1.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시냇바늘이 이미 오후 네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나는 형사에게 뒷덜미를 잡힌 채 막사 안을 둘러다보며 자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켜 주었다. <한수산, 유민>

2. ((주로 ‘가리켜’ 꼴로 쓰여))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1. 모두들 그 아이를 가리켜 신동이 낳다고 했다./사람들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그를 가리켜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했다.

[어원]

[<가리키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석상>]

- 1) 발음: 단어의 발음을 알려 준다. ‘가리키다’ 옆에 ‘발음 듣기’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발음 듣기’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표기와 발음이 다를 경우 단어 옆에 발음을 제시해 두었다.

안다01 [안 : 따] / 찾다[찾따]

- 2) 활용 정보: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가 연결되면 모습이나 발음이 바뀌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가리키다’의 어간에 ‘-어’가 연결되면 ‘가리키어’가 되고 이것이 ‘가리켜’로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가리키어’가 [가리키어]나 [가리키예]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려 준다. 이와 달리 명사 뒤에 조사가 연결될 때도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 정보에서 알려 준다.

꽃01 [꽃이[꼬치], 꽃만[꼇-]]

- 3) 품사: 단어의 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4) 문형: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어떤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는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경우 ‘북쪽을 가리키다, 네 시를 가리키다, 사람을 가리키다’ 등과 같이 반드시 ‘~을’과 함께 쓰이므로, 문형 정보에서 【...을】을 제시하고 있다.
- 5) 뜻풀이와 용례: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어의 뜻과 그 용례를 알려 준다. 실례 뒤에는 그 출전을 밝혔다.
- 6) 어원: 단어가 15~17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 준다. 최초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하며 그 형태가 바뀌면 함께 제시한다. ‘가리키다’는 “석보상절”에서 ‘ㄱ리키다’로 처음 나타났으며, ‘ㄱ리키다’가 ‘ㄱ리치다’를 거쳐 ‘가리키다’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2. 사전 검색 방법

누리집에서는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면 단어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물음표)’는 해당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자 한 개를 모르면 ‘?’, 글자 두 개를 모르면 ‘??’, 글자 세 개를 모르면 ‘???’처럼 글자 수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별표)’는 글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들을 찾아준다. 만약 ‘인사말’인지 ‘인삿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말’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만약 ‘인*말’로 검색하면 ‘인’으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한다. 참고로 ‘?’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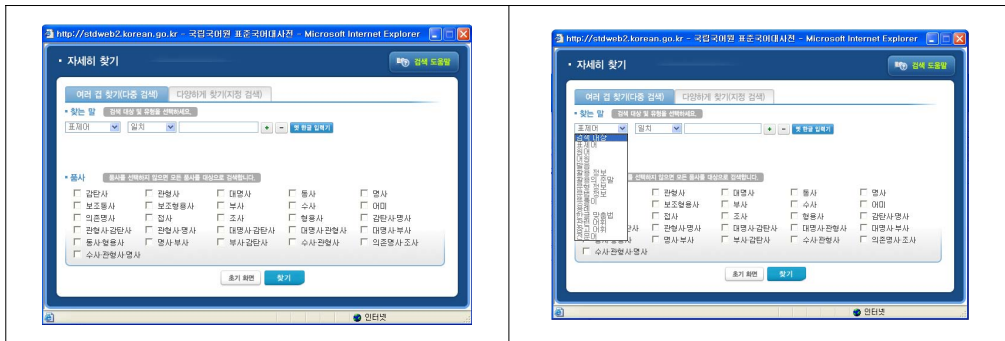
| ‘인?말’ 검색 결과 | ‘인*말’ 검색 결과 |
|---|---|
| <p>‘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p> <p>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p>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p> | <p>‘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6건)</p> <p>인말이(姻末) 『대명사』 주로 형제들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異姓)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누이하02(部下).</p> <p>인말(姻末) 『명사』 『인간속』 인시(姻戚)의 끝 무렵.</p> <p>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p>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p> <p>인종지말(人種之末) 『명사』 사람의 씨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라는 뜻으로, 태도나 행실이 사람답지 않고 막힌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p> <p>인중지말(人中之末) 『명사』 사람 가운데 행실이 나쁜 사람이 제일 못한 사람.</p>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그 속담의 첫 단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의 일부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도록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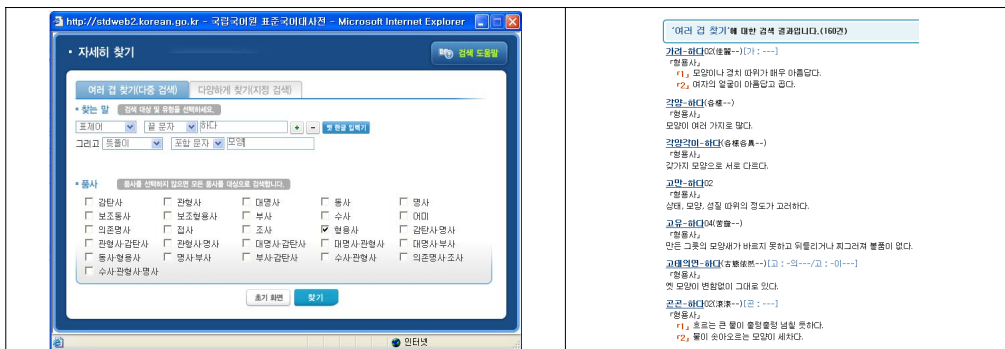
사전 화면 왼쪽에 ‘따로 보기’ 아래에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담’을 누르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표제어’에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속담을 찾아 준다. 다음은 ‘말’이 들어간 속담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용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화면으로 들어오면 검색 칸 옆에 ‘찾기’ 단추 외에 ‘자세히 찾기’ 단추가 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검색하는 기능으로,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찾기’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발음, 뜻풀이, 용례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조건도 하나 이상 줄 수 있다. 가령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뜻풀이에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검색할 수 있다.



겹쳐 나는 소리'를 누르면 '겹쳐 나는 소리'와 관련된 조항인 제13항이 나온다. 그런데 조항을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있으나, 왜 그렇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마다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조항 아래에 있는 '해설 보기'를 누르면 왜 그렇게 쓰는지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는 어떻게 쓰는지 설명되어 있다

▶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바른 규정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특히 보기

자음 단소리 자음 구개음화 자음 'ㄴ' 받침소리 자음 모음 자음 두음 법칙 겹쳐 겹쳐 나는 소리

❶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쫓아고, ㄴ을 배렴.)

| ㄱ | ㄴ | ㄱ | ㄴ |
|------------|------|------|------|
| 막막 | 막막 | 꽃꽃하다 | 꽃꽃하다 |
| 확확 | 확확 | 불불하다 | 불불하다 |
| 꼭꼭 | 꼭꼭 | 눅눅하다 | 눅눅하다 |
| 꼭꼭꼭막 | 꼭꼭꼭막 | 밋밋하다 | 밋밋하다 |
| 속속속속 | 속속속속 | 확확하다 | 확확하다 |
| 연연불망(戀戀不忘) | 연연불망 | 쫘쫘하다 | 쫘쫘하다 |
| 유유상종(優優相從) | 유유상종 | 썹썹하다 | 썹썹하다 |
| 누누이(累累) | 누루이 | 점점하다 | 점점하다 |

해설 보기

▶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바른 규정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특히 보기

자음 단소리 자음 구개음화 자음 'ㄴ' 받침소리 자음 모음 자음 두음 법칙 겹쳐 겹쳐 나는 소리

❶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쫓아고, ㄴ을 배렴.)

| ㄱ | ㄴ | ㄱ | ㄴ |
|------------|------|------|------|
| 막막 | 막막 | 꽃꽃하다 | 꽃꽃하다 |
| 확확 | 확확 | 불불하다 | 불불하다 |
| 꼭꼭 | 꼭꼭 | 눅눅하다 | 눅눅하다 |
| 꼭꼭꼭막 | 꼭꼭꼭막 | 밋밋하다 | 밋밋하다 |
| 속속속속 | 속속속속 | 확확하다 | 확확하다 |
| 연연불망(戀戀不忘) | 연연불망 | 쫘쫘하다 | 쫘쫘하다 |
| 유유상종(優優相從) | 유유상종 | 썹썹하다 | 썹썹하다 |
| 누누이(累累) | 누루이 | 점점하다 | 점점하다 |

해설 보기

‘막막, 확확’ 등은 의성에 ‘막, 확’이 겹쳐진 형태(疊聲)이다. 한자어 ‘연연(戀戀), 유유(悠悠), 누누(-이)’ 등도 유사한 경로를 지닌 것이다. 그런데 ‘꽃꽃하다, 불불하다’ 등에서의 ‘꽃, 불’은 한자어 ‘花, 火’가 태음체,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한자 어원과 오문체 어원) 유형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중복되는 형식이므로, 문 앞에서 함께 다루었다.

다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3항 ‘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행태가 [연:난:], [유유:], [누:누:]로 글자 지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행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당(要要無當), 요요사(要要師)’ 등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 | | |
|----------|----------|-------------|
| 낭망(浪浪)하다 | 낭망(浪浪)하다 | 득득(得得)하다 |
| 능릉(累累)하다 | 연년성(年年生) | 염념불망(念不忘) |
| 억척(億億)하다 | 인원(僥僥)하다 | 적나라(赤赤裸裸)하다 |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규정을 찾아 직접 표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용례 찾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원어나 한글 표기를 넣고 ‘찾기’를 누르면 원어의 바른 한글 표기를 알려 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로마자로 표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그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 준다.

▶ 외래어 표기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마취, 용례 정보 >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원어

표기

원문검색

원문번호검색

검색결과: 49651건

원문순

기호순

| 번호 | 원어 표기 | 한글 표기 |
|------|--|-------------------|
| 4951 | Torres (Casanova), Sandra | 토레스 (카사노바), 산드라 |
| 4950 | Kirch, Leo | 카르히, 레오 |
| 4949 | Chávez (Frias), Adán | 차베스 (프리아스), 아단 |
| 4948 | 朱民(Zhu Min) | 조민 |
| 4947 | Swayze, Patrick (Wayne) | 스웨이지, 패트릭 (웨인) |
| 4946 | Sandberg, Sheryl | 산드버그, 셰릴 |
| 4945 | Mujawar, Aft Muhammad (통용 로마자: Mujawar, Ali Muhammad) 마왈 아말: محمّد مجاور | 무자와르, 알리 무왈마드 |
| 4944 | Murray, Douglas | 마리, 더글러스 |
| 4943 | Murdoch, James (Rupert Jacob) | 머독, 제임스 (루퍼트 제이콥) |
| 4942 | Niemi, Lisa | 니에미, 리사 |

▶ 로마자 표기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마취, 용례 정보 > 로마자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검색

결과

| 번호 | 우리말 | 로마자 표기 |
|-------|---------|---|
| 12803 | 가경동 | Gagyeong-dong(O) Kagyeong-dong(X) Gakyeong-dong(X) Kagyeong-dong(X) |
| 12802 | 가계 해수욕장 | Gagye beach(O) Kagye beach(X) |
| 12801 | 가계 | Gagye(O) Kakyae(X) Kagye(X) |
| 12800 | 가곡 | gagok(O) Gagok(X) Iagok(X) gakok(X) kakok(X) |
| 12799 | 가곡동 | Gagok-dong(O) Kagok-dong(X) Gakok-dong(X) Kakok-dong(X) |
| 12798 | 가곡면 | Gagok-myeon(O) Kagok-myeon(X) Gakok-myeon(X) Kakok-myeon(X) |
| 12797 | 가교비 | Gagyoobi(O) Gakyobi(X) Kagyobi(X) Kakyobi(X) |
| 12796 | 가금면 | Gageum-myeon(O) Kagum-myeon(X) Gakeum-myeon(X) Kagum-myeon(X) |
| 12795 | 가나안 | Ganaan(O), Kanaan(X) |
| 12794 | 가남면 | Ganam-myeon(O) Kanam-myeon(X) Kanam-myeon(X) |

3.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이란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이다. 가령 ‘가십시오’가 맞는지 ‘가십시요’가 맞는지 궁금할 때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화면 윗부분에 있는 검색 칸에서 ‘질문 제목’이나 ‘질문 내용’을 설정한 후에 ‘가십시오’나 ‘가십시요’를 넣고 검색하면 ‘가십시오/가십시요’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검색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다.

②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첫화면](#) > [문의응답](#) >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이곳은 주로 규범이나 어법,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입니다.
간단한 사항은 가나다 전화 1599-9979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두 단어 조합 검색 방법 : 단어와 단어 사이에 AND 를 삽입(예 : 가 AND 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 자료 보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4 | 바른표기 ※맞글-가십시오, 오십시오 | 박가영 | 2010.02.08. | 17 |
| 3 | 문의드립니다. ※맞글-십시오 (맞춤법) | 박희숙 | 2008.12.26. | 19 |
| 2 | 안녕히 가십시오/시요 ※맞글-십시오 (맞춤법) | 이수연 | 2008.12.29. | 19 |
| 1 | 종결형어미에 “요” 사용을 허용합니까? ※맞글-안녕히 가십시오, (맞춤법) | 이강길 | 2008.02.25. | 116 |
| | | 임현열 | 2008.02.26. | 116 |
| | | 홍미균 | 2007.12.20. | 187 |
| | | 국립국어원 | 2007.12.21. | 187 |

[이전](#) [다음](#) > [글쓰기](#)

답변 제목: 가십시요, 오십시오

작성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자 2010.02.09.

안녕하십니까?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가다, 오다’의 어간 ‘가-, 오-’ 뒤에 ‘-십시오’를 붙여 ‘가십시오./오십시오.’와 같이 적습니다. 종결 어미 ‘-세요’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형자에게 준대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방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 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 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면 상담원이 바로 답을 알려 준다.

그리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에 들어오는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 300여 개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에 정리해 놓았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로써’와 ‘로써’의 차이, ‘들려서/들러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있음/있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부고하는 요령이나 단자 쓰는 법, 세배 인사법 등 국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 일의용법 >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화식 단어를 검색하여 일의용법에 입력하면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 번호 | 원부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 | | '문서'와 '문서'의 차이 | 2000.05.31. | 14371 |
| 8 | | '한구 집에 불라시/불라시'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000.05.31. | 10682 |
| 7 | | '고마워요'와 '고마와요'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000.05.29. | 12840 |
| 6 | | '것음'과 '것슴'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000.05.29. | 15871 |
| 5 | | '문석'이 잘못된 말입니까? | 2000.05.29. | 12953 |
| 4 | | '끼여들기'와 '끼여들기' 중 맞는 표기는? | 2000.05.29. | 14443 |
| 3 | | 슈퍼맨은 '날으는' 것입니까, '나는' 것입니까? | 2000.05.29. | 13658 |
| 2 | | '내'와 '내'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000.05.29. | 15889 |
| 1 | | '너머'와 '넘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 2000.05.29. | 24738 |

<< 처음으로 < 이전 41 42 43 다음 > 끝 >>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 일의용법 >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화식 단어를 검색하여 일의용법에 입력하면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 번호 | 원부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29 | | 부고하는 요령 | 2008.01.21. | 6653 |
| 428 | | 먼저 봉투 쓰는 법 ④ | 2008.01.21. | 4788 |
| 427 | | 철근 간지의 축약표 봉투와 단자 | 2008.01.21. | 2642 |
| 426 | | 조리금 봉투와 단자 | 2008.01.21. | 3073 |
| 425 | | 먼저 봉투 쓰는 법 ③ | 2008.01.21. | 2490 |
| 424 | | 먼저 봉투 쓰는 법 ② | 2008.01.21. | 3061 |
| 423 | | 문상 간증 때 인사말 | 2008.01.21. | 5688 |
| 422 | | 장남 퇴임 때 인사말 | 2008.01.21. | 3189 |
| 421 | | 병상간 간증 때 인사말 | 2008.01.21. | 4461 |
| 420 | | 복음세배 | 2008.01.21. | 2694 |

<< 처음으로 <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끝 >>

4. 공공 언어 지원

4.1. 순화어와 ‘우리말 다듬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바꾸어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를 ‘순화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순화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첫 화면의 ‘찾기 마당’을 누른 후에 ‘어휘·용어 정보’에서 ‘순화어’로 들어오면 된다.

순화어 자료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순화 대상으로 ‘나시’를 찾으면 ‘나시, 소테나시, 에리나시’ 등이 검색된다. ‘나시’에 들어가면 ‘x’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순화한 용어만 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즉 ‘나시’, ‘소테나시’를 쓰지 말고 ‘민소매’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순화어

첫화면 > 찾기마당 > 어휘·용어정보 > 순화어

1991년 순화자료집(1977~1991 종합)부터 2002년 순화자료집까지 21,000여 개의 순화어를 종합한 **국어 순화자료집** **집본**(2003년)과 2009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순화 대상어 | 원어 | 순화어 | 권장 |
|----|--------|--------------|--------|----|
| 4 | 나시 | ← そやなし말.. | 민소매 | |
| 3 | 소테나시 | 袖なし, そやなし.. | 민소매(笑) | |
| 2 | 에리나시 | 襟なし | 민것 | |
| 1 | 에리나시 | 襟なし, えりなし말.. | 민것 | |

<< 처음으로 < 이전 1 다음 > 끝 >>

나시

순 화 어: 민소매

원 어: ← そやなし말

순 화 정 도: x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의 미/용 레: 패션 디자인

비 고: 국연1999(고시)

순화어에는 ‘나시’처럼 순화한 용어만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과 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 가드 | |
|----------|-------------------------|
| 순 화 어: | 수비수 |
| 원 어: | guard |
| 순 화 정 도: |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
| 의 미/용 례: | 운동경기(핸드볼) |
| 비 고: | 국연2001 |

| 가세 | |
|----------|---------------------------------|
| 순 화 어: | 집안 형편 |
| 원 어: | 家勢 |
| 순 화 정 도: | ○ :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
| 의 미/용 례: | 행정 |
| 비 고: | 국연1992 |

최근 인터넷에 오르는 글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외래어가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 폴 옵션, 시스루, 플래시몹’ 등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
| 316 | 롤 모델(role model)은 '행복가상'으로 | 우리말 | 2011.07.05 | 140 | 5 |
| 315 | 포커 페이스(poker face)는 '무표정'으로 (17) | 우리말 | 2011.06.21 | 346 | 6 |
| 314 | 바리스타(barista)는 '커피전문가'로 (29) | 우리말 | 2011.06.07 | 957 | 12 |
| 313 | 에버페이스(ever pace)는 '무리(하디)'로 (28) | 우리말 | 2011.05.24 | 695 | 26 |
| 312 | 앨범(all bill)은 '책상아 열' (116) | 우리말 | 2011.05.10 | 1828 | 93 |
| 311 | 러브샷(love shot)은 '사랑건배'로 (42) | 우리말 | 2011.04.26 | 1418 | 15 |
| 310 | 치킨게임(chicken game)은 '닭장승부'로 (3) | 우리말 | 2011.04.12 | 1407 | 10 |
| 309 | 에코드라이브(eco-drive)는 '친환경운전'으로 (1) | 우리말 | 2011.03.29 | 996 | 50 |
| 308 | 로하스(LOHAS)는 '친환경 삶'으로 (4) | 우리말 | 2011.03.15 | 938 | 4 |
| 307 | OR 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정보무늬'로 (3) | 우리말 | 2011.03.01 | 1238 | 5 |
| 306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관광취업'으로 (10) | 우리말 | 2011.02.15 | 844 | 2 |
| 305 | 블랙슈머(black consumer)는 '약력소비자'로 (1) | 우리말 | 2011.02.01 | 942 | 3 |
| 304 | 런칭쇼(launching show)는 '신제품 발표회'로 | 우리말 | 2011.01.18 | 899 | 5 |
| 303 | '스키니진(skinny jeans)'은 '합시형바지'로 (10) | 우리말 | 2011.01.04 | 1700 | 7 |
| 302 | PL(Private Label)상품은 '자체기획상품'으로 | 우리말 | 2010.12.21 | 924 | 4 |
| 301 | 와이드(Wi-Fi)는 '근거리무선망'으로 (9) | 우리말 | 2010.12.08 | 1819 | 10 |
| 300 |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공동구매'로 | 우리말 | 2010.11.23 | 1337 | 10 |
| 299 |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주택주택'으로 | 우리말 | 2010.11.09 | 1181 | 9 |
| 298 | 멀티탭(multi-tap)은 '연속꽃'으로 (7) | 우리말 | 2010.10.27 | 1719 | 18 |
| 297 | 슬로시티(slow city)는 '행복지역'으로 (4) | 우리말 | 2010.10.12 | 1336 | 12 |
| 296 | 선루프(sunroof)는 '지붕창'으로 (9) | 우리말 | 2010.09.28 | 16241 | 12 |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에서는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바꾼 단어를 알리는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듬고 싶은 말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바꿀 단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듬을 말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4.2. 공공언어 지원 요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 기관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책 용어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공공언어 지원’이라는 누리집을 만들었다. 이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 다듬고 싶은 말이나 문장을 다듬어 준다.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www.korean.go.kr/publang)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질의응답’ 아래에 있으며, 첫 화면 오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공공언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에 들어와 요청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 공공 언어 지원 사업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원 요청 시 신청인이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실명 확인을 한다.

실명 확인을 한 후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날말’인지 ‘문장’인지 선택하면 된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를 원하면 화면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대로 작성하면 되고, 문장의 교열이나 교정을 받고자 하면 작성한 문장을 파일로 올리면 된다.

공공언어 지원

1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회원명 >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이제 요청하는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은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에 따라 작성됩니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 등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제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요청서(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이제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은 한글이 아니고, 한글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한글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한글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름 입력 칸에 처리해달라 입력 처리해달라.

[요청서식\(내려받기\)](#)

개인명 연승 ☒ 실명확인 ☐ 공공 I-PIN ☐

작성자 ※ 개인 인증 확인 후 작성자는 자동 입력 됩니다.

소속

전자우편

전화번호

공공업무 ☒ 공적 ☐ 비공적

목적

분대 ☒ 날말 ☐ 문장 ☐ 그 밖

공공언어 지원

2 지원 요청 현황

회원명 > 지원 요청 현황

| 번호 | 제목 | 분대 | 작성자 | 신청일 | 상태 | 조리 |
|-----|-----------------------|----|-----|------------|----|----|
| 142 | 조선 시대 고서 저서인 공초 [태종초] | 문장 | 박지현 | 2011-07-15 | 0 | |
| 141 | 조선시대 고서 저서인 공초 [태종초] | 문장 | 주영환 | 2011-07-15 | 접수 | 2 |
| 140 | 조선시대 고서 저서인 공초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13 | 완료 | 0 |
| 139 | 한글교정 프로그램 사용법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13 | 완료 | 0 |
| 138 | 한글교정 프로그램 사용법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12 | 완료 | 0 |
| 137 | 한글교정 프로그램 사용법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11 | 완료 | 3 |
| 136 | 한글교정 프로그램 사용법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07 | 완료 | 13 |
| 135 | 한글교정 프로그램 사용법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06 | 완료 | 0 |
| 134 | 한글교정 프로그램 사용법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06 | 완료 | 0 |
| 133 | 한글교정 프로그램 사용법 [태종초] | 문장 | 김수경 | 2011-07-06 | 완료 | 0 |

이전 < 1 2 3 4 5 6 7 8 9 10 > 다음

5. 강의 지원

5.1.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어문화학교(www.korean.go.kr/ kculture)’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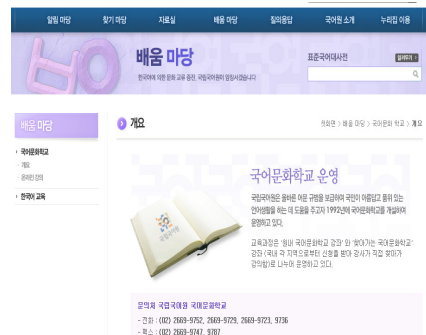
최근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인 30명 이상이 모여 2시간가량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중앙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군 부대 등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강의로, 강사 여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국립국어원이 모두 부담한다.

5.2. 온라인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어문 규정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배움 마당’의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과목은 말 그대로 어문 규정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알려 주는 강의이다. 어문 규정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궁금했던 예들로 수업을 진행해 한글 맞춤법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온라인 강의

찾아보기 > 배움 마당 > 국어문화 학교 > 온라인 강의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4 | 공문서 바로 쓰기 | 2010-06-21 |
| 3 |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외의 적선과 국어 순화 | 2010-06-21 |
| 2 | 새터민 맞춤 교육 | 2010-01-31 |
| 1 | 한글 맞춤법 | 2009-11-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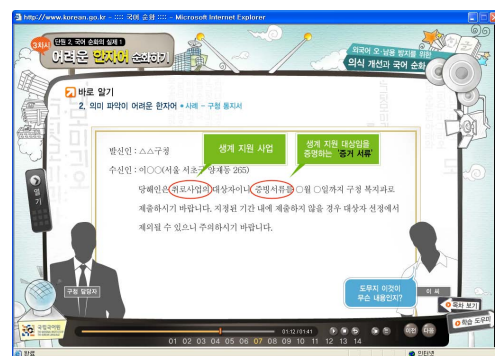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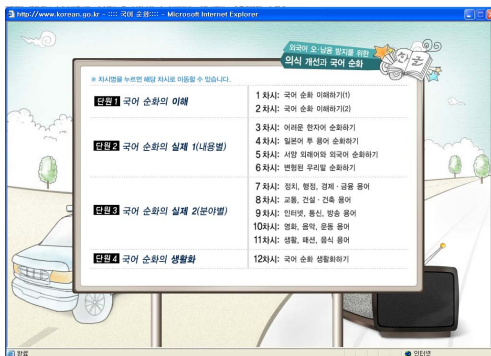
< 이전 > < 다음 > < 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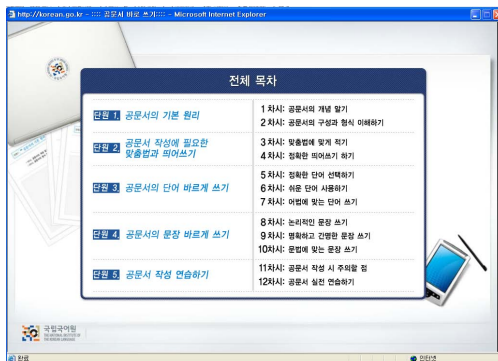
‘새터민 발음 교육’은 새터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다. 새터민의 발음과 억양은 남한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새터민을 위해 다른 발음이나 억양을 중심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 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외국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강의는 국어 순화와 관련된 강의이다. 국어 순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 주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행정 용어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는 공문서를 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이다. 공문서를 쓸 때 필요한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어휘나 문장을 바르게 쓰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실제 공문서의 예를 들어 잘못된 곳을 찾고 고쳐 보기도 한다.



6.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한글의 탄생과 역사, 아름다운 한글, 생활 속 한글, 한글과 교육, 한글의 진화와 미래)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의 탄생과 역사’에서는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 주며, 세계 여러 문자의 역사도 소개한다.

‘아름다운 한글’에서는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글의 자형의 변천 과정과 한글 글꼴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다양한 글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글꼴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생활 속 한글’에서는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주제로 한 한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한글 문헌과 사회상을 반영한 한글 문헌을 소개한다.

‘한글과 교육’에서는 한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문 규범과 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어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된다.

‘한글의 진화와 미래’에서는 한글의 모습과 사용 양상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여 준다. 한글의 세계화와 기계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어문 규정을 소개하고 남북한 언어도 비교해 놓았다.

이 외에 ‘학술 정보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한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한 곳이다. 한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문헌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한글 문헌 통합 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7.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배움 마당’의 ‘한국어 교육’에 들어오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기본 교재’, ‘이주민을 위한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로 나뉜다. 한국어 교사이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건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교재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한국어세계화재단(www.glokorean.org)’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일과 한국어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일 외에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획·편집 :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박미영(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차례: 국어 어문 교육의 과제: 민현식(국립국어원장)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표준어 규정 해설: 이선웅(경희대학교 교수)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대학 교양 국어와 어문 규정 교육 구성: 이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김한샘(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2013-03-01

바른 국어 생활

-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교재 -

2013년 2월 12일 인쇄

2013년 2월 14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